평양의
일화와 전설

평양의 일화와 전설

조선 · 평양
외국문출판사
주체105(2016)년

머 리 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설과 력사이야기에는 내용이 환상적으로 표현된것도 있고 사실이 과장된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 인민의 슬기와 용맹, 아름다운 생활감정과 소박한 지향이 반영되여있습니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평양에는 다양하고 풍부한 일화와 전설들이 전해지고있다.

그가운데는 외래침략자들로부터 평양을 지켜 싸운 평양인민들의 애국심, 봉건적착취제도와 착취계급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예술적으로 형상한 이야기 등 인민들이 평양을 사랑하고 노래한 많은 일화와 전설들이 있다. 또한 평양이 조선민족의 발상지이며 민족의 첫 국가인 고조선의 수도라는데 대하여서와 평양인민들의 고상한 도덕풍모, 미풍량속을 보여주는 내용의 일화와 전설들도 있다.

이러한 일화와 전설들은 평양의 력사와 더불어 길이길이 전해지면서 평양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더욱 빛내여주고있다.

이 책에서는 고대로부터 근대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평양의 일화와 전설들중의 일부를 소개한다.

차　례

평양의 일화 · · · · · · · · · · · · · · · · · · 5
온달장군 · 5
록족부인과 그의 아들들 · · · · · · · · · · · · · 13
오탄 · 17
계월향과 《의렬사》 · · · · · · · · · · · · · 21
《인경쳐라》 · · · · · · · · · · · · · · · · 22
평양종을 치다 · · · · · · · · · · · · · · · 25
대동강물을 팔다 · · · · · · · · · · · · · · 32
장기시로 유명해진 소백주 · · · · · · · · · · · 36
평양에서 울고 간 시인 · · · · · · · · · · · · 41
대동강의 시인 · · · · · · · · · · · · · · · 43
왕성탄을 지킨 박다지 · · · · · · · · · · · · 45
련광정의 현판 《천하제일강산》 · · · · · · · · 49
릉라도에서 있은 무과과거시험 · · · · · · · · · 53
공후인을 창작한 녀류음악가 려옥 · · · · · · · 56
공후인전파의 선구자 려용 · · · · · · · · · · · 57
서도잡가의 시조로 알려진 허득선 · · · · · · · 58
《왕손은 만만세》 · · · · · · · · · · · · · · 60
평양 날탕패의 서도선소리명창들 · · · · · · · · 63
애국녀성 백선행 · · · · · · · · · · · · · · · 65

평양의 전설 · · · · · · · · · · · · · · · · · · · 68
평양의 유구한 력사 · · · · · · · · · · · · · · · 68
단군의 궁전-버들궁전 · · · · · · · · · · · · · · 68
하늘땅의 맏아들궁전 · · · · · · · · · · · · · · · 70
구제궁 · 73
홍산 · 74
단군호 · 79
아달샘 · 84
말무덤 · 88
아달산의 우뢰소리 · · · · · · · · · · · · · · · · 91
홍부동의 유래 · · · · · · · · · · · · · · · · · 95
동명왕릉에서 량반을 골려준 농부 · · · · · · · · · 98
대성산의 고분을 지키는 뱀 · · · · · · · · · · · 103

아름답기로 소문난 평양 · · · · · · · · · · · · 107
모란봉으로 내려온 선남 · · · · · · · · · · · · 107
부채바위 · · · · · · · · · · · · · · · · · · · 108
옷을 벗기는 모퉁이 · · · · · · · · · · · · · · 111
대성산성 남문의 꽃밭 · · · · · · · · · · · · · 117
매화꽃을 지킨 처녀 · · · · · · · · · · · · · · 123
대동강의 닻 · · · · · · · · · · · · · · · · · 128
청류벽 · 130

평양인민들의 반침략, 반봉건투쟁 · · · · · · · 132
붉어진 평양성돌 · · · · · · · · · · · · · 132
을밀장군과 을밀대 · · · · · · · · · · · · · 134
우릉과 소비 · · · · · · · · · · · · · · · 139
백은탄 · · · · · · · · · · · · · · · · · · 150
행복의 문-칠성문 · · · · · · · · · · · · · 153
단군사의 우뢰소리 · · · · · · · · · · · · · 157
을밀대의 소나무 · · · · · · · · · · · · · · 167
왕성탄 · · · · · · · · · · · · · · · · · · 171
신비로운 보통문 · · · · · · · · · · · · · · 174
도끼장수 · · · · · · · · · · · · · · · · · 179
쥐의 사당 · · · · · · · · · · · · · · · · 187
창광산의 유래 · · · · · · · · · · · · · · · 188
떠내려온 릉라도 · · · · · · · · · · · · · · 194

평양인민들의 고상한 도덕의리 · · · · · · · · · 198
임금의 사위가 된 군사 · · · · · · · · · · · 198
응국교 · · · · · · · · · · · · · · · · · · 203
주암산 · · · · · · · · · · · · · · · · · · 209
어린 사슴을 구원해준 처녀 · · · · · · · · · 212
은혜를 갚은 노루와 뱀 · · · · · · · · · · · 214

평양의 일화

온달장군

온달은 고구려를 침략해온 외적을 쳐부시는 싸움에서 용맹을 떨친 유명한 장군이다.

평양의 일화가운데서 반침략투쟁과 관련된 일화로서 가장 널리 전해져오고있는것은 온달장군에 대한 이야기이다.

온달장군에 대한 이야기는 고구려가 왕궁을 대성산기슭으로부터 평양성안으로 옮긴 초기에 있었던 이야기이다.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전해지고있다.

평양성밖 어느 한 마을에 온달이라는 총각이 눈먼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있었다.

그는 비록 헐벗고 굶주리며 살아왔으나 체격이 름름하고 마음이 순박하였다.

온달은 집안이 몹시 가난하여 늘 밥을 빌어다가 눈먼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해진 옷을 입고 맨발로 이 마을 저 마을로 동냥하며 다니였으므로 당시 사람들은 그를 《바보온달》이라고 놀려주었고 그것은 그의 대명사처럼 되였다.

당시 고구려의 평강왕에게는 세 딸이 있었는데 막내

딸이 어려서부터 울기를 잘하므로 왕이 늘 롱담으로 《네가 자꾸 울어서 나의 귀를 솔게 하니 커서도 필시 점잖은 사람의 안해는 못될것이다. 아마 너를 〈바보온달〉에게나 시집을 보내야 할가부다.》라고 말하였다.

공주가 16살이 되자 왕은 그를 상부귀족출신의 젊은이 고씨에게 시집을 보내려고 하였다.

그러자 공주는 왕에게 《부왕께옵서 늘 너는 반드시 온달의 안해가 되리라 하셨는데 오늘 무슨 까닭으로 전날의 말씀을 어기십니까? 보통사람도 거짓말을 하려하지 않거늘 하물며 임금으로서 어찌 딴 말씀을 할수 있나이까?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릇된것이오니 소녀는 따를수 없사옵니다.》라고 하였다.

왕은 처음에는 공주의 말을 롱담으로 듣고 웃으며 스쳐지나려 하였으나 그 말이 진정인줄 알게 되자 성을 벌컥 내며 이렇게 꾸짖었다.

《네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도저히 내 딸로 될수 없으니 어찌 내곁에 있겠느냐. 오늘부터 너는 내 딸이 아니니 당장 왕궁에서 나가거라!》

공주는 부왕의 엄명도 엄명이려니와 일찌기 굳게 결심한바도 있었으므로 마침내 왕궁에서 나오기로 결심하였다. 공주는 자기가 늘 애용하던 금반지, 은반지와 팔찌 몇개를 가지고 대궐문을 나왔다.

평양성을 나선 공주는 이때까지 궁문밖의 형편을 전혀 모르고 살아왔으므로 한동안 길을 몰라 헤매이다가 사람들에게 온달의 집을 물어 겨우 외진 산골짜기의 오막살이집앞에 다달았다.

집에는 눈먼 어머니만이 있었다.

공주는 온달의 어머니앞에 다가가 공손히 큰절을 하고 찾아온 사연을 말하였다.

그러자 온달의 어머니는 펄쩍 놀라 황급히 손을 내저으며《아씨의 몸에서 싱그러운 향기가 풍기고 말에서는 부드러운 인정미가 느껴지니 천하에 둘도 없는 귀인이 분명한데 누구의 허튼 수작을 듣고 잘못 오신것 같소이다. 내 자식은 주림을 참다 못해 송기를 벗기려고 저 산등성이로 갔나이다. 이런 상놈과 천금같으신 아씨께서 어찌 배필로 될수가 있겠사오이까? 제발 돌아가주시오이다.》라고 하였다.

공주는 어머니의 거치른 두손을 꼭 잡으며 온달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보겠노라고 하였다.

그러나 온달은 인차 돌아오지 않았다.

공주는 온달이 송기벗기러 갔다는 산등성이로 발걸음을 옮겼다.

한참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니 껍질벗긴 나무들사이로 웬 사나이가 지게를 지고 휘청거리며 내려오고있는

모습이 보였다.

더부룩한 머리, 다 해지여 살점이 드러나보이는 적삼, 돌에 채여 피가 흐르는 발, 거쿨진 불갈구리같은 손, 어느모로 보나 온달이 틀림없다고 생각하였다.

공주는 그의 앞으로 달려가 절을 한 다음 여사여사하여 찾아왔노라고 이야기하였다.

갑자기 나타난 아릿답고 정결한 처녀의 모습에 깜짝 놀라 어리벙벙해하던 온달은 불끈 성을 내며 꾸짖었다.

《여기는 녀자들이 다닐데가 아니니 너는 필연코 사람이 아니라 여우귀신이로구나. 나에게 가까이 다가들지 말아!》

말을 끝마치자 온달은 돌아보지도 않고 총총히 산을 내려갔다.

공주는 서글프고 허전한 마음을 안고 혼자 산에서 내려와 문밖에서 밤을 새웠다.

이튿날 아침 온달의 집으로 들어간 공주가 진정을 담아 절절하게 이야기하였다.

《저는 이 세상에 믿고 살분이 온달님 한분밖에 없나이다. 어머님을 천금같이 모시고 온달님을 정성껏 받들겠사오니 이 몸을 용납해주기 바라옵니다.》

하건만 온달은 결심을 할수가 없었다.

이런 심정을 헤아린 공주는 머리를 다소곳이 숙이며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옛 사람들이 말하기를 〈한말의 곡식도 찧어서 함께 먹을수 있고 한자의 베도 기워서 같이 입을수 있다.〉고 하였으니 만일 마음만 맞는다면 귀천에 관계없이 살수 있지 않겠나이까.》

공주의 이런 뜨거운 진정에 온달의 모자는 그만 머리를 숙이였다.

그다음날부터 온달과 공주는 한집안식구가 되여 낮에는 부지런히 일을 하여 눈먼 어머니를 정성껏 모시였고 밤에는 공주가 온달에게 글을 배워주었다.

어느덧 온달은 공주의 도움으로 글을 깨치고 병서에 능통하였으며 훌륭한 도사밑에서 무술을 배워 한다하는 무사로 되였다.

날로 늘어가는 온달의 무예를 기쁜 마음으로 지켜보던 공주는 훌륭한 말을 갖추어주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어느날 공주는 대궐을 떠나올 때 가지고왔던 금팔찌를 꺼내여 온달에게 주면서 군마로 쓸수 있는 말을 장만하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공주는 장거리의 말을 사지 말고 나라에서 군마로 기르던 말가운데서 병들고 수척하여 버리게 된것을 사오라고 하였다.

온달은 공주의 말대로 하였다.

온달이 사온 말은 비록 뼈가 앙상하게 여위였으나 날래고 강기가 있어보였다.

공주가 정성껏 잘 먹이고 돌봐주니 말은 살이 찌고 튼튼해졌다.

고구려에는 해마다 3월 3일이 되면 락랑벌에서 사냥경기를 벌리여 우수한 용사들을 장수로 뽑는 풍습이 있었다.

이날에는 왕이 직접 사냥을 나가군 했는데 여러 신하들과 5부의 군사들이 모두 따라나섰다.

농사를 지으면서 말타기와 활쏘기, 칼쓰기를 익혀온 온달은 공주의 권고에 따라 자기 말을 타고 사냥경기에 나섰다.

나라의 제노라 하는 장수들과 여러 고을의 날랜 젊은이들이 다 참가하는 이 경기에서 이름을 떨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그 누구도 날래고 힘세며 용감하고 무예가 능한 온달을 따를수가 없었다. 온달은 사냥경기에서 제일 많은 짐승들을 잡았다.

자기앞에 곰과 노루, 사슴을 한꺼번에 메쳐놓은 온달을 본 임금은 매우 기뻐하며 이름을 물었다.

그러자 온달은 름름한 자세로 어깨를 쭉 펴면서 대답하였다.

《소인은 평양성밖에서 사는 온달이라 하옵니다.》

왕은 깜짝 놀랐다.

《그대가 〈바보온달〉이란 말인가?!》

《그렇소이다.》

온달은 주저없이 대답하였다.

이어 온달에게서 공주의 도움으로 글을 깨치고 무술을 배우게 된 사연을 듣게 된 왕은 아무 말도 못하였다.

묵묵히 먼 하늘을 바라보던 왕은 한참만에야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사냥경기의 우승자는 그대이다.》

군중들은 북과 꽹과리를 치면서 온달을 축하해주었다.

바로 이때 후주라는 나라의 대군이 고구려땅에 침입하였다.

급보를 받은 왕은 급히 군사를 거느리고 전장으로 나갔다.

이 싸움에서 온달은 선봉장이 되여 혼자서 적병 수십명의 목을 베여 침략자들을 당황케 하였으며 휘하 군사들을 이끌고 적의 진지들을 들이쳐 침략자들을 모조리 쓸어눕혔다.

오랑캐들을 내쫓고 전공을 평가할 때 모든 군사들은 온달장군의 공로가 제일이라고 하였다.

왕은 온달을 크게 표창하고 례를 갖추어 부마로

맞아들이였으며 온달에게 대형이라는 벼슬을 주었다.

이때로부터 그에 대한 왕의 총애와 신임은 더욱 두터워졌으며 온달의 위풍과 권세는 날로 높아갔다.

그후 온달은 왕에게 《지금 신라가 우리 고구려의 령토를 떼내여 자기들의 군현으로 만들었으므로 그곳 백성들이 통분하게 생각하고있사오니 바라옵건대 대왕께서 저를 어리석고 변변치 못하다 하시지 말고 군사를 주신다면 한번 걸음에 우리 땅을 도로 찾겠나이다.》라고 청을 올렸다.

왕은 온달의 애국심을 높이 평가하고 그에게 많은 군사를 주었다.

온달은 떠나기에 앞서 계림령과 죽령의 서쪽지역이 우리 땅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리라 결심하였다.

온달은 전장에 이르러 싸움을 지휘하는 한편 직접 말을 타고 나가 신라군의 목을 수없이 베였다.

한치한치 피로써 국토를 수복해나가던 온달은 싸움이 거의 끝나갈무렵에 아단성밑에서 뜻하지 않게 치명상을 입고 쓰러졌다.

싸움판에서 무사답게 숨을 거두는 온달을 보며 고구려군의 모든 장병들은 머리를 숙여 경의를 표하였다.

풍습과 례의에 따라 장례를 하고 발인을 하려고

하자 나라의 훌륭한 무사를 잃은 슬픔이 커서인지 관이 움직이지 않았다.

10여명의 상두군들이 애를 쓰다 못해 온달의 부인인 공주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랑군이 전사했다는 비보를 받고 공주는 한달음에 싸움터로 달려왔다.

공주는 그처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던 랑군을 잃은 슬픔으로 억이 막혀 몸부림치며 눈물을 흘리였다. 그는 관을 어루만지면서《죽고살고 하는것이 결판이 났구나! 아, 돌아가시라!》고 하며 통곡하였다.

그제야 관이 들리여 발인을 할수 있었다고 한다.

평민출신의 훌륭한 장수를 잃은 온 나라는 슬픔에 잠겼고 하늘에서는 그의 전사를 조상하는듯 비가 내리였다.

특히 온달을 어릴 때부터 잘 알고있던 평양성사람들이 더욱 가슴아파하였다. 온달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평양성사람들에 의하여 대를 이어 길이 전해지고있다.

록족부인과 그의 아들들

먼 옛날 평양에는 발이 사슴의 발과 같이 생겼다고 하여 록족부인이라고 불리우는 한 녀인이 살고있었다.

그런데 그의 두 아들도 어머니를 닮아 발이 사슴의 발과 같았으므로 동네아이들에게 놀림을 받군 하였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아들들에게 동네아이들과 함께 놀지 말고 집뜰안에서 무술놀이나 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아들들은 하루같이 집뜰안에만 박혀있을수 없어 이따금 밖에 나가 놀군 했다.

그러던 어느날 두 아들은 자기들의 발을 두고 놀려대는 지주집아이를 혼내준다고 한번 친것이 그만 죽어버렸다.

이것을 안 록족부인은 아들을 잃은 지주놈이 가만있지 않으리라는것을 타산하고 그날밤으로 아들들을 데리고 멀리 피신하려고 바다가로 나왔다.

바다가로 나온 록족부인은 곧 쪽배에 올라 정처없이 떠났다.

그런데 너무 급히 서둘러 떠나다나니 길량식을 준비해가지고 떠나지 못하였다.

그래서 록족부인은 길량식을 구하기 위해서 어느 조그마한 포구에 쪽배를 매여놓고 두 아들에게 배에서 기다리라고 하고는 마을에 찾아들어갔다.

록족부인이 량식을 구해가지고 포구로 급히 나오니 포구에 매여놓았던 쪽배와 두 아들은 보이지 않았다.

쪽배는 그사이 태풍을 만나 어디론가 밀려갔던것이다.

이렇게 아이들을 잃어버린 록족부인은 할수없이 대성산에 들어와서 사슴을 기르는것을 락으로 삼고 세월을 보내고있었다.

어느덧 부인의 머리에 흰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어느날 외래침략자들이 나라의 지경을 넘어 침입해왔다.

나라에서는 침략군을 막아낼 과업을 을지문덕장군에게 맡기였다.

록족부인은 을지문덕장군을 찾아가 외적이 쳐들어오는 이때에 비록 녀인일지라도 가만 보고만 있을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들을 도와나설 결심을 호소하였다.

침략군을 쳐부실 작전을 펼치던 을지문덕장군은 어느날 적들의 내부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신이 직접 단독으로 적진에 들어갔다. 이때 록족부인은 홀로 적진에 들어가는 을지문덕장군의 신상이 념려되여 남몰래 그뒤를 따라섰다.

을지문덕장군이 적진에 들어가자 적장이 그를 억류하려고 하였다.

적들은 침략을 시작할 때 이미 그 나라 황제로부터 고구려의 명장인 을지문덕장군을 만나기만 하면 붙잡으라는 비밀지시를 받았던것이다.

그러나 정작 을지문덕장군을 마주하고보니 그의 태연자약하고 호방하며 름름한 위풍에 위압을 당한데다가 사리정연한 론리앞에 그를 감히 어쩌지 못하였다.

적장은 마침내 그를 떠나보내고야말았다. 그러나

때늦은 후회를 하며 적들은 많은 군사를 풀어 그를 추격하였다.

참으로 위험한 고비에 이르렀을 때 강가에 배를 대고있던 록족부인에 의하여 을지문덕장군은 구원되였다.

그때 적들속에는 싸움을 잘하기로 이름이 높은 두 형제가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록족장군들이였다.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놀란 록족부인은 늙은 로파로 가장하고 곧 적진에 들어가 두 록족장군을 만났다.

두 록족장군을 만난 록족부인은 아무말없이 먼저 버선을 벗어보이면서 두 록족장군들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였다.

그들도 모두 신발을 벗었는데 두 록족장군의 발도 다 록족부인의 발과 같이 사슴의 발이였다.

그제야 그들은 록족부인이 자기들의 어머니라는것을 알게 되였고 감격적인 상봉을 하였다.

록족부인은 아들들과 헤여진 뒤에 있었던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아들들을 준절히 타일렀다.

《너희들이 내 아들들일진대 곧 고구려의 아들들이 아니냐. 그런데 제 어머니에게 창을 겨누고 제 나라 백성들에게 칼부림을 하려들다니 그런 불효자식이 어디 있으며 그런 역적이 또 어디 있겠느냐!》

어머니가 돌아간 뒤에 두 아들들은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태여난 조국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끄럼과 수치에 가슴을 치며 모대기다가 새벽녘에 어머니를 찾아 고구려진중으로 넘어왔다.

그들은 어머니를 만나 자기 조국을 배반할번 한 죄를 사죄하며 용서를 빌었고 을지문덕장군에게 자기들이 조국앞에 지은 죄를 씻을수 있도록 싸우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하여 록족부인의 아들들인 록족장군들은 침략군을 고구려령토밖으로 내쫓고 승리를 이룩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한다.

오탄

릉라도를 지나 한곬으로 흐르던 대동강물은 대동교 아래쪽에서 양각도에 의하여 두줄기로 갈라지게 된다. 바로 지금의 평양대극장쪽 기슭으로 흐르는 물곬이 오탄이라고 부르는 여울이다.

오탄이라고 하는것은 까마귀여울이라는 뜻이다.

이 여울이 오탄으로 불리우기 시작한것은 임진조국전쟁시기 왜놈들이 평양성으로 쳐들어왔던 그때부터라고 한다.

왜적들은 평양성이 바라보이는 대동강가에까지 쳐들어왔으나 평양성사람들이 왜놈들의 공격을 막기 위하여

대동강의 배들을 모조리 거두어 숨겨놓았기때문에 대동강을 건너올수 없었다.

왜놈들은 하는수없이 강을 건늘수 있는 여울목을 찾아 헤매였다.

그런데 어느곳이나 모두 강물이 말등을 넘고 사람의 키를 넘었다. 아무리 헤매여도 얕은 곳을 찾지 못해 기진해진 적장은 강뚝에 앉아 멍하니 흘러내리는 푸른 대동강물만 내려다보고있었다.

이때였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지고 붉은 저녁노을이 비낀 하늘가에서 갑자기 어디에서 날아왔는지 까마귀떼가 원을 그리며 날아예더니 양각도 웃쪽의 강 한복판에 내려앉는것이였다.

이것을 한동안 무심히 바라보고있던 적장은 벌떡 일어나 눈을 비비며 바라보고 또 바라보다가 무릎을 탁 치며 소리쳤다.

《옳지, 바로 저곳이로구나.》

적장은 물오리도 아니고 기러기도 아닌 까마귀가 물우에 내려 걸어다니는것은 강바닥이 드러나도록 얕은 곳이 아니고서는 그럴수 없다는 리치를 가늠한 모양이였다.

기뻐 어쩔줄 몰라하던 놈은 그 여울로 군사들을 당장 내몰고싶었으나 맞은편 대동강가의 성벽에서 우리 군사

들이 감시하고있기때문에 감히 그러지 못하고 어둠이 깃들기를 기다렸다가 몇놈의 군졸들을 시켜 몰래 건너보게 하였다.

물이 무릎을 더 넘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적장은 평양성을 감쪽같이 점령하려고 우리 군사들이 다 잠든 야밤삼경에 그 여울목으로 군졸들을 내몰았다. 그런 후에 놈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맞은편 강변의 성벽에서 자기 군졸들의 함성소리가 울릴것을 기다리고있었다.

드디여 성벽우에서 하늘땅을 뒤흔드는 소리와 섬광이 번뜩번뜩하였다.

그런데 불꽃이 성벽안으로 날아들어가는것이 아니라 도리여 강복판으로 날아와 떨어졌다.

평양군사들이 강을 건너오는 왜놈들에게 불벼락을 안기는것이였다.

그러자 강을 건느던 왜놈들이 허우적거리며 돌아서기 시작하였다.

이것을 지켜보던 적장은 자기 군사들에게 되돌아서 강을 건느라고 왜가리소리를 지르면서 진영에 남아있던 군졸들마저 강으로 내몰았다.

끝없이 밀려드는 왜놈들에게 된벼락을 안기던 평양성군사들의 화포소리는 날이 밝아올무렵에야 멎었다.

지금쯤은 틀림없이 자기 군사들이 강을 건너 평양

성을 점령하였을것이라고 생각하고있던 적장은 훤히 모습을 드러낸 성벽과 강복판을 바라보다가 소스라치며 놀랐다.

어제와 다름없이 거연히 솟아있는 성벽가에는 사람 한명 얼씬하지 않고 조용했으며 강복판에는 제놈들의 시체가 둥둥 떠돌고있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조화인가. 까마귀가 걸어다니던 그 여울은 어데 갔는가?…》

적장은 뜻밖의 일에 넋을 잃고 멍청하니 강복판을 바라볼뿐이였다.

그도 그럴것이 놈은 대동강에는 썰물과 밀물때가 있다는 단순한 리치를 알수 없었던것이다.

까마귀들이 강바닥에 내려앉은 때는 바로 썰물때였고 밤중에 강을 건너 평양성을 공격할 때는 밀물때였으니 평양성사람들의 드센 반격으로 강을 건느던 왜병들이 맞아죽고 물에 빠져 몰살당하였던것이다.

병력의 과반수를 잃은 적장은 조화로운 대동강에 겁을 먹고 다시 건늘 엄두도 내지 못하였다.

이런 일이 있은 때로부터 이 여울을 까마귀가 왜놈을 홀리여 몰살케 한 곳이라고 해서 오탄이라고 부르게 되였다고 한다.

계월향과 《의렬사》

임진조국전쟁때 왜적들이 평양성을 일시 강점했던 어느날이였다.

평양의 명기 계월향은 평양성의 고달부라는 사람과 의논하여 왜놈가운데서 가장 횡포하고 무지막지한 적장중의 한놈을 죽임으로써 적들의 사기를 꺾고 의병들의 반격을 용이하게 할 방책을 세웠다.

이 계책을 실현하기 위해 계월향은 적장이 자주 지나다니는 련광정옆의 버드나무아래를 거닐며 기회를 기다리고있었다.

때마침 적장이 이곳을 지나가다가 계월향을 발견하고 끌어갔다.

적진에 들어간 계월향은 내부동태를 내탐하고 틈을 노리고있다가 적들이 을밀대에서 술놀이를 벌린 기회를 리용하여 적정을 적은 글쪽지를 연에 달아 성밖에 있는 김응서장군에게 전하였다.

그리고 며칠후 성안에 들어온 김응서장군을 안내하여 적장을 처단해버리였다.

계월향이 김응서장군과 함께 적장의 머리를 가지고 성밖으로 나오려는데 날이 밝아왔다. 이제는 적의 경계를 뚫고 성밖으로 나올수 없었다.

계월향은 김응서장군에게 자기는 후에 따라가겠으니

먼저 성밖으로 나가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추격해오는 왜적들을 딴곳으로 유인하였다.

그는 적들에게 체포되여 끝까지 애국적절개를 지켜 싸우다가 최후를 마치였다.

무사히 성에서 빠져나온 김응서장군은 의병들을 이끌고 적장을 잃은채 혼란속에 빠진 왜적들을 들이쳐 평양성을 해방하였다.

평양사람들은 왜적을 몰아내는데 크게 공헌한 계월향을 추모하여 《의렬사》라는 사당을 세우고 나라를 위해 한목숨 서슴없이 바친 그의 애국충정을 길이길이 전해왔다.

《인경 쳐라》

옛날 평양의 봉이 김선달이 서울거리에 나타나자 그한테서 전날에 골탕을 먹었던 량반들과 벼슬아치들, 장사군들이 그를 보복하기 위해 모여앉았다.

그들은 밤을 새워가며 보복할 묘안을 생각하며 쑥덕공론을 벌렸으나 방도가 서지 않았다.

그래서 량반들이 겨우 의견일치를 보았다는것이 김선달이 법을 어기게 만들어 꼼짝달싹 못하고 처형되도록 하자는것이였다.

그들은 선달이 서울 한복판에 있는 인경을 때아닌

때에 울리게 부추기도록 짜고들었다.

그것은 이 인경이 성문을 여닫거나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그리고 비상시에만 울리도록 되여있었기때문이였다.

량반들은 선달이가 드나드는 술집에서 술판을 벌려놓고 선달이 오기를 초조히 기다렸다.

이런 때 마침 선달이 술집으로 들어섰다.

그러자 그들은 선달의 손을 저저마다 자기곁으로 끌며 반가와하는척 하면서 술을 권하였다.

선달이 얼마간 취하게 되자 그들은 선달을 꼬이기 시작했다.

《선달이, 자네 귀밑머리가 희여가는걸 보니 재주 또한 여간만 늘지 않았겠군 그래.》

《그야 두말할것 있나. 사람의 재주야 옥과 같아 닦을수록 빛나구 지혜도 커지지.》

《어디 한번 늘어난 재주를 보여주게. 기회가 있네. 자네 대낮에 저 서울복판에 있는 인경을 장안이 떠나갈듯 울려보게나.》

《인경을? 그건 안되네.》

《아, 남들이 못하는것을 해야 재주가 아니겠나.》

량반들의 말에 선달은 귀맛이 당기는듯 꾸미면서 그 값을 흥정하였다.

그러자 량반들은 선달이 요구하는대로 돈이면 돈,

기생이면 기생 무엇이든 요구하는대로 준다고 하였다.

그러자 선달은 돈도 기생도 다 싫고 술 한동이에 개 한마리를 내라고 하였다.

그래서 량반들은 술 한동이에 송아지만 한 개 한마리를 선달에게 바쳤다.

선달은 그걸 먹으며 생각을 굴리였다.

김선달은 거나하게 취하자 인경을 치겠다고 일어서 밖으로 나갔다.

량반들은 선달이 인경을 치고 잡혀가 참형을 당하는 꼴을 본다며 뒤따라 나섰다.

선달은 인경이 바라보이는 곳에 이르자《인경 쳐라, 인경 쳐라, 인경 쳐라…》하면서 고아댔다.

그러자 선달의 소리에 화답이나 하듯이 인경이《뎅—뎅—뎅—》울리였고 궁궐안은 물론 사방에서 군사들이 장비를 갖추고 쏟아져나와 장안은 끓기 시작했다.

그러거나말거나 선달은《인경 쳐라, 인경 쳐라》하고 중얼거리였고 량반들은 저들의 묘안대로 되였다고 쾌재를 올렸다.

군사들은 인경이 울린 사연을 알고 선달을 묶어 왕앞에 내세웠다.

《이놈, 너는 어이하여 변고없는 때에 인경을 치라고 했는가?》

《아니 소인은 인경을 치라고 한 일이 없습니다.》

《이놈, 뉘앞이라고 거짓말을 하는고. 〈인경 쳐라〉고 소리치지 않았는가?!》

《아니옵니다. 제 아들놈의 이름이 임경철이온데 오늘 친구들을 만나 술을 먹고나니 9대외독자에 아들 하나 보았던것을 병들어 죽인 설음이 북받쳐 아들이름을 불렀소이다.》

《아니 그럼 〈임경철아〉라고 불렀단 말이냐?》

《그렇소이다.》

그러자 대노했던 왕은 폭소를 터뜨리며 선달을 무죄로 내보내라고 선언하였다.

참형을 당할줄 알고 쾌재를 불렀던 량반들은 선달이 나오는것을 보고 펄썩 자리에 주저앉으며 《묘안》의 어리석음을 한탄했다고 한다.

평양종을 치다

봉이 김선달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져있다.

봉이 김선달이 어느해에 서울에 가서 때아닌 때 인경을 쳐서 서울장안과 대궐안이 들썩 끓게 하고 임금앞에 끌리워갔다가 무사히 놓여나와 평양성으로 돌아온 뒤였다고 한다.

이 소식을 들은 평양성안의 백성들은 모두 통쾌하게 여기며 기뻐하였다.

그러나 량반들은 나라에서 그처럼 엄하게 제정해놓은 법도를 희롱하고서도 무사한 김선달이 앞으로 또 무슨 수를 꾸미여 자기들을 골려주겠는지 몰라 불안해하였다.

그리하여 모여앉기만 하면 어떻게 해야 김선달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군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그들은 대동문옆의 버드나무그늘아래서 술판을 벌려놓고 김선달을 혼쌀내줄 이야기로 분분하다가 마침 그앞을 지나는 김선달을 불러세웠다.

《자네 서울에서 인경을 때아닌 때에 울리고도 무사했다지? 이번엔 저 평양종을 때아닌 때 한번 울리게 해보지 않겠나?》

한 량반이 종지기가 지켜서있는 종각에 매달려있는 종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귀하신분들의 소원이라면야 어떻게 거절할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값은 후해야지요.》

《값이라? 무엇으로 갚아달라나?》

《나같은 팔자에 돈이나 재산을 모으고 살겠습니까. 그저 이 목의 때나 한번 벗기게 술 댓동이만 주십시오.》

《다섯동이? 그거야 못주겠나. 그래 언제 울리게 하겠나?》

《글쎄요. 언제라고 기약하기 어렵군요. 하지만 시간을 내도록 힘써보겠습니다.》

《좋네. 자네 좋을대로 하게나. 우리는 늘 여기에 나와 기다리겠네.》

김선달은 량반들과 이렇게 약속하면서 그들이 부어주는 술을 얼근하게 마시고 자리를 떴다.

선달이 얼마쯤 가자 량반들은 무릎을 치면서 키득거렸다.

《히히히… 저자가 인제야 꼼짝 못하고 우리 손에 잡혔지…》

《저자가 아무리 날뛰는 용수가 있다고 한들 이번 올가미에서야 벗어날수 없지. 흐흐…》

《그렇지 않구. 임금님은 김선달을 몰라서 임경철의 애비로 속히워 놓아주었지만 우리 감사야 속일수 없지. 흐흐…》

《그러고 보면 우리가 결국 신통한 묘안을 낸셈이구만. 하하…》

량반들은 스스로 만족해하면서 자기들이 《묘안》을 낸것을 축하하여 늦도록 술을 마셨다.

그다음날부터 량반들은 이곳에 나와 김선달이 약속을 지키러 오지나 않는가 하고 이제나저제나 기다렸다.

한달이 지나고 두달이 지나도록 김선달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김선달은 평양종을 울리기로 약속한 뒤에 곧 중화로 떠났다.

평양종은 아침저녁 성문을 닫고 여는 시간을 알릴 때와 나라에 사변이 있을 때 울리였으며 또한 임금의 특별지시가 있을 때 울리군 하였다.

중화에 간 김선달은 이곳에서 평안도로 내려오는 어사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석달이 되여 오는 어느날 평안감사한테 임금의 지시문을 가지고오는 어사가 나타났다.

김선달은 어사와 동행하여 오는 한 관리를 통하여 그들이 평양성안으로 들어오는 날자와 시간을 알아가지고 먼저 급히 돌아섰다.

김선달이 나루배를 타고 대동문앞에 내리여 성문으로 들어오려 하는데 량반들은 그때까지 김선달과 한 약속을 잊지 않고 그곳에 나와 기다리고있었다.

《여보게 선달이, 어델 갔다오나?》

《예, 그사이 안녕들하십니까. 저의 한 친구가 앓는다기에 병문안을 갔다가 병이 심해서 여직까지 구완을 하고 오는 길이외다.》

《그런데 자네 친구의 병구완을 하는 동안에 우리와 한 약속을 잊지는 않았겠지?》

《약속이라니요?》

《자네 잊은 모양이구만. 저 종각의 평양종을 치게 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아, 그랬던가요. 그럼 약속대로 해야지요. 그런데 그때 그 값으로 술 다섯동이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던가요?》

《그랬지. 자네 이제야 생각나는가 보군, 그래 언제 치겠나?》

《래일이라도 당장 치게 합시다.》

《그래 치기로 하세나.》

《몇시가 좋겠습니까. 한낮때인 미시(오후 3시)에 치는게 어떻습니까?》

그 시각이 바로 어사가 평양성안으로 들어서는 시간이였다.

이렇게 김선달과 시간까지 약속한 량반들은 그에게 술 다섯동이를 가져다주었다.

술을 받은 김선달은 집으로 돌아와 돈이 없어 술을 마시지 못하고있던 마을로인들과 친구들을 다 불러다 밤늦도록 실컷 마시였다.

그 이튿날 낮 미시가 다가올 때 김선달은 량반들의 독촉에 못이기는체 하며 그들과 함께 대동문옆으로 갔다.

그리고 곁눈으로 대동강건너편 동쪽둔덕을 슬금슬금

바라보다가 어사일행이 나타나는 기미가 보이자 종각으로 오르며 다급히 소리쳤다.

《인경 쳐라!》

《인경 쳐라!》

그러자 조용하던 평양성을 뒤흔들며 평양종소리가 울리였다.

이때 주변에 대기하고있던 아전들이 함부로 인경을 울리게 했다고 김선달을 붙들어가지고 감영으로 끌고갔다. 평양감사가 전날 량반들에게서 김선달이 서울에서 인경을 울리며 임금을 속인 본새로 평양종을 울리려 한다는 통지를 미리 받았던것이다.

감사는 이 기회에 김선달을 법에 걸어 처형하리라 마음먹고 아전들을 미리 대기시키고있었다.

《이제야 날구 뛴다는 김선달이도 어쩔수 없게 됐지. 히히히…》

《그자가 우리가 판 함정에 빠져 꼼짝 못하게 되였지. 흐흐…》

량반들은 골치거리로 여겨오던 김선달이 감영으로 끌려가자 깨고소해하였다.

감사는 김선달이 감영안으로 끌리워 들어오자 노기등등하여 소리쳤다.

《이놈, 네놈은 어찌하여 때아닌 때 종을 울리게 하여

법도를 어기고 성안을 소란하게 하느냐.》

《때아닌 때라니요? 어사께서 오시기에 종을 쳐라 했나이다.》

《뭐, 어사가? 하하하… 이놈아, 거짓말 말아. 네놈이 술 다섯동이에 구미가 돌아 내기를 걸고 종을 치게 한것을 모르는줄 아느냐. 나는 비록 이런 깊숙한 관가에 들어앉았지만 관가밖에서 벌어지는 일과 말을 다 보고 듣는단 말이다. 네놈은 비록 임금의 손에선 벗어났지만 내 손에서는 릉지처참을 면하지 못할줄 알거라.》

《감사나리의 눈귀가 밝은지 백성의 눈귀가 밝은지 판명되여야 릉지처참을 할게 아니오이까.》

《뭐, 뭐라구?》

바로 이때였다.

한 관리가 헐레벌떡거리며 쓰러질듯 달려들어와 감사앞에 엎드리며 소리쳤다.

《큰일났소이다. 지금 … 어사가 대동문으로 들어서면서 왜 감사가 마중도 안나오는가고 야단이올시다.》

《뭐라구? 어사가?》

이때 어사일행을 옹위해오는 군사들의 《물러께라, 치여께라.》 하는 소리가 감영안에까지 울려왔다.

이 소리에 감사는 기가 질려 어쩔줄을 몰라하였다.

《아이쿠… 이게 무슨 변인가?》

감사를 비롯한 감영의 관리들은 어찌할바를 몰라 야단법석하였으나 김선달은 태연히 일어나 감사를 향하여 훈시조로 말하였다.

《이번 일이 터진것은 감사나리의 눈과 귀가 이 백성의 눈과 귀보다 밝지 못한탓인가 보나이다.》

그리고는 유유히 감영밖으로 걸어나왔다고 한다.

대동강물을 팔다

옛날 평안도의 어느 벌방에 살고있던 한 부자가 엽전을 가득 넣은 큰 돈자루를 하늘소등에 싣고 평양성으로 올라왔다.

시골에서 농부들의 등살을 긁어 돈을 모아오던 그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되여보려는 꿈을 안고 장사할 길을 찾아 평양성안으로 들어온것이였다.

부자는 평양성안에 들어온 첫날부터 밑천을 적게 들이고 몇갑절의 리익을 볼수 있는 장사감이 어데 없을가 하고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녔다.

촌부자의 이런 꼴을 본 평양성사람들은 모두 그를 아니꼽게 여겼다.

성안사람들이 촌부자의 출현을 달갑지 않게 여기고있다는것을 알게 된 봉이 김선달은 어느 하루 장거리로 나갔다.

그리고는 엽전 한자루를 꾸어가지고 대동문부근에

있는 집들을 찾아다니며 엽전 한잎씩 나누어주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 엽전을 가지고있다가 래일 아침 대동강에서 물을 길어올 때에 나에게 도로 주십시오.》

그들은 김선달이 또 어떤 린색한 사람을 골려주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선뜻 응해나섰다.

그다음날 아침이였다.

촌에서 올라온 부자는 아침 일찌기 대동강가로 산보를 나왔다.

부자는 해솟는 대동강의 아침전경을 바라보면서 대동문앞을 지나다가 돈자루를 벌리고 앉아있는 김선달을 보고 두눈이 휘둥그래졌다.

수많은 성안사람들이 대동강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대동문으로 들어오면서 모두 성문어귀에 앉아있는 김선달의 자루에다 돈을 던져넣는것이였다.

잠간사이에 자루가 불룩하게 돈이 차오르는것이 보이였다.

돈이라면 오금을 못쓰는 부자는 이 광경을 보고 놀랐다.

(저런 돈벌이야말로 돈소나기를 맞을 돈줄이 아닌가. 대동강물은 사시장철 저절로 흘러내리는것이요, 성안의 사람들은 누구나 물을 마시지 않고서는 한시도

살아갈수 없으니 참말로 저것이야말로 밑천을 들이지 않고도 강물처럼 돈이 쏟아질 돈벌이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자의 헤벌린 입귀에서 침이 두줄로 흘러내리였다.

불어나는 김선달의 돈자루를 한동안 바라보고있던 부자는 선달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여보시오, 이 대동강을 나에게 팔지 않겠소?》

이때를 기다리고있던 김선달이지만 처음에는 외지에서 온 사람이 무슨 희떠운 소리를 하느냐는듯이 안된다고 딱 잘라매였다.

그러면서 이 대동강은 대대로 내려오는 집안의 보물이고 여기에서 나오는 돈에 백을 헤아리는 가족친척들의 명줄이 달려있는데 될법이나 한 일인가고 거절하였다.

그러자 더욱 등이 달아오른 부자는 김선달에게 바싹 다가들면서 부르는대로 값을 후하게 치를테니 팔라고 졸라대였다.

나중엔 자기가 평양에 가지고온 돈을 몽땅 줄테니 팔라고 하였다.

흥정으로 한낮을 끌다가 김선달은 부자의 간청에 이기지 못하는척 하면서 그럼 가지고온 돈을 자루채 내놓고 대동강을 사라고 하였다.

큰 돈자루를 하늘소등에 실어다 김선달에게 바치고

대동강을 산 부자는 너무 기뻐 하늘에라도 오른듯 한 마음으로 덩실덩실 춤까지 추었다.

벼락부자가 될 들뜬 생각으로 밤을 새운 부자는 그 다음날 자루가 아니라 큰 궤짝을 짜가지고 날이 밝기 전부터 대동문어귀에 나가 앉았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

사람들은 어제와 다름없이 물밀듯이 대동강물을 길어가지고 대동문을 거쳐 성안으로 들어오고있었으나 자기 궤짝에 돈을 던져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는 성안사람들이 아직 자기가 대동강을 산 사람이라는것을 몰라서 그러지 않는가 해서 소리쳤다.

《여보시오, 돈은 이 궤짝에 던지고 가시오.》

그러나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나갔다.

화가 치민 부자는 물을 길어가는 사람들을 막아나서서 붙들고 소리쳤다.

《이 사람들아, 이젠 내가 이 대동강의 주인인데 물을 공짜로 길어가는 법이 어데 있나?》

부자에게 잡힌 사람들은 희떠운 사람을 다 보았다고 어리둥절해하였다.

《주인이라니요?》

《그것도 아직 모르는가. 내가 어제 이 대동강을 샀단 말이다. 그러니 인젠 나에게 물값을 내고 가란 말이요.》

《아니, 별 량반 다 있네. 이 대동강의 주인이야 우리 성안사람들인데 언제 우리한테서 대동강물을 샀으며 조상대대로 너나없이 길어먹는 물에 값이라니 웬 말이요?》

이 말에 부자는 발을 구르면서 고아댔다.

《누구를 놀리자고 드느냐?! 그래 어제 너희들은 물값을 내지 않고 갔단 말이냐? 자루에 던지고 간 돈은 그래 물값이 아니고 뭣이였느냐?》

그때에야 김선달이 이 부자를 골려주었다는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모두 허리를 붙안고 웃음을 터뜨리였다.

평양성의 김선달에게 속았다는것을 알게 된 부자는 억이 막혀 풀썩 주저앉는다는것이 큰 궤짝턱에 걸리여 뒤로 벌렁 자빠지면서 통안에 거꾸로 박히여 두다리만 하늘로 솟구고 버둥거렸다.

이리하여 더 큰 부자가 되여보자고 꿈꾸며 평양성에 기여들었던 평안도부자는 봉이 김선달과 성안사람들에 의하여 골탕을 먹고 쫓겨가서 다시는 나타나지 못하였다고 한다.

장기시로 유명해진 소백주

소백주는 평양출신으로서 인물이 절색일뿐아니라 령리하고 시재주도 뛰여난 녀인이였다.

17세기초 광해군(1609~1623)때 박엽이란 사람이

평안감사로 부임되였다.

당시 박엽으로 말하면 임금과 동서지간으로서 그 세력이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을만큼 당당하였고 사람됨이 포악스럽고 무엇이든 제 마음대로 한다는 인물이였다.

사람들의 예상대로 박엽은 자못 엄엄한 위세로 평양에 당도하였다.

관내의 벼슬아치들이 새 사또의 요란한 행차를 성대히 맞이하였다.

이때 평양의 유명한 관기로 소문난 소백주는 거들먹거리며 으시댈 감사의 꼴이 보기 싫어 일체 문밖출입을 금하고있었다.

무릇 조정에서 내려오는 세도있는 량반들이란 겉으로는 위엄을 돋구며 점잖은체 해도 녀자앞에서는 오금을 못쓰는 족속들이라는것을 잘 알고있는지라 새 감사도 역시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되였던것이다.

아니나다를가 박엽은 부임한 첫날 저녁부터 기생들을 불러들였다.

어느새 알았는지 첫날은 평양의 미인 소백주와 함께 있겠다고 분부를 내렸다는 전갈이 들이닥치였다.

관가에 매인 몸이니 안갈수도 없는지라 소백주는 소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아전을 따라 감사가 있다는 련광정으로 향하였다.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경치좋은 대동강반에 한척의 배마냥 솟아오른 련광정에서는 장기놀이가 한창이였다.

풍류의 기질도 어지간히 있는 박엽은 놀음놀이를 무척 좋아하였다.

소백주가 나타나자 박엽은 일부러 틀을 차리며 헛기침을 하였다.

방금 있은 기생점고에 유독 소백주만이 빠졌음을 안 박엽은 괘씸한 생각 절반, 호기심 절반에 눈을 쪼프리고 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올리훑고 내리훑으면서 그의 마음을 떠보았다.

생각같아서는 호령질로 무릎을 꿇게 하고싶었으나 보잘것 없는 녀인앞에서 소리를 친다는것이 감사의 체면에 어울리지 않거니와 이런 류형의 녀자들은 그 도고함을 꺾어버리는것이 상책이라는것을 어지간히 알고있는 박엽은 곧 얼굴에 의미있는 미소를 띠고 말을 건네였다.

《이리 올라오너라. 너의 그 도고함이 오히려 내 마음을 사로잡는구나.

기생점고에 빠진 너의 심정을 내 알고도 남음이 있으니 이렇게 하기로 하자.

네 시재주가 높다고 하던데 내가 지금 두고있는 이 장기의 말쪽을 가지고 즉석에서 당장 시 한수를 지으면 너는 마음 편한대로 할것이나 그렇게 못할 때에는 오늘

저녁 수청을 들어야 한다. 그래 어떠냐?》

박엽은 다 먹어놓은 떡이라는듯이 소백주를 넌지시 바라보았다.

소백주는 눈길을 들어 거만한 감사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더니 곧 그자리에서 일어나 거침없이 시 한수를 읊었다.

상공을 뵈온 후에
사사를 믿자오니
졸직한 마음에
병들가 념려되니
이리마 저리차 하고
백년동포하리라

이 시조에는 수청들것을 강요하는 새 감사의 음흉한 기도를 은근히 물리치면서도 장기의 쪽이름들이 모두 들어가도록 한 기발하고 재치있는 시적기교가 흘러넘치고있었다.

시의 내용을 그대로 해석하면 상공(감사)을 뵈온 후에 모든 일을 믿으려 하였으나 졸렬하고 고지식한 마음을 가진 이 녀인에게는 그것이 병으로 될가 념려되니 이리하마 저리하자 하면서 백년을 함께 살자는 뜻이다.

또한 시의 음들은 장기쪽을 나타내였는바 상공은

감사를 가리키는 동시에 장기의 상을 가리키며 사사는 모든 일 즉 만사라는 뜻이면서도 동시에 장기의 사이고 졸직은 졸렬하고 고지식하다는 뜻인 동시에 장기의 졸을 말하며 병들다는 장기의 병과 맞먹고 이리마 저리차는 이리하자 저리하자를 줄여서 한 말이지만 실상은 이리마의 마는 말이고 저리차의 차는 차를 가리킨것이다. 그리고 백년동포는 백년동안 함께 안고 살자는 뜻이면서도 동시에 장기의 포를 가리킨것이다.

즉 장기의 상, 사, 졸, 병, 말, 차, 포가 빠짐없이 들어간 셈이였다.

《이젠 가도 되겠지요?》

박엽이 어안이 벙벙해있는 동안 소백주는 이런 말을 남기고 조용히 돌아섰다.

박엽은 평양은 땅좋고 물이 맑으며 산이 좋고 경치만 좋은줄 알았더니 평양에서 사는 사람 또한 비길데없이 뛰여남을 감탄하면서 기생에게 창피당한 자기를 누가 볼세라 장기판을 급히 거두어가지고 련광정을 내리였다.

이렇게 평양의 미인이며 시인인 소백주는 장기시 한수로 감사를 조롱하여 세상에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평양에서 울고 간 시인

김황원(1045－1117년)은 고려때의 이름난 시인이였다. 그는 우리 나라 명승지를 유람하면서 아름다운 자연풍경에 대한 시를 많이 남기였다.

어느해 여름 평양의 아름다운 산천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모란봉 부벽루에 오른 그는 청류벽과 평양성을 감돌아 흐르는 맑고 푸른 대동강물, 연한 안개속에 가없이 펼쳐진 동대원을 바라보다가 절경에 심취되여 한동안 넋을 잃고 서있기만 하였다.

《아, 세상에 이런 절경도 있단 말인가!》 그는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이름난 시인이 평양에 왔다는 소문을 들은 평양의 관리들과 선비들이 김황원을 만나자고 부벽루로 우르르 몰려들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시인에게 평양의 절경을 노래한 명문장을 하나 남겨달라고 청하였다.

김황원은 부벽루의 기둥과 천정에 어지럽게 걸려있는 글들을 훑어보다가 얼굴을 찡그리며 개탄하였다.

그것들은 어느 하나도 평양풍경을 방불하게 그리지 못하였기때문이였다.

김황원은 찾아온 관리들과 선비들에게 자기가 평양의 절경에 대한 시를 남길터이니 저런 어지러운 글들은 모조리 떼버리라고 하였다.

이윽토록 부벽루기둥에 한팔로 의지하고 시상을 고르던 시인은 마침내 붓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드디여 그는 여러 사람들이 빽빽이 둘러서서 내려다보는 가운데 붓을 쥐고 흔들었다.

長城一面溶溶水
大野東頭點點山

길게 뻗은 성벽의 한켠엔 강물이 늠실늠실
아득한 벌판 동쪽켠엔 산봉우리들이 우뚝우뚝

이렇게 단숨에 쓰고난 시인은 더 붓을 놀리지 못하였다. 그는 붓을 쥔채로 부벽루아래를 한참 내려보다가 다시 비단폭우에 글을 쓰려 했으나 붓은 더욱 굳어져만 갔다.

부벽루우에서 내려다보이는 대동강의 맑고 푸른 물을 보느라면 마치 바다우에 솟구쳐올라온 《룡궁》의 정자에 서있는듯싶었고 멀리 안개에 묻힌 동대원벌을 바라보느라면 구름우에 떠있는 《천궁》의 란간에 서있는듯 하였다.

보면 볼수록 새로와지는 풍치를 몇련의 시구로는 도저히 옮길수 없었던것이다.

김황원이 두 구의 시를 써놓고 붓방아를 찧기 시작한지도 오래였고 시간이 갈수록 시인의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만이 비단폭을 적시게 되자 모여섰던 사람들이 한둘씩 조용히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해가 저물고 황혼이 비끼는 부벽루에 홀로 앉아있게 된 시인은 그만 붓을 꺾어버리고 마루바닥을 치며 통곡하였다.

《아, 평양의 절경을 그려내기에는 내 재능이 모자라누나!》

시인은 이렇게 한탄하며 밤늦게까지 울다가 그곳을 떠나갔다.

그후 평양사람들은 그가 쓰다만 두 구의 시를 부벽루의 기둥에 걸어 전해오다가 오늘은 련광정의 기둥에다 옮겨놓았다. 그것은 쓰다만 두구의 시가 잘되여서만이 아니라 이름난 시인도 시어가 모자라 못다 노래한 평양의 아름다움을 길이길이 자랑하기 위한 념원에서였다.

대동강의 시인

정지상은 평양태생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시적재능이 남달리 뛰여났다. 그는 3살때 빨래하러 나가는 어머니의 등에 업히여 대동강에 날아예는 갈매기를 보고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훨훨 날아예는 흰갈매기
머리는 하늘 우러러 노래부르네
하얀 털 물우에 띄워놓고
붉은 발로 맑은 물을 밟는구나

정지상이 남다른 시적재능을 가지고 자라 세상에 유명해지자 당시 문호로 자처하던 김부식은 그를 은근히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정지상에 대한 김부식의 시기심이 더 심하게 된것은 그들이 절간에 놀러갔다가 서로 시짓기를 한 후부터였다.

그때 정지상은 이런 시구를 읊었다.

절간에서 념불을 다 마치고나니
하늘이 유리처럼 맑구나

김부식은 이 시구를 보고 감탄하면서 자기에게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정지상은 머리를 저었다.

그러자 김부식은 자기보다 재능이 뛰여난 정지상을 없애버릴 간악한 마음까지 먹게 되였다.

김부식은 생각했던대로 그후에 평양에서 일어났던 묘청반란을 계기로 정지상에게 묘청과 내통했다는 트집을 잡아 그를 처형하게 했던것이다.

정지상을 죽인 뒤 김부식은 이제는 이 세상에서 자기를 압도할 시인이 없다고 생각하며 우쭐댔다.

그러다 어느 하루 시 한구절을 지어놓고 천하명구라고 자랑하였다.

천오리 버들가지 푸르고
만점의 복숭아꽃 붉고나

이날밤 김부식은 제흥에 겨워 시구를 읊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 죽은 정지상이 생시처럼 나타나 김부식의 뺨을 치며 꾸짖었다.

《천오리인지 만점인지 네가 세여보았느냐? 이따위도 시라고 짓는단 말이냐?》

정지상은 김부식에게 얼굴도 들지 못하게 욕설을 퍼붓고는 붓을 들어 시구를 고쳐주었다.

오리오리 버들가지 푸르고
송이송이 복숭아꽃 붉고나

고친 시를 본 김부식은 얼굴이 뜨거워 아무 말도 못하였다.

이후 전하는 말에 의하면 김부식은 자기보다 뛰여난 훌륭한 시인을 죽인 불안과 공포로 하여 제명을 다 살지 못하고 뒤간에서 갑자기 죽었다고 한다.

왕성탄을 지킨 박다지

박다지의 이름은 박억이다. 억이 지혜가 많다고 하여 다지라는 별명이 붙게 되였다고 한다.

박다지는 임진조국전쟁때 평양성을 지켜 싸운 평양의 8장수들중의 한사람이였다. 그의 이름은 지혜로써 많은 공적을 이룩한것으로 하여 더욱 유명해졌다.

왕성탄을 지킨 이야기도 그중의 하나이다.

1592년 6월 대동강 건너편에 왜적들이 기여들자 평양성의 군사와 의병들은 놈들의 공격을 막기 위하여 우선 적들이 건늘수 있는 대동강의 여울목을 지키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평양의 8장수들은 여러 여울목가운데서 왕성탄을 지키게 되였다.

장수들은 적과 싸우기 위한 준비가 채 갖추어지지 못한 조건에서 박다지에게 의병부대를 데리고 먼저 가서 여울목에 진을 치도록 하였다. 고춘명, 김자택, 현수백 등 8장수들은 성안에서 화살과 창, 칼을 준비해가지고 박다지의 뒤를 따라갔다.

그런데 어찌된 일이랴.

먼저 간 박다지는 왕성탄의 여울앞에 진을 치는것이 아니라 그아래 강물이 깊은 곳에다 기발을 꽂고 훙장을 만들고있었다.

《여보게. 박형, 대체 어떻게 하자는거요?》

《왜? 진을 잘못치고있는것 같은가?》

《잘못치다뿐이요? 우리가 지켜야 할 왕성탄은 여기가 아니라 저 웃쪽이란 말이요.》

《아니 평양사람인 내가 왕성탄이 어딘질 모를가봐?》

《그럼 왜 여기다 진을 치는거요?》

《왕성탄을 지키자구》

《예? 왕성탄을 지키려면 왕성탄앞에 진을 펴야지 놈들이 건너오지도 않는 이 깊은 곳에 진을 칠 필요가 있소?》

성미가 날카로워 누구앞에서나 할 말을 하고야만다고 당돌이라는 별명이 붙은 현수백이 박다지에게 성급히 따졌다.

그러나 박다지는 평시에 롱을 잘하던 그 배포유한 태도로 태연히 대답했다.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것처럼 적들도 그렇게 생각하겠기에 여기에 진을 치는거야.》

《예? 적들도 같이 생각한다구요?》

이에 대한 박다지의 대답이 있을 사이도 없이 왜적이 나타났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울렸다.

과연 대동강 맞은편 동뚝아래쪽에서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수백을 헤아리는 왜놈들이 몰려올라오고있었다.

평양성의 장수들은 왕성탄으로 진을 옮기지 못한채 박다지가 친 진에서 적과 싸울 태세를 갖추지 않을수 없었다.

그들은 왜놈들이 자기들의 앞을 지나 왕성탄쪽으로 오르

지 않겠는가 하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있었다.

다행히도 놈들은 그들의 맞은편에 이르러서는 더 올라가지 않고 기발이 나붓기는 이쪽진을 향하여 조총을 쏘아댔다.

이에 대응하여 의병들은 박다지의 지휘에 따라 놈들을 향해 화살을 날리였다. 놈들도 악악 소리를 치면서 조총을 더욱 요란하게 쏘아댔다.

그러자 박다지는 화살을 좀 적게 날리면서 강을 넘기지 말고 강복판쯤에 떨어지게 하라고 하였다. 마치 놈들의 사격에 겁을 먹고 기세가 죽어가는듯이 보이자는것이다.

이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는듯 왜놈들은 일제히 강물에 뛰여들더니 악을 쓰고 헤염쳐왔다.

놈들의 무리가 거의다 깊은 강물에 들어섰을 때 박다지는 다시 전체 의병들에게 일제히 왜놈들에게 사격을 하게 하였다.

강물에 둥둥 떠서 오던 왜놈들은 비발처럼 떨어지는 화살을 피할길 없어 한놈한놈 가라앉기 시작하였다. 제놈들이 강복판에도 이르기 전에 모두 죽어 강물속에 가라앉자 뒤따르던 놈들은 도망쳐 달아났다.

그러나 그것은 몇놈 되지 않았다.

드디여 전투는 의병들의 승리로 끝났다.

의병들은 승리의 함성을 높이 울리였다.

박다지가 정신없이 만세를 부르는 현수백의 어깨를 치며 말하였다.

《자 보았지? 놈들은 자기처럼 우리가 꼭 여울목을 지키는줄로만 알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면야 어찌 지키지 않는 여울목을 두고 우리가 지키는 깊은 물목으로 뛰여들었겠나? 하하하 …》

《그러니 이번에도 왜놈들이 박다지의 지혜에 걸려들었군요. 하하하…》

의병들과 장수들은 왜놈들을 골려 녹인 박다지의 지혜에 감탄을 금치 못해 통쾌하게 웃었다.

련광정의 현판 《천하제일강산》

련광정은 평양시 중구역 대동문동 대동강가 덕바위우에 있는 루정이다.

련광정은 6세기 중엽 고구려가 수도 평양성을 쌓으면서 내성의 동쪽장대로 처음 세웠다가 1111년에 와서 고려가 평양을 서경으로 건설하면서 여기에 루정을 다시 세우고 그 이름을 산수정이라고 하였다. 그후 산수정을 련광정이라고 고쳐부르게 되면서 고착되게 되였다.

련광정은 전망경치가 좋아 예로부터 관서8경의 하나로 꼽았으며 제일루대, 만화루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웠다.

지금의 련광정건물은 1670년에 다시 지은것이다.

련광정에는 임진조국전쟁시기 김응서장군이 애국녀성 계월향과 합심하여 당시 왜적의 목을 베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있다.

풍치 아름다운 대동강기슭에 시원하게 자리잡은 련광정에 오르면 천정들보에는 한자로 《천하제일강산》이라고 쓴 큰 현판이 걸려있다.

《천하제일강산》이라는 현판이 련광정의 들보에 걸리게 된데는 이런 사연이 있었다.

16세기 평양에 왔던 명나라 사신인 주지번이 어느날 련광정에 올랐다.

련광정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경치에 심취된 그는 그후부터 늘 이곳에 오군 하였다.

드디여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된 날이 되였다. 사신은 장거리에 가서 목공에게 돈을 내면서 액자를 하나 잘 만들어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 액자에 큰 글씨로 《천하제일강산》이라는 글을 정성들여 썼다.

사신은 그것을 가지고 련광정에 올라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세상에 태여나서 오늘까지 머리에 흰서리가 내리도록 수많은 고장을 찾아다녀보았지만 이처럼 아름다운 경치를 처음 봅니다. 이런 곳을 어찌 〈천하제일강산〉

이라 부르지 않을수 있겠습니까. 나의 간절한 소원이니 이 액자를 정각에 걸어주기 바랍니다.》

이리하여《천하제일강산》이라는 액자가 련광정 들보에 걸리게 되였다.

그후 어느해 여름이였다.

불의에 우리 나라에 침입해왔던 침략자의 우두머리가 평양에 기여들어 련광정에 오른 일이 있었다.

그놈은《천하제일강산》이라는 현판을 보고 소리쳤다.

《저 현판을 당장 떼버리라. 이 세상 한쪽끝에 있는 작은 나라에 어찌 천하에 제일가는 강산이 있다고 할수 있단 말인가?》

그놈은 자기 군졸들이 현판을 떼내는것을 보고서야 련광정에 올라 사방을 휘둘러보았다.

그러다 저도모르게 아름다운 경치에 넋을 잃고 연신 감탄하였다.

놈은 기가 꺾인 목소리로 떼여내린 현판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긴 칼로《천하제일강산》이라는 현판에서《천하》라는 두 글자를 내리쳐 떼낸 놈은《제일강산》이라는 글자만이 남은 현판을 제자리에 다시 걸어놓으라고 하였다.

군졸들이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며 주저하자 두목놈이 하는 말이《〈천하〉라는 말에는 비위가 거슬리지

만 이곳이 제일강산이라는것은 부인할수 없구나.》라고 하였다.

그제야 군졸들도 동감을 표시하며 곧《제일강산》이라는 글자만 남은 현판을 제자리에 걸어놓았다.

침략자들을 몰아낸 뒤 평양사람들은 아쉽기는 하지만《천하》라는 두 글자가 없어진 현판을 그대로 놔두었다. 비록 《천하》라는 두 글자는 떨어져나갔으나 우리나라를 적대시하던 침략자들까지도 평양의 절경을 부인하지 못했다는 그 이야기가 평양의 자랑거리로 될만하다고 여겼기때문이다.

하지만 그때로부터 오랜 세월 사람들은 련광정에 오를 때마다《제일강산》이라는 현판을 보면서 옛날에 없어진《천하》라는 글자에 대한 아쉬운감을 금할수 없어하였다. 오늘 시대에 이르러 참으로 깊은 의미가 담겨진 《천하》라는 두 글자가 비로소 되살려졌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련광정의 현판에서 오래전에 없어졌던《천하》를 다시 써넣도록 하시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련광정의 들보에는 《제일강산》이라는 현판대신에《천하제일강산》이라는 현판이 다시 걸리게 되였다.

옛 사람들이 평양절경을 찬미하여 이곳에 현판을

내건 때로부터 오랜 세월 전해져온《천하제일강산》이라는 참뜻은 천지개벽한 오늘의 대동강반의 절경에 의하여 더욱 빛나고있다.

릉라도에서 있은 무과과거시험

15세기 중엽 어느해 가을 세조왕이 평양에 왔다가 릉라도에서 무과과거시험을 벌리였다.

이것은 평양의 무사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기쁨이였다.

그것은 여지껏 무과과거시험은 의례히 대궐안에서 진행되였고 더우기 주로 남도출신들을 위주로 참가시켰기때문이였다.

이 시험이 있는것을 누구보다 기뻐한것은 대성산 무술터의 박도사였다. 누구도 견줄수 없는 무예를 지니고 수십년간 수많은 무사들을 키워낸 평양의 박도사는 이번 기회에 자신이 키운 무사들을 무과과거시험에 내보내여 장원급제시킴으로써 스승의 보람을 시위하고저 하였던것이다.

무과과거시험이 진행되는 날이 왔다.

박도사는 무사들을 데리고 릉라도에 갔다.

릉라도는 벌써 무사들과 구경군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있었다.

그런데 흥분으로 끓던 박도사는 그만 실망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것은 왕이 시험을 선포하면서 평안도출신들만 시험에 응시하며 만약 다른 지방사람들이 응시하는 경우에는 참형에 처할것이라고 하였기때문이였다.

그래서 무예가 제일 뛰여난 함경도출신의 류가성을 가진 제자가 과거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였다.

과거시험이 시작되자 류무사는 땅에 칼을 박고 통곡하였고 박도사 역시 답답한 가슴만 두드리였다.

한조가 끝나고 두번째 조가 준비할 때였다.

《도사님, 저는 더 보고만 있을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을 남긴 류무사는 죽기를 각오하고 말을 타고 시험에 응시한 무사들속에 뛰여들었다.

뛰여난 말타기솜씨와 칼쓰기, 활쏘기에서 두각을 나타낸 류무사가 만점을 맞고 제일 선참으로 들어섰다.

응시자들의 급제를 발표할 때 류무사는 장원급제로 왕앞에 불리워나갔다.

박도사의 마음은 조마조마하였다. 류무사가 함경도출신임을 알게 되면 참형을 당할것이였기때문이였다.

왕은 류무사에게 가족래력과 출신도를 따져묻다가 그가 함경도출신이라고 말하자 대노하였다.

《네 이놈, 평안도밖의 출신이 응시할 경우에는 참형에 처한다는것을 몰랐느냐?》

《알고있었나이다.》

《알고도 응시했단 말이냐?!》

《저는 비록 함경도출신이오나 평양 대성산무술터에서 무사로 되였사오니 오늘 전하께서 평양성의 무술을 보신다는데 제 어찌 한목숨 아껴 나서지 않을수 있겠나이까!》

《그래 참형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느냐?》

《저를 가르치신 박도사께서는 무사가 되려면 무술과 전법보다도 나라를 위해 한목숨 바칠줄 아는 희생성을 지녀야 한다고 가르치셨나이다.》

《희생성?》

《하기에 소인은 이제 죽는다 해도 한이 없나이다.》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류무사의 두어깨를 잡아일으키며 《내 오늘에야 진짜 무사를 보는구나!》 하고 감탄하고나서 그를 장원급제로 등록케 하고 표창하였으며 무관으로 승급시키였다.

무과시험이 있은 후 대성산무술터 박도사의 집에 수십명의 군사에 옹위된 나라의 대신이 가마를 타고와 도사를 서울훈련도감으로 임명한다는 왕의 칙서를 전하였다. 허나 박도사는 그를 마다하고 계속 대성산에서 수많은 무사들을 키워냈다고 한다.

공후인을 창작한 녀류음악가 려옥

고조선시기 평양의 대동강나루터에서 남편 곽리자고와 사이좋게 살고있던 려옥은 서정가요《공후인》을 창작하여 13줄의 소공후로 연주한 민간의 재능있는 녀류음악가이다.

그는 가난하고 무권리한 배사공의 안해였지만 빈궁한 가정생활속에서도 음악을 몹시 사랑하였으며 항상 공후라는 악기를 타는것을 락으로 삼았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려옥은 이날도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공후를 타면서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였다.

마침내 이른새벽에 대동강나루터에 나가 하루종일 일하고 돌아온 남편이 다음과 같은 비극적인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이른새벽에 내가 노를 저어 나루를 건느고있을 때였소. 머리가 흰 백수광부(白首狂夫)가 머리를 풀어헤친채 손에 병을 들고 사품치는 강물에 뛰여들어 강을 건느기 시작하였소. 그의 안해가 남편을 뒤쫓아와 부르면서 강을 건느지 말라고 만류하였으나 남편은 듣지 않고 물에 빠져 죽었소. 그러자 그의 안해는 공후를 부둥켜안고 타면서 〈공무도하가〉를 지어불렀는데 그 노래소리가 심히 슬프고 애처로왔소. 곡을 마치자 자기도

강물에 몸을 던져 죽고말았소.》

남편으로부터 대동강물에 몸을 던져 죽은 백수광부의 참상과 그 안해가 공후를 타면서 지어 부른《공무도하가》의 노래소리를 전해들은 려옥은 이날 강물에 빠져 죽은 그들부부를 불쌍히 여기면서 자기도 역시 공후를 부둥켜안고 그 노래소리를 재형상하여 《공후인》을 창작하였다.

이렇게 되여 려옥이 지은 서정가요《공후인》이 세상에 나오게 되였다. 그가 공후를 타면서 지어 부른 《공후인》은 듣는 사람마다 눈물없이는 들을수 없으리만치 슬프고도 애절한 곡조로 된 노래였다고 한다.

그렇지만《공후인》의 곡은 전해오지 않아 잘 알수 없고 다만 한시로 번역된 가사만이 지금까지 전해오고있다.

강 건느지 말랬는데
왜 굳이 건느셨소
물에 빠져죽었으니
님아, 이 일 어이하오

공후인전파의 선구자 려용

려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이웃에 살고있던 려용은 자주 려옥을 찾아가 그에게서 《공후인》을 배워 재능있는 음악가로 자라났다.

그는 어려서부터 소공후를 좀 탈줄 알았는데 려옥으로부터 《공후인》을 전수받는 과정을 통하여 일약 공후명수로, 가수로 되였다고 한다.

당시 려용에 의해 전해진《공후인》은 민간의 음악가들에 의하여 전국에 급속히 전파되였다.

그것은 이 노래가 고대노예소유자사회에서 억압받고 천대받던 사람들의 불행한 처지와 비극적운명을 그대로 담고있었을뿐아니라 남의 불행과 슬픔을 자신의 불행과 슬픔으로 여기면서 무한한 동정을 표시하고있었던 고조선사람들의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진실하게 반영하고있기때문이였다.

그리하여 《공후인》은 당시 고조선사람들은 물론 고대중국에도 전파되여 널리 불리워지게 되였다.

이렇게 려용은《공후인》전파의 선구자적역할을 수행한 녀류음악가였다.

서도잡가의 시조로 알려진 허득선

허득선은 조선봉건왕조 말엽에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서도지방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서도명창이며 서도잡가의 시조로 민족음악사에 알려진 재능있는 민간음악가이다.

그는 평양의 경림동에서 태여나 일찌기 아버지를 여의고 소경인 홀어머니의 슬하에서 고생스럽게 자라면서

노래부르는 가창법과 형상력을 터득하여 익살과 해학으로 유명한 명창으로 되였다고 한다.

그는 당시 서도지방(평안도, 황해도)에서 많이 불리워지고있던 선소리인 《놀량사거리》를 잘 불러 이름을 떨치였다.

특히 그는 도시서민층에 생활적바탕을 두고 발전하고있던 가사를 민요적가락이 짙은 수법으로 부름으로써 서도잡가의 발생발전에 이바지하였다.

그는 이따금 서울에 가서 가창활동을 벌려 서도잡가를 퍼뜨렸는데 당시 명창들속에서는 그가 서도잡가의 시조로 알려지게 되였다.

그가 잘 부른 서도잡가로는《배따라기》,《공명가》,《초한가》,《관산융마》,《추풍감별곡》,《역음수심가》 등이였다.

허득선이 잘 부르던 이러한 서도잡가들은 당시 룡강지방에서 서도소리명창으로 활약하던 계장화의 제자인 김관준과 그의 제자들인 김칠성, 김옥선, 김종조, 최순경 등에 의하여 전승되였다.

서도명창 허득선은 서도잡가의 시조로 알려졌을뿐아니라 뛰여난 가창과 익살로도 이름을 남겼다.

그는 소리의 내용에 알맞는 손짓, 몸짓에 곱새춤까지도 재치있게 추어 청중들의 인기를 끌군 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예술활동과정에는 여러가지 흥미있는 일화들이 생겨났다.

《왕손은 만만세》

1868년(고종 5년) 경복궁이 재건된 이후 어느해인가 서도명창 허득선은 경복궁에서 진행되는 음악회에 초빙되였다.

당시 봉건통치배들은 이 음악회에 전국의 이름난 명창가수들을 초빙하였는데 지방적차별을 두면서 서도가수들은 명창으로 인정하지 않고 초빙대상에 넣지 않았다.

그렇지만 례외로 허득선만은 서도명창으로 소문이 자자한지라 한번 들어보자는 심산으로 초빙하였던것이다.

이날 음악회는 왕을 중심으로 문무백관들이 늘어선 가운데 전국에서 올라온 명창들의 무대가 펼쳐졌다.

드디여 허득선이 출연할 차례가 되였다.

그의 특기인 서도잡가의 호탕하고 활달한 선률가락들이 특색있는 곱새춤과 어울려 엮어져 음악회의 흥취를 돋구었다.

게다가 남달리 큰 그의 귀바퀴가 노래가락에 맞게 아래우로 움직임에 따라 머리우에 쓴 망건도 오르내리였으므로 관중들의 웃음보를 터쳐놓았다.

이것을 본 임금과 문무백관들은 허리를 그러안고 웃어댔다.

참으로 이날 음악회는 서울이나 다른 지방의 명창들을 제쳐놓고 허득선의 독무대로 되였으며 출연자와 관중들은 흥취가 날대로 나서 한가락이 끝나면 계속 재청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에 허득선의 《왕손은 만만세》라는 기발한 지혜가 없었다면 당장 목이 날아날번 한 사건이 일어났다.

한창 즉흥적인 가락과 가사를 엮어가며 샘솟듯 소리가 흘러나오던 허득선의 입이 갑자기 굳어져버렸다.

그것은 방금 어느 옛 책의 시구에 선률가락을 맞춘 대목에서였다.

즉《춘초는 년년록이요 왕손은 귀불귀라》(봄의 풀은 해마다 푸르게 자라나지만 왕의 자손은 한번 가면 다시 못온다는 뜻)라는 시구에서였다.

그는 지난날 민간에서 소리판을 벌릴 때에는 왕을 비롯한 봉건통치배들에게 원한품은 백성들과 어울려 왕의 대도 망할 때가 있다는 의미에서 이 대목을 자랑스럽게 불렀는데 기분에 들떠있다나니 왕앞인줄도 잊고있었던것이다.

그런데 《왕손은》하는 소리는 이미 뱉아놓았으니 이제 《귀불귀》라는 문구를 번지기만 하면 당장에 목이 날아날 판이였다.

아무리 즉흥소리를 잘하는 그로서도 그 순간 앞이 캄캄하였다.

지금까지 웃고있던 관리들도 왕의 거동과 허득선의 입을 지켜보고있었다.

이제 저 서도광대의 목이 어느 구석에 떨어질것인가 하는 기색이였다.

이때 허득선의 입에서 두번째로《왕손은》하는 문구가 나오고 또 소리가 뚝 끊어지고 한장단 곱새춤을 추더니 《만만세》라는 소리가 크게 터져나왔다.

순간 긴장되였던 관중들은 《후ㅡ》 하는 숨소리와 함께 요란한 박수갈채를 보냈다.

마치도 그것은 관중의 조이는 가슴을 틀어쥐고 소리판의 절정을 꾸며낸 하나의 기묘한 예술적기지와 같이 보였다.

왕은 왕의 대가 오랜 세월 이어진다는데 대하여 매우 만족하여 허득선을 자기옆에 불러앉히고 술까지 부어주게 하였다.

그리고나서 그의 요구대로 총순벼슬(지방군의 중간급벼슬)을 주도록 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허득선은 왕명으로 총순벼슬을 받아가지고 고향 평양으로 돌아왔다.

으리으리한 무관복에 번쩍거리는 칼을 차고 고향에

돌아온 허득선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놀랐다.

그러나 그는 총순벼슬을 줴버리고 스스로 관복을 벗어 장농에 넣었다.

사실 그가 임금에게 총순벼슬을 요구한것은 그토록 사랑하는 앞 못보는 어머니가 어느날 장거리에서 병졸들에게 행패질을 당한것을 복수하려는데서였다고 한다.

이후부터 허득선은 평양사람들속에서 허총순이라는 별호로 불리웠다고 한다.

평양 날탕패의 서도선소리명창들

근대시기 평양에서 가창활동을 벌린 문영수, 리정화는 서도선소리명창으로 민족음악사에 이름을 남긴 재능있는 음악가들이였다.

이들은 평양지방에서 사당패의 후신으로 무어진 날탕패라는 선소리패에 속하여 활동하였다.

이미 조선봉건왕조 후반기에 성행하던 사당패는 조선봉건왕조 말기에 이르러 점차 쇠퇴되였다.

그 대부분은 농촌에 침투되여 농사를 지으면서 농악단인 두레패, 걸립패, 굿중패로 되였으며 그 일부는 도시에 정착하여 산타령패, 선소리패로 전환되였다.

조선봉건왕조 말기 평양지방에서 활동한 날탕패 역시 서도지방 사당패의 후신으로 무어진 산타령패, 선소리

패로서 그 주요연주종목은《놀량사거리》와 서도지방의 통속민요들이였다.

문영수, 리정화는 처음에 평양을 중심으로 남포, 증산 등의 서도일대를 순회하며《놀량사거리》를 비롯한 서도민요, 서도잡가를 잘 불러 선소리명창으로 이름을 떨치였다.

이들이 잘 부른 《놀량사거리》는 《산천초목》, 《놀량》, 《앞산타령》, 《뒤산타령》, 《경발림》의 다섯곡이지만 《산천초목》과 《놀량》을 합쳐 《놀량》이라고 하여 4개 곡으로 되여있는 련쇄가요인데 통털어 산타령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날탕패를 일명 산타령패라고도 하였다.

《놀량사거리》는 조국의 아름다운 산천과 명승고적을 노래한것인데 서도민요에 바탕을 두고있다.

그 음악형상은 보다 규칙적인 장단에 기초한 자진타령장단이 많은것으로 하여 발랄하고 약동적이면서도 락천적이고 랑만적인 정서로 일관되여있다.

20세기초에 문영수, 리정화는 서울에 올라가 새로 건설된 원각사무대에서 많은 관중을 대상하여 《놀량사거리》(산타령)를 비롯한 서도민요와 잡가들을 부름으로써 명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였다.

이들은 연흥사, 광무대에 출연하기도 하고 레코드에

《놀량사거리》, 《녕변가》, 《사설난봉가》, 《노래가락》 등을 취입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의 서도선소리는 당시 경기선소리명창들인 박춘재, 주수봉, 최정식, 류개동 등에 의하여 전승되여 지금까지 전해지게 되였다고 한다.

애국녀성 백선행

평양의 중심부를 유유히 흐르는 대동강가의 련광정곁에는 3층짜리 석조건물로 된 백선행기념관이 있다.

백선행(1848.11.19.-1933.5.8.)은 80고령이 될 때까지 홀로 살면서 근면과 검박, 절약으로 마련한 거금을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의로운 일에 고스란히 바친 애국적녀성이다.

1848년 11월 19일 가난한 서생 백지용의 맏딸로 태여난 그는 7살때 아버지를 잃고 가난에 시달리다가 14살에 시집을 갔으나 16살때 남편은 세상을 떠났다.

남편이 마지막숨을 몰아쉬고있을 때 백씨는 자기 손에서 피를 흘려서 남편의 생명을 5일 연장하였다. 백씨는 남편의 명이 이어지기를 바랐으나 병약한 남편은 어린 안해를 남겨놓고 끝내 세상을 하직하고야말았던것이다.

그때부터 백과부로 불리운 그는 일제식민지통치의 암담한속에서도 꾸준하고 이악하게 일을 하여 부를

쌓아나갔다. 베낳이와 무명낳이, 콩나물장사, 두부장사, 뜨물찌끼장사도 하고 꽃도 팔고 돼지기르기도 하면서 수십년을 하루같이 일하였다.

이렇게 마련한 돈으로 그는 누구도 돌보지 않는 평안남도 강동군 만달면 승호리(당시)에 있는 돌박산을 평당 7~8전의 헐값으로 사두었다가 조선을 강점하고 주인행세를 하던 오노다라는 일본놈에게 본전의 몇십배에 달하는 값으로 팔았다.

하여 막대한 폭리를 얻은 그는 평안도일대의 손꼽히는 부자가 되였으나 사치와 향락을 반대하고 근면하게 일하고 검박하게 생활하였으며 저축한 돈들을 아낌없이 민족의 정의로운 일에 바치였다.

마을앞의 다리가 장마로 파손되고 마을사람들이 그로하여 불편을 느끼자 백씨는 주저없이 돈을 희사하여 석조다리를 세워놓았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선행이라 짓고 이 다리를 《백선교》라고 하였다.

그후 백선행은 평양의 광성소학교와 창덕학교, 숭의녀학교와 같은 학교들에 많은 토지들을 기증하여 민족계몽사업과 후대교육사업에 이바지하였고 자기가 저축하였던 돈으로 평양의 중심부에 보란듯이 공회당 건물을 지어놓고 이곳을 오직 조선사람들만이 리용하도록 하였다.

1927년에 착공한 이 건물은 1928년에 준공하였다. 건물의 1층에는 휴계실, 도서실 등 여러개의 방이 있고 2층과 3층은 여러가지 회의와 예술공연 등을 할수 있게 꾸려졌다.

바로 이 공회당건물이 지금의 백선행기념관이다.

백선행기념관은 오늘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의 문화생활의 거점으로, 애국심을 키워주는 중요한 교양장소로 리용되고있으며 국보유적으로 등록되여 국가적관심속에 보존관리되고있다.

평양의 전설

평양의 유구한 력사

단군의 궁전-버들궁전

단군에 대한 많은 전설들은 모두 단군을 신성한 존재로 여겨오던 우리조상들의 관념에 기초하여 만들어진것이였다.

《단군의 궁전》 역시 이러한 전설중의 하나로 전해져오는 이야기이다.

단군이 고조선을 세우고 평양을 수도로 정한 다음 임금으로 추대된 날이였다.

신하들은 임금으로 된 단군이 거처할만 한 궁전을 미리 마련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이날도 단군은 늘 거처해오던 아름다운 모란봉의 양지바른 중턱에 있는 수수한 자기 집에 돌아갔다.

이날밤 신하들은 이제는 나라를 세우고 임금이 되였으니 화려한 궁전을 크게 지어드려야겠다고 의논하고 단군에게 제의하기로 하였다.

밤을 지새운 신하들은 이튿날 아침 단군이 거처하고

있는 집으로 찾아갔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

대동강으로부터 단군이 살고있는 집으로 통하던 오솔길은 간데없이 사라지고 넓고 알뜰한 긴 흙계단이 모란봉중턱에로 펼쳐져있었고 그끝에 있던 본래의 집자리에는 버드나무로 둘러싸인 아담한 궁전이 솟아있었으며 그 주변의 무성한 풀밭에는 박달나무들이 울창하게 서있었다.

신하들은 너무 놀라와 한동안 바라보다가 흙계단을 밟고 버들궁전으로 올라갔는데 궁전주변의 울창한 박달나무숲속에는 범과 곰, 사슴과 노루, 소와 양들이 서로 어울리여 사이좋게 뛰놀고있었고 단군은 그속에서 깊은 사색에 잠겨 거닐고있었다.

신하들은 단군에게 달려가 물었다.

《이 어찌된 일이오이까?》

단군은 앞으로 다가와 먹이를 청하는 사슴의 목을 다독여주고 신하들앞에 나서면서 대답하였다.

《나도 영문을 모르겠다. 단지 어제밤 꿈에 하늘신이 내려와 이르는 말이 나라의 임금이 되였으면 제 거처할 곳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는 사라졌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 초라하던 집은 간데없이 사라지고 이렇게 으리으리한 궁전이 솟아났구나.》

이 말을 들은 신하들은 하늘을 우러러 절을 하며 엎드리였다.

《고맙소이다. 고맙소이다.》

그들은 사전에 궁궐을 마련하지 못한 자기들의 잘못을 사죄하면서 하늘신이 자기들을 대신하여 궁궐을 지어준데 대한 사례로 하늘을 우러러 절을 하고 또 하였다.

하늘땅의 맏아들궁전

단군은 나라를 세우고 정사를 볼 때 자주 기린마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 여러가지 일을 처리한 정형을 보고하군 하였다.

어느날 단군이 하늘에 정사를 보고하러 올라갔을 때였다.

이날 단군이 거처하고있던 금수산의 모란봉은 햇솜같은 하얀 안개속에 잠겨있었다.

그런데 짙은 안개속에 묻혀있는 궁전쪽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나르는 《어기영》소리와 돌을 다듬는 소리, 나무를 자르는 소리가 밤이 지새도록 부산스럽게 들려왔다.

이튿날 아침이였다.

모란봉중턱에는 난데없이 솟아난 웅장한 궁전이 아침해를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있었다.

단군의 신하들이 깜짝 놀라 달려가보니 푸른 돌로 된

궁전이 백여척이나 되게 높이 솟아있었고 궁전문루우에는 푸른 돌판우에 《천지장남지궁》(하늘땅의 맏아들궁전)이라는 글이 새겨져있는 은빛으로 된 현판이 걸려있었다.

웅장하고 화려한 궁전이 저절로 생겨난것을 두고 신기하게 여기며 기쁨에 넘쳐 어쩔줄 몰라하면서도 신하들은 감히 궁전문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맴돌며 서성거리였다. 신하들은 한시바삐 단군이 하늘에서 내려와 왕궁으로 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있었다.

바로 이때 궁전안에서 단군의 측근신하가 밖으로 나와 신하들에게 어서 궁전으로 들라는 단군의 지시를 전하였다.

《아니, 벌써 임금님께서 궁전에 드셨단 말인가.》

신하들은 또다시 놀라며 그를 따라 궁전안으로 들어갔다.

궁전안의 기둥과 벽, 바닥은 모두 시원하고 눈부신 푸른 돌로 되여있었다.

그리고 신하들을 맞이하는 단군의 의관차림도 희한하였다.

머리에는 검푸른 구슬로 만든 운두없는 모자를 쓰고있었고 우에는 늘어진 버드나무잎무늬로 두어깨를 수놓은 흰옷을 입고 허리에는 박달나무잎으로 수놓은 띠를 두르고있었으며 목이 긴 검은 가죽신을 신고있었다.

신하들은 마치 하늘궁전에나 오른듯 한 기분에 잠겨 눈을 비비며 한동안 단군앞에 엎드려 그를 멍하니 올려다보고있었다. 그리고 너무도 놀랍고 희한한 일이여서 신하들은 단군에게 물었다.

《임금님께서 언제 내려오셨으며 이 궁전은 어떻게 되여 생겨났소이까?》

단군은 너그럽게 웃음짓고 가슴앞에 드리운 긴 수염을 쓰다듬으면서 대답하였다.

《어제 하늘에 올라갔더니 천왕께서 인젠 나라를 세우고 임금이 되였으니 궁전이 하나 있어야 나라의 체모도 설것이라면서 나를 한곳으로 데리고가더란 말이다. 그곳에는 여러가지 색갈의 많은 궁전이 즐비하게 늘어서있었는데 그중 마음에 드는것을 하나 고르라고 하지 않겠나. 하기에 바로 이 궁전을 가리켰더니 천왕께서는 직접 문패에 글까지 써서 궁전에 달아주더구만. 그리고 궁전안으로 들어가보라고 하기에 궁궐문을 열고 들어가 돌아보는 사이에 이렇게 내려오지 않았겠나.》

이 말을 들은 신하들은 단군앞에 다시 엎디여 절을 하며 감격에 겨워 환성을 올리였다.

《하늘에 계시는 천왕께옵서 이렇게 보살펴주시니 우리 나라는 영원무궁할것이오이다.》

단군의 궁전이 이렇게 생긴 후 나라는 더욱 번성하

였고 수백년세월이 흐른 뒤에도 주변의 나라들은 세상에 둘도 없는 단군조선의 이 궁전을 보고 놀라면서 감히 엿보지 못하였다고 한다.

구제궁

구제궁이라는것은 아홉개의 사다리를 거쳐서야 오를 수 있는 궁전이라는 뜻이다.

옛날 임금들의 궁전을 흔히 구중이라고 일러왔는데 그것은 아홉겹의 문 또는 아홉겹의 담장이 둘러있는 궁전이라는 뜻에서 한 말이였다.

대체로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이란 존엄있는 존재였으므로 일반백성들과는 멀리 떨어진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말하여주는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홉개의 사다리를 거쳐서야 오를 수 있다는 궁전이라는것은 곧 그처럼 높은 곳에 있다는 뜻이다.

단군이 정사를 보는 궁전을 달리 말하여 구제궁이라고도 일러왔는데 그것은 모란봉중턱에 있는 단군의 궁전이 대동강가에서 아홉개의 사다리를 거쳐야만 오를 수 있는 높은 곳에 있다는 뜻이면서도 단군의 궁전이 하늘가까이에 있다는 뜻도 가지고있었다.

그것은 단군이 이 궁전을 거쳐 자주 하늘의 천왕에게

정사를 보고하러 오르내렸기때문이였다.

그러므로 단군의 궁전인 구제궁이 있던 모란봉중턱에는 단군이 하늘로 타고오르던 기린마를 길렀다는 기린굴이 있었고 청류벽밑의 대동강가에 오르내릴 때 디디던 바위였다는 조천석도 있었다고 전해오고있다.

홍산

홍산은 강동의 대박산으로부터 서남쪽으로 뻗어내린 산줄기끝에 솟아있는 나지막한 산이다.

이 산은 예로부터 나무와 풀이 잘 자라지 않는 벌거숭이산이라는데로부터 홍산 또는 붉은 산이라 불리온다.

이 산이 벌거숭이산으로 된데 대한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오고있다.

단군이 박달족장의 아들로 태여나 어느덧 10살이 되던 해 이른봄 어느날이였다.

이날 단군의 아버지는 어린 단군을 자기앞에 불러앉히였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단정히 앉아있는 단군을 한동안 대견스럽게 내려다보았다.

검고 윤기나는 탐스러운 머리채, 둥그스름한 얼굴에 짙고 굵은 눈섭, 쩍 벌어지기 시작한 어깨, 한아름으로 안아들기에는 무거울 든든한 몸집, 어디를 보아도 10살 나이 사내로서는 너무 숙성해보이였다.

아버지는 대견스러운 마음에서 붉게 피여오르는 아들의 얼굴도 다독여주고싶었고 든든한 몸집을 한껏 안아주고싶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런 내색을 조금도 아들앞에 내보이지 않고 엄한 기색으로 내려다보며 말을 떼였다.

《사나이 10살이면 적은 나이가 아니다. 더구나 너는 앞으로 큰일을 맡아해야 할 사람이니 그럴만한 자질을 닦는데 더욱 힘써야겠다.》

《알겠나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뜰안에서만 활과 칼쓰기를 익힐것이 아니라 이 한해를 내가 정해놓은 곳에 나가 살면서 무술을 닦아야겠다. 그러나 만약 가을철에 가서 익힌 무술이 이 아비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는 돌아올 생각을 말어라.》

《명심하겠나이다.》

아버지앞에 다지는 단군의 맹세도 굳었다.

이리하여 아버지는 단군을 데리고 이미 보아두었던 무술터로 나갔다.

이곳이 바로 오늘의 홍산이였다. 뒤에는 높은 대박산 줄기가 병풍처럼 둘러있고 앞에는 맑은 강이 굽이쳐흐르는 사이에 나지막한 구릉지대를 이루고있으므로 산세가 험하지도 않아 무술닦기에는 참으로 맞춤한 곳이였다.

이날부터 어린 단군은 산속에서 먹고 자며 부지런히 무술을 닦아나갔다.

그는 아버지의 깊은 뜻을 마음속에 새기고 기어이 아버지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리라 굳게 마음먹고 무술훈련에 열중하였다. 그러면서 가을철에 가서는 아버지를 깜짝 놀래울만큼 무술을 익히리라 굳게 속다짐을 하였다.

이런 결심으로 단군은 산과 들에 풀잎이 돋지도 않은 이른봄부터 록음짙은 여름과 단풍이 지는 가을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무술닦기를 하였다.

단군의 무술훈련을 보러왔던 사람들은 그의 무술솜씨에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자못 신심이 생긴 단군은 드디여 아버지에게 한해의 훈련정형을 보여드리려고 찾아갔다.

《아버님께 한해동안 닦은 무술을 보여드리러 돌아왔나이다.》

《그런데 집뜰안에서야 네가 닦은 무술을 알수가 있겠느냐. 무술터로 나가보아야겠다.》

아버지는 단군에게 먼저 무술터를 돌아보자고 하였다.

아무말없이 무술터를 한동안 돌아보고 난 아버지는 드디여 단군을 앞에 불러세웠다.

《너는 어찌 훈련을 이리도 게을리했느냐?》

《…》

어리둥절해하는 단군에게 아버지는 엄하게 물었다.

《네가 여기에 처음 오를 때 풀들이 있었느냐?》

단군이 처음 올 때에는 이른봄이여서 아직 풀들이 돋아나지 않았었다.

《없었나이다.》

《그런데 이곳에 웬 풀들이 많이 남아있느냐?》

아버지는 무릎을 넘게 자라난 무술터의 풀밭을 가리켰다.

이 물음에 단군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동안에 자란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무술닦는 너의 의지가 풀대보다도 못하다는 말이 아니냐. 풀들은 너의 말발굽에 짓밟히면서도 이렇게 자랐으니 네가 어찌 게으르지 않았다고 말할수 있느냐?》

단군은 아버지의 말에 아무 대답도 못하였다.

《무술을 닦는 목적은 재주를 키우는데만 있는게 아니라 용맹과 의지를 키우는데 있는게다.》

그제야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된 단군은 무릎을 꿇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나이다.》

이리하여 단군은 집으로 돌아갈수 없었으며 아버지가 돌아간 뒤에는 며칠동안 잠도 이룰수가 없었다.

《내가 결국 풀대한데 져서 게으르다는 말을 듣게 되였단 말인가?》

생각할수록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였다.

단군은 심한 가책과 함께 명년에는 무술터에 한대의 풀대도 돋아나지 못하게 하리라 굳게 마음 다지였다.

그리하여 눈보라 사나운 추운 겨울에도 말타기훈련을 멈추지 않았으며 이른봄부터는 산등성이와 기슭에 새로 돋기 시작하는 풀들까지 모조리 짓뭉개버리며 말을 달리고 또 달리였다.

하루훈련을 끝내고 한밤중에 누워 자다가도 풀잎들이 돋아나는것만 같아 벌떡 자리를 차고 일어나 무술터를 달리였다. 하여 그해 봄이 가고 록음짙은 한여름이 되였으나 무술터에는 말발굽에 밟히고 짓뭉개져서 풀 한포기 볼수 없었고 빨간 흙먼지와 하얀 돌가루만이 산등우에 깔려있을뿐이였다.

한시도 쉬임없는 단군의 직심스러운 무술훈련에 의하여 가을철이 되여오도록 무술터에는 끝내 풀 한포기 자랄수 없었다.

드디여 가을철 어느날 아버지는 단군의 무술솜씨를 직접 보려고 또다시 나왔다.

무술터의 산마루에 올라 가벼운 바람에 먼지만이 흩날리는 붉은산을 밟아보는 아버지의 얼굴에는 그제야 만족과 기쁨이 어려있었다.

《이렇게 산이 붉어진것을 보니 내 마음도 기쁘다.

이제야 너의 의지가 좀 보이는듯 하구나.》

그리고 아버지는 함께 온 여러 사람들을 둘러보며 《우리 종족을 떠메고 나갈 기둥감이 자라난것을 보는 것이 더없는 자랑이고 기쁨이 아니겠느냐.》고 하였다.

단군은 그해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렇게 단군이 의지와 큰 뜻을 키우느라고 몇해동안 쉬임없이 말을 타고 무술을 닦는통에 홍산은 이름 그대로 그만 벌거숭이로 되여버렸다.

그리하여 그 산은 오늘까지도 풀과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여 붉은 산, 홍산이라고 불리오게 되였다고 한다.

단군호

단군호는 강동읍의 서쪽에 있는 그리 크지 않은 못이다. 단군호는 물밑 바위굴에서 솟구쳐오르는 샘에 의하여 이루어진 자연호수이므로 한여름에는 물이 시원하고 겨울철에는 얼지 않고 뜨뜻하며 어느때건 줄어들지 않는다.

예로부터 맑고 깊은 이 호수는 각종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자라고있고 또한 물을 먹으러 오는 여러 종류의 날새들과 짐승들이 사철 모여들어 호수의 풍치를 한껏 돋구어주어 절경을 이루었다.

이 호수를 단군호라고 이름지어 부르게 된것은 단군이

이 호수에서 배를 타고 즐기군 하였을뿐아니라 모여드는 뭇짐승들의 각이한 생태와 그들의 생활을 관찰하는 과정에 기발한 책략들을 얻군 하였기때문이라고 한다.

그중 한가지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단군이 주변종족의 하나였던 마귀종족을 통합하기 위하여 책략을 모색할 때 있은 일이다.

단군은 호수에서 배를 타고 조용히 사색하면서 노를 젓고있었다.

이날 호수에는 물오리떼가 날아들어 헤염을 치며 물고기들을 잡아먹고있었고 호수가의 바위들과 수풀속에서는 뭇새들이 우짖고있었다.

그리고 큰길과 잇닿아있는 호수가의 한쪽 기슭에는 단군의 깊은 사색을 지켜 사람들의 왕래를 막기 위하여 수하장수가 파수를 서고있었으며 그곁에 단군이 귀하게 키우는 사냥개 한마리가 혀를 내밀고 한가로이 앉아있었다.

아침해가 어느덧 중천에 떠올랐으나 단군의 사색은 한껏 무르익어가는듯 고요한 호수가에는 정적이 무겁게 드리웠다.

호수가 맞은편 풀속에서 우는 이름모를 작은 풀벌레의 울음소리도 가늠해 들을수 있을 정도였다.

바로 이때였다.

호수가에 잇닿은 큰길로 요란한 말발굽소리를 울리며 한 군사가 말을 몰아 달려왔다.

그 소리에 놀라 호수의 물면을 가르며 헤엽치던 수십마리의 물오리들이 푸드득거리며 날아가버리고 한가로이 엎드려있던 사냥개도 벌떡 일어나 다가오는 말을 향해 요란하게 짖어댔다.

이리하여 고요하던 정적은 깨여지고말았다.

수하장수는 바빠나서 다가오는 군마앞으로 달려나가 저지시키며 꾸짖었다.

《이 무슨 무엄한 짓인가?》

군사는 말에서 내려 한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족장님께 급히 아뢸 말씀이 있소이다.》

《아무리 급하기로서니 군막에서 기다리든지 아니면 조용히 다가올노릇이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말을 타고 달리며 소란을 피우느냐?》

《죄송하나이다. 단지 소인은 우리 대장이 족장님께 급히 아뢰라는 령만을 생각하고 …》

수하장수가 말을 타고온 군사에게 이렇게 추궁하고 있을 때 벌써 단군이 배를 몰고 호수기슭으로 다가와 무슨 일인가고 물었다.

그제서야 군사는 단군에게 다가가 절을 하고나서 아뢰였다.

《마고성에서 보내온 소식이나이다. 우리가 마고성에 쳐들어갈 기미를 알아차린 마귀족장이 지금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다고 하나이다. 이럴 때엔 어찌하면 좋을지 몰라 우리 대장이 묘술을 물어오라 하였나이다.》

《음, 그럴테지. 내 그럴줄 알고 그 방책을 찾던중이였다.》

그러자 수하장수가 다시 군사를 꾸짖었다.

《보아라. 네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족장님께서 이미 다 내다보시고 계시는데 함부로 소란을 피워 중한 생각을 깨치시게 하다니…》

《황송하나이다.》

군사는 머리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 사죄하였다.

《그만해라. 이 군사는 내 생각을 깨친게 아니라 내게 신통한 책략을 깨우쳐주었노라.》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 있는 수하장수와 군사에게 단군은 이렇게 말하였다.

《방금 네가 이 호수로 요란스레 달려오는 바람에 물에서 헤엄치던 물오리떼는 어디로 날아가고 이 개는 어디를 향하여 짖더냐?》

군사는 단군이 그것을 무엇때문에 묻는지 몰라 머뭇거리더니 자기가 본대로 아뢰였다.

《이 개는 소인을 향해 마주 달려오며 짖었고 물오

리떼는 말발굽소리를 피해 북쪽으로 날아갔나이다.》

《그러면 이 개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구 날아가는 물오리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그제야 군사는 단군의 묻는 뜻을 알았다는듯이 힘있게 대답하였다.

《달려드는 짐승은 뒤통수를 쳐야 하구 날아가는 짐승은 앞을 쏘아야 하나이다.》

《그렇지. 그게 바루 맞서나오려는 마귀족을 칠 책략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네가 바루 그 책략을 깨우쳐준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알겠소이다.》

군사는 감개무량하여 어쩔줄 몰라하였고 수하장수는 단군의 기발한 책략에 다시금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이리하여 단군은 맞서나서는 마귀종족의 성을 정면으로 공격하는척 하면서 불의에 뒤로 쳐들어감으로써 쉽게 통합하게 되였다.

단군호에서 단군이 짜낸 지략은 언제나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왔다고 한다.

단군의 지략은 바위굴에서 솟구치는 샘줄기처럼 끝이 없었다고 하여 이 크지 않은 호수에 바로 단군호라는 이름을 붙여 불렀다고 한다.

아달샘

아달샘은 강동읍의 아달산 서쪽기슭에서 솟아오르는 샘물이다.

수정같이 맑은 이 샘은 사철 변함없이 솟아오르고 겨울에도 얼지 않았다.

단군이 젊은 시절 무술을 닦을 때 이 샘을 즐겨 마시군 하였다고 한다.

이 샘터에 단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전해져내려오는데 그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있다.

열혈청년장수였던 단군이 수도를 평양에 정하고 고조선을 세운 뒤 령토를 남과 북으로 넓히며 나라를 다스려오는동안 어느덧 세월은 흘러 그의 머리에도 백발이 흩날리게 되였다.

어느해 여름 단군은 신하들을 데리고 남쪽지방을 순행하고 돌아오는 길에 강동땅을 지나게 되였다.

단군은 여기서 잠간 행차를 멈추게 하였다.

그리고 말우에 앉은채 강동의 아름다운 산천을 감회깊게 둘러보았다.

북쪽으로 병풍과 같은 산을 등지고 앉아있는 나지막한 벌거숭이산은 바로 어린시절 무술을 닦던 곳이고 남쪽에 흐르는 맑은 수정천은 무술을 닦느라고 땀과 흙먼지로 범벅이된 몸을 씻군 하던 곳이였다.

아름다운 산천을 둘러보면 볼수록 어느 한곳에도 어린시절의 추억이 깃들지 않은 곳이 없었다.

젊은 시절 큰뜻을 품고 이 고장을 떠난 뒤 나라를 세우고 령토를 확장해나가던 다난한 일로 그동안 한번도 와보지 못한 고향땅이였다.

단군은 향토에 대한 애틋한 정과 마음을 간지럽히는 추억으로 하여 이곳을 그냥 지날수 없었다.

감회깊게 산천을 둘러보던 단군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이번 행차가 그리 바쁜 길도 아닌데 어찌 이곳을 그냥 지날수 있겠느냐?》

그리고 아달산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 아달산밑에 시원하고도 단 샘물이 있으니 한모금씩 마시고 가도록 하자.》

단군은 말머리를 돌려 신하들을 데리고 아달산샘터로 갔다.

이때 촉기 빠른 한 신하가 먼저 아달산샘터로 달려가 맑은 샘물을 푸른 옥돌그릇에 담아 단군에게 올리였다.

그러나 단군은 그것을 받지 않고 이렇게 말하였다.

《원래 샘물은 제손으로 떠마셔야 맛이 나는 법이다.》

단군은 말에서 내려 샘가로 다가가 샘터를 둘러보았다.

젊은 시절 때없이 달려와 엎디여 마시군 하던 그때

와 다름없이 샘은 맑고 깨끗하고 정가로왔다.

물맛을 보려고 한쪽 무릎을 꿇어앉아 쪽박을 쥐고 샘물을 뜨려던 단군은 그만 굳어진듯 움직일줄 몰랐다.

한것은 그전에 이 샘을 마시려고 할 때에는 땀방울이 어린 젊음이 넘치는 홍안이 비끼였으나 오늘 그 모습은 간데없고 백발늙은이의 얼굴이 비껴있었기때문이였다.

그 로인이 다름아닌 자기라는것을 느낀 단군은 저도 모르게 서글픈 한숨을 내쉬였다.

《아, 이젠 나도 늙었구나. 중요한 국사를 패기에 넘치는 태자에게 넘기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되였음을 내 미처 몰랐구나.》

이렇게 속으로 뇌이면서 수도로 돌아온 단군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후세의 나라일이 걱정되였던 것이였다.

한편 왕자리를 물려준 다음에도 지금처럼 나라가 강성하고 화목하여 모두가 나라를 위해 힘써 일할것인가 하는 념려가 갈마들었다.

이런 생각으로 밤을 새운 단군은 이튿날부터 앞날의 나라일에 대한 걱정으로 잠이 오지 않을 때면 일어나 앉아 후대들이 나라의 륭성번영을 위해 지켜나가야 할 조목들을 하나하나 만들기 시작하였다.

단군은 이렇게 심혈을 바쳐 만든 글을 세상을 떠날

때 온 나라에 선포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그가 후세에 남긴 유서라고 한다.

그 유서의 내용은 대략 이러하였다고 한다.

사람의 마음은 모두 같으니 자기 마음을 다잡아 남의 마음에 비치게 하면서 백성을 다스릴지어다.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공경하고 그 마음으로 나라를 받드는것이 바로 충효이니 이 도리를 체득하여 나라를 받들지어다.

열손가락을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으니 다같이 사랑하고 서로 시기하지 않도록 하여 집안이 화목하며 나라가 태평케 할지어다.

소와 말의 먹이가 따로 나뉘여있으니 사람마다 다같이 양보하고 서로 빼앗지 말도록 하여 집안을 풍족케 하며 나라를 부유케 할지어다.

날새도 쌍이 있으니 남녀가 음탕하지 말고 무어진 배필을 한생토록 변치 말고 살지어다.

약한자나 낮은자나 모두 한나라 사람이니 업신여기지 말고 모욕치 말지어다.

남이 있어 내가 살고 내가 있어 남도 사는것이니 간사한 마음 품지 말고 앙심을 감추고있지 말며 더더구나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가지지 말지어다.

산천초목속에 사람이 먹고 쓰는것이 자라고 사람이

부리는 짐승도 살아가나니 만물을 사랑할지어다.

이와 같은 단군의 유서는 수수천년 솟아흐르는 아달샘과 더불어 후손들의 가슴을 뜨겁게 적셔주며 전해왔다고 한다.

말무덤

강동읍 대박산 청계골안에는 말무덤이라고 불리우는 큰 무덤이 있다.

이 무덤은 단군이 타고다니던 기린마의 묘라고 전해오고있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깃들어있다.

단군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유언대로 시신을 강동땅에 묻은 뒤였다.

단군의 신하들이 여러날동안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날 밤이였다.

평양궁궐안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났다.

그것은 단군이 살아있을 때 그렇게 사랑하던 기린마가 자기 주인이 세상을 떠난 뒤부터는 먹이를 전혀 먹지 않더니 단군의 장례가 끝난 바로 그날밤에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린것이다.

단군의 뒤를 이어 임금이 된 맏아들 부루는 이 소식을 듣고 가슴을 쳤다.

(그 말이 어떤 말인가. 부왕을 받들어 나라를 세우

는데 이바지한 공로는 더 말할것도 없고 세상에 희귀한 말로서 나라의 보배인데 그것을 잃어버리다니.)

기린마를 맡아보는 사복시관리를 불러들인 부루는 당장 기린마를 찾아오라고 령을 내렸다.

부루의 령을 받은 사복시관리는 나라의 곳곳에 사람들을 띄우고 자신도 기린마를 찾아 헤매였다.

그러던 어느날 강동땅에 기린마가 나타났다는 소문을 듣고 황급히 그곳으로 달려갔다.

강동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기린마는 낮에는 감쪽같이 사라졌다가 사람들이 다 자는 깊은 밤이면 단군릉에 내려와 앞발로 릉을 허비며 큰소리로 운다는것이였다.

주인을 찾는 기린마의 울음소리는 사람들의 가슴을 허비였다.

사복시관리는 기린마의 정상을 듣고 부하들을 시켜 림시 말우리를 지어주어 거기에 들게 하려 하였으나 기린마는 좀처럼 그 말우리에 들지 않았다.

이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날 밤 또다시 기린마의 울음소리가 구슬프게 울리더니 단군릉에서 푸르스름한 불기운이 솟아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다. 그런 뒤로 다시는 단군릉을 찾아와 우는 기린마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사복시관리와 부하들은 다시 강동땅에서 기린마의 행적을 찾기 시작하였다.

얼마후 이들은 단군릉의 동쪽에 있는 아달산기슭에서 기린마의 굴레와 안장을 얻게 되였다.

사복시관리와 부하들은 이제는 기린마를 붙잡아가지고 돌아갈 길이 더는 없음을 깨닫고 땅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였다.

이 광경을 보던 마을로인들이 위로의 말을 해주었다.

《그것은 어찌할수 없는 일인가 보오. 단군릉에 푸른 불빛이 일어난 날부터 저 아달산꼭대기에 밤마다 그 불빛이 생기는것을 보면 단군대왕님이 산신이 되시구 그 기린마도 산신이 되여 단군대왕님을 받드는것이 틀림없수다.》

사복시관리와 부하들은 이 말에 힘을 얻고 평양궁궐에 돌아와 그동안 보고 들은 사연을 부루왕에게 그대로 아뢰고 벌을 청했다.

《소신들이 직책에 게을러 나라의 보배를 잃게 했으니 천백번 죽은들 어찌 이 죄를 용서받겠나이까.》

한동안 말없이 그들이 가져온 마구들을 굽어보고있던 부루는 이슥하여 머리를 들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건 그대들의 죄가 아니다. 죽어서도 대왕님을 받들려는 그 기린마의 지성을 어찌 막을수 있겠느냐.》

그리고나서 부루는 기린마의 굴레와 안장을 가져다가 단군릉 가까운 곳에 무덤을 크게 쓰고 묻어주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임금의 령으로 단군릉에서 가까운 청계골에 기린마의 무덤이 만들어지게 되였다.

그후에도 말무덤에서는 밤마다 푸른 불기운이 뻗어올라 아달산꼭대기에 닿군 하였는데 그것은 말무덤에 깃들어있는 기린마의 령혼이 밤마다 아달산에 올라 산신으로 된 단군을 태우고 나라의 변방을 돌아보러 올라가는것이였다고 한다.

아달산의 우뢰소리

아달산은 강동읍뒤를 둘러싸고있는 산들가운데서 원추형으로 솟아있는 아름다운 산이다.

이 산은 원래 아사달이라고 불리워오다가 《사》가 생략되여 아달산이라고 불리우게 되였으며 그 주변마을은 아달동으로 불리워왔다.

단군을 하늘이 낸 인물로 일러오던 우리 조상들은 단군이 세상을 떠난 뒤 아달산의 산신이 되여 나라의 정사와 백성들을 돌보아왔다는 이야기를 전설로 전해오고있다.

먼 옛날 아달산근방의 마을에 남의 땅을 얻어 부치는 박가성을 가진 늙은 농민이 살고있었다.

정직하고 대바른 그는 부지런히 농사일을 해오면서 언제나 단군릉과 아달산이 부정을 탈세라 잘 관리하여왔다.

그러던 어느날 밤이였다.

잠을 자고있던 박로인은 구들이 흔들리며 웅웅 울리는 소리에 잠을 깨였다.

일어나 앉은 그는 아무리 방안을 살펴도 소리나는 곳을 가늠할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보았다.

그가 주변을 살피며 소리나는 곳을 찾아 한걸음두걸음 옮겨가보니 그곳은 바로 아달산이였다.

아달산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나오는데 그 소리에 땅이 울리고 울창한 아름드리나무들이 몸부림치며 떨고있었다.

박로인은 하도 이상하여 오래도록 아달산앞에서 자리를 뜨지 못하였다.

새벽이 되여서야 아달산의 울음소리가 그치고 주위도 조용해졌다.

예로부터 이 고장에서는 아달산이 울면 외적들이 쳐들어온다는 말이 전해지고있었다.

날이 밝은 뒤 박로인은 마을의 로인들을 찾아다니며 밤사이에 있은 일을 이야기하면서 외적이 쳐들어올 징조가 분명한데 무슨 방어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고 하였다.

다른 로인들도 모두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하면서

박로인의 의견대로 먼저 젊은이들에게 병쟁기를 쥐여 읍성으로 보내자고 하였다.

온 마을이 이런 일로 웅성거리고있을 때 땅주인인 황지주가 나타나 아침해가 서발이나 올라왔는데 왜 밭에 나가지 않는가고 고아대며 삿대질을 하였다.

박로인은 아달산이 운 사실에 대하여 지주에게 자세하게 일러주었으나 지주는 한사코 들으려 하지 않았다.

《소리는 무슨 소리냐. 네놈들이 못된 일을 하려고 작당하는것을 모르는줄 아느냐. 당장 걷어치우고 밭에 나가지 않으면 모두 땅을 떼고 관가에 고발하여 주리를 틀게 하겠다.》

지주의 행악질로 박로인을 비롯한 마을사람들은 뜻대로 방비책을 세울수 없었다.

그런데 그날밤에도 아달산이 울어 온 마을사람들이 잠에서 깨여나 모두 시름에 겨워 밤을 뜬눈으로 새웠다.

이튿날 아침 박로인이 마을사람들에게 《우리가 땅을 떼우고 주리를 틀리우는것은 뒤일이고 외적을 막는것이 선차이니 모두 읍성으로 갑시다.》라고 하자 마을의 남녀로소가 병쟁기를 들고 따라나섰다.

그들이 읍성에 이르러 미리 싸움준비를 하였기때문에 쳐들어오는 외적들을 제때에 쳐물리칠수 있었다.

이 일이 있은 뒤 황지주는 속이 편안치 않았다.

자기는 아달산이 우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는데 어찌 자기네 작인들만 들었다고 하는것인가. 뒤틀린 생각으로 속이 편치 않아 끙끙거리던 황지주는 마침내 고을원을 찾아가서 박로인의 행동이 수상하니 분명 외적과 내통하는자라고 고발하였다.

그렇지 않다면야 어떻게 외적이 쳐들어오는것을 그런 무식한 촌놈이 알수 있겠는가고 하였다.

고을원은 곧 박로인을 붙잡아들여 심문을 하게 하였다.

《너는 외적과 내통하는 놈이냐?》

《무슨 말씀이오이까. 한뉘 농사밖에 모르는 소인이 어찌 외적과 내통할수 있겠소이까.》

《그럼 외적이 오는줄 어떻게 알았느냐?》

《아달산이 여러날 밤 울었나이다.》

이때 곁에 있던 황지주가 한술 더 떴다.

《이놈아, 바루 아뢰여라. 난 귀가 없는 사람인줄 아느냐?》

박로인은 나라가 위태로울 때도 그에는 아랑곳하지 않다가 도리여 오늘에 와서 남을 모해하려는 황지주의 행동이 괘씸하였다.

《황나리께서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셨다면 아마 단군님이 황나리를 자기 후손이 아니라고 보신 모양이

아닌가 생각하나이다.》

《뭐라구?》

《그럼 어찌 단군신께서 우리의 귀에만 들리게 하고 황나리의 귀에는 들리지 않게 했겠나이까?》

박로인의 말을 듣고 온 마을사람들이 통쾌해하며 황지주를 비난하였다.

아무리 재산이 많고 세도가 하늘에 뻗쳤다는 지주놈도 얼굴이 벌개서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였다.

이 이야기는 임진조국전쟁때 있은 일이라고도 하고 거란침입때 있은 일이라고도 하며 또 그보다 먼 옛날에 있은 이야기라고도 한다.

하여튼 나라에 전란이 있을 때마다 아달산이 울군하였다고 전해오고있다.

흥부동의 유래

최승대에서 북쪽의 산기슭을 굽어보면 모란봉으로부터 뻗어간 나지막한 산등성이앞에 대동강을 끼고 들어앉은 오붓한 마을이 보이는데 그곳이 바로 흥부동이다.

이 마을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오고있다.

고구려가 아직은 수도를 압록강 중류연안의 국내성(집안)에 두고있던 때였다.

어느날 국왕은 한 관리를 불러 지시를 주었다.

《우리는 수도를 남쪽으로 옮겨야 하겠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평양은 옛날 조선의 수도였고 나라의 지맥의 근본이 되는 고장이며 산천이 아름답고 땅이 비옥하여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들 한다. 그런데 세월이 오래 흘러 오늘은 그곳이 어딘지 알수 없구나. 네가 남쪽으로 가서 평양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고 오너라.》

왕의 지시를 받은 관리는 곧 행장을 갖추고 평양을 찾아 길을 떠났다.

그는 압록강과 청천강을 건느고 험한 령들을 넘고 들판을 지나면서 평양을 찾아 걷고 또 걸었다.

그런데 어느날 한 산마루에 올라 땀을 들이면서 앞을 바라보던 관리는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넓고 푸른 강이 흘러내리는데 북쪽은 산발들로 둘러싸여있고 그앞으로는 탁 트인 넓은 벌이 펼쳐져있었다. 이야말로 보기 드문 지세였다.

(이곳이 바로 평양이 아닐가?)

이런 생각이 든 관리는 인가를 찾아 강기슭으로 내려갔다.

관리는 강가의 오붓한 곳에 있는 한 농가에 들리여 주인을 찾았다.

《이 고장의 이름은 무엇이라 하느냐?》

《이곳은 예로부터 평양이라고 불러오는 고장이올시다.》

《그래? 평양이 옳단 말이지. 아, 이제야 찾았구나!》

관리는 드디여 평양을 찾은 기쁨에 어쩔줄 몰라하였다.

그는 어리둥절하여 의아하게 바라보는 로인에게 자기가 평양을 찾기 위하여 걸은 사연을 이야기해주면서 오늘에야 비로소 평양을 찾았으니 기쁜 마음을 금할수 없다고 말하였다.

이어 관리는 주인에게 물 한그릇을 청하였다.

로인은 방안에 들어갔다가 빈 큰 술잔을 가지고 나왔다.

《그처럼 귀하신분을 달리 대접할 길은 없사오나 이 잔으로 저 샘터의 시원한 물이나 드시오이다.》

관리는 잔을 받아가지고 그 집앞에 있는 샘터에 가서 맑은 물을 떠서 마시였다.

그런데 이 어인 조화인가.

잔으로 떠마신것은 물이 아니라 향기로운 술이였다.

술은 향기로울뿐아니라 온몸에 상쾌한 기분을 돋구어주었고 무겁게 쌓였던 피로도 금시 다 풀리고 새힘이 부쩍 솟게 하였다.

그다음날부터 며칠간 평양의 지세를 돌아보고 난 관리는 곧 국내성으로 돌아가 왕에게 평양을 돌아보고 온데 대하여 자세히 아뢰였다.

왕은 관리한테서 로인이 준 술잔으로 샘물을 마시였

는데 그것이 바로 향기로운 술이였다는 말을 듣고나서 경탄하며 기뻐하였다.

《과시 평양이야말로 수도로 될만 한 곳이로다.》

이리하여 수도를 옮긴 후 로인이 관리에게 큰 술잔을 주었던 마을을《흥배》(흥을 돋구어주는 술잔이라는 뜻)라고 불렀다.

그것이 그후 전해오는 과정에 음이 흥부로 변하여 흥부동으로 부르게 되였다고 한다.

동명왕릉에서 량반을 골려준 농부

평양의 동남쪽 오늘의 력포구역 룡산리에 있는 동명왕릉은 고구려 시조왕의 무덤이였으므로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은 릉을 잘 거두고 관리하여왔다.

그러나 조선봉건왕조시기 사대주의에 극도로 물젖어 있던 량반통치배들이 자기 조상인 고구려 시조왕의 무덤도 몰라보면서 잘 거두지 않은 때도 있었다.

이러한 때 제일 가슴아파한것은 이 무덤주변의 마을 사람들이였다.

어느날 한 농부가 동명왕릉부근에 있는 밭에서 김을 매고있었다.

한낮이 되여올무렵이였다. 말을 탄 량반이 앞뒤에 하인들을 따라세우고 왕릉곁을 지나고있었다.

이를 본 농부는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일하던 차림으로 호미를 쥔채 그 량반을 마주 향하여 걸어나갔다.

하인들은 큰소리로《저리 가라. 물러가라!》하며 소리를 질렀다.

그러거나말거나 농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네활개를 치며 량반의 곁으로 다가가 마주칠듯 어기면서 말을 타고있는 량반의 면상을 흘겨보았다.

농부의 뜻밖의 거동에 량반은 너무도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 새파랗게 질린 얼굴에 입만 벌리고 한동안 말을 못하였다.

그도 그럴것이 원래 량반이 지나가면《천한》사람들은 길에서 비켜서야 할뿐아니라 량반이 지나갈 때까지 머리가 땅에 닿도록 엎디여 있어야 했던것이다.

《야, 저놈을 당장 붙들어라!》

불같은 호령이 떨어지기 바쁘게 하인들은 저쯤 지나간 농부를 붙들어 량반앞으로 끌어왔다.

《야 이놈아, 네놈은 돌틈에서 나온 놈이냐? 어찌 례의범절도 모르느냐?》

량반놈은 얼굴이 고추빛이 되여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내가 례의범절을 모른다구요? 그래 량반님은 알고 있소?》

농부는 도리여 태연하고 당당한 자세를 취하며 대답하였다.

《뭐라구? 량반행차에 꼿꼿이 맞서 지나치구 얼굴까지 쏘아보는게 상놈의 례절인가 말이야.》

량반은 성이 머리끝까지 올라 펄펄 뛰였다.

《그럼 시조왕릉앞으로 말타고 지나가는건 량반의 례절이시우?》

《시조왕릉?》

그제야 량반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자, 보시우. 저것이 대고구려 시조왕릉인 동명왕릉이요. 풀벌레나 개미만도 못한 주제에 무슨 례절을 론하자는거요?》

《이놈 봐라. 내가 풀벌레나 개미만 못하다구? 이런 무엄한놈 봤나.》

량반은 치를 떨며 말에서 미끄러질듯 내리여 당장 요정낼듯이 농부에게 다가들었다.

《이놈, 다시 말해봐라. 어찌구 어째?》

《량반님이 풀벌레나 개미보다 나은 례절이 무엇이우? 그래도 풀벌레나 개미들은 이 릉이 시조왕릉이라고 감히 한놈도 범접하지 못하는데 량반님은 말까지 타고 릉곁을 지나니 풀벌레나 개미보다 난게 뭐요?》

《…?》

량반은 그 말에 말문이 딱 막혔으나 농부에게서 당하는 모욕으로 오장륙부가 뒤집힐듯 약이 올랐다.

농부를 짓조길 말이 떠오르지 않아 그는 농부의 눈길을 피해 동명왕릉을 올려다보았다.

릉우에는 금잔디가 한벌 덮여있었으나 곁에 있는 루각이나 비석근처에는 키를 넘는 풀들이 무성했고 주변에는 락락장송이 울창하게 솟아있었다.

저런 풀숲은 범도 새끼칠만 한 곳이고 소나무밑 솔잎무지엔 불개미가 있기 마련인데 여기에 풀벌레나 개미가 한마리도 얼씬하지 못한다니 웬 말인가.

이것은 필경 량반에게 엇서려는 무지한 농부가 혀를 잘못 놀리다 쉐친 소리라고 생각한 량반은 농부에게 돌아섰다.

《이놈아, 저런 풀밭과 저런 솔밭에 풀벌레나 개미 한마리 없단 말이냐? 내 이제 저곳에서 개미 한마리만 잡아도 네놈은 량반을 희롱한 죄로 릉지처참을 당할줄 알아라!》

농부는 조금도 겁내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이 도리여 태연하게 대답하였다.

《좋수다. 하지만 한마리도 잡지 못하면 어찌겠소?》

《그때에는 네 말대로 이 량반이 풀벌레나 개미만도 못하다고 하지.》

량반은 곧 하인들에게 왕릉주변에서 풀벌레와 개미를 한줌씩 잡아오라고 호통쳤다.

하인들은 한참동안이나 무덤주변을 돌고돌았으나 한마리도 잡지 못하고 맥이 빠져 후줄근해 돌아왔다.

《이 시라소니같으니라구. 산판에서 풀벌레와 개미를 한마리도 못잡는단 말이야.》

약이 오른 량반은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풀숲을 헤치고 솔잎무지를 파면서 헤덤벼쳤다. 상투가 다 풀리고 흰 도포자락이 째지고 흙탕에 얼룩지도록 비지땀을 흘리며 찾고찾았으나 단 한마리의 풀벌레나 개미도 볼수 없었다.

《이거 참 신비한 일이로다.》

지치고 지친 량반은 땅에 풀썩 주저앉으며 탄식하였다.

《신비하긴 뭐가 신비하단 말이시우. 례절바른 풀벌레나 개미들이 감히 범접하지 못했기때문이요.》

량반은 농부의 이 말에 아무 대답도 못하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줄행랑을 놓았다.

하인들이 말을 끌고 그뒤를 바삐 따라가는것이 가관이였다.

이런 소문이 퍼지자 량반들속에서 동명왕릉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게 되였고 나중에는 나라에서 릉을 돌볼 관리까지 임명하여 보냈으며 명절마다 다시 제사를 지내게 되였다고 한다.

오늘도 동명왕릉주변에는 풀벌레와 개미들이 끼지 않고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고구려가 수도를 평양에 옮기면서 동명왕릉도 동시에 옮겼는데 이때 평양사람들은 시조왕릉을 더 잘 보존하기 위하여 주변의 흙을 파내고 다른 깨끗한 흙을 시루에 쪄서 펴고 개미와 잡벌레들이 끼지 못하게 하는 독풀을 심었다고 한다.

대성산의 고분을 지키는 뱀

옛날 대성산근방에 욕심 많은 한 부자가 살고있었다.

그는 어찌나 욕심이 많은지 자기 집재산을 불구는 일이라면 어떤 일도 서슴없이 하였다.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던 그는 나중에는 고구려고분에 묻혀있다는 보물을 훔쳐낼 생각까지 하게 되였다.

고분의 보물을 훔치면 귀신의 벌을 받아 온 가족이 멸살된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욕심 사나운 그는 그런것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어느날 그는 하인 몇명을 데리고 고구려고분들이 널려있는 언덕우로 올라갔다.

이 무덤 저 무덤을 두루 살피며 돌아가던 그는 소나무가 우거진 언덕끝에 외따로 떨어져있는 한 고분으로 다가갔다.

이 고분이 몰래 파기엔 맞춤하다고 생각되였기때문이다.

그는 해가 기울기를 기다렸다가 하인들을 시켜 고분을 파기 시작하였다.

얼마동안 파니 고분의 남쪽방향에서 큰 돌문이 나타났다.

부자는 하인들과 함께 돌문을 열고 고분의 입구로 들어갔다.

고분안에는 돌로 쌓아 만든 2개의 방이 있었다.

부자는 초불을 켜서 사방을 둘러보다가 황홀함을 금치 못해하였다.

물기가 어려있는 벽면에는 오색찬란한 그림들이 그려져있는데 아름다운 녀인들이 구름을 타고 오르내리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장부들이 말을 타고 무술겨루기를 하는 모습도 보였고 명절놀이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눈에 띄였다.

무서움도 잊고 한동안 황홀경에 잠겨 구경을 하던 부자는 보물생각이 나서 고분안을 뒤지기 시작하였다.

한아름 넘는 상자 하나를 발견하였다.

부자는 하인을 물리치고 상자의 웃뚜껑을 찾아 가만히 열고 초불을 비쳐보았다.

순간 부자는 기쁨에 겨워 눈이 휘둥그래졌다.

상자안에는 금빛 찬란한 2자루의 큰 보검이 놓여있었고 그 사이에는 진주보석들이 가득 들어있었다.

부자는 보검이 들어있는 상자를 누구에게 빼앗길가 두려워 곧 뚜껑을 닫은 다음 가지고갔던 바줄로 묶어 하인들에게 지워 내왔다.

집에 돌아온 부자는 그 보물상자를 안방 깊숙한 곳에 감추어두고 누구도 얼씬하지 못하게 하였다.

(저렇게 금장식을 한 2자루의 보검만 팔면 틀림없이 평양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될게다.)

너무도 기뻐 밤을 새운 부자는 날이 밝고 해빛이 방안으로 비쳐들자 보물을 다시 보고싶어 견딜수 없었다.

그는 사방의 문을 닫아걸어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한 다음 상자를 방 한복판에 내다놓고 조용히 뚜껑을 열어보았다.

그런데 웬일인가. 상자안에서 2자루의 큰 보검밑에 깔려있던 보석타래가 움직이며 번들번들하고 팔뚝같이 굵은것이 솟구쳐오르더니 부자의 손을 칭칭 감고 그의 온몸을 무는것이였다.

놀란 부자는 팔을 휘두르며 반짝이는 보석꾸레미를 팽개치려 하였으나 그것은 떨어지지 않고 온몸을 칭칭 감아버리는것이였다.

질겁한 부자가 뒤로 나딩굴며 얼핏 보니 그것은

보석꾸레미가 아니라 여러마리의 뱀들이였다.

《으악…》

부자는 그만 기절하여 쓰러졌다.

영문을 모르고있던 가족들과 하인들이 부자의 뜻밖의 비명소리를 듣고 방문을 차고 들어가보니 방바닥에는 비늘이 번쩍이는 여러마리의 큰 뱀들이 몸을 사리고있었고 부자의 몸은 벌써 독이 올라 퍼렇게 부어있었다.

겨우 정신을 차린 부자가 헛소리마냥 중얼거렸다.

《상자를 가져가라. 제자리로 가져가라.》

하인들이 상자를 들려고 하자 몸을 사리고있던 뱀들은 모두 스스로 상자안으로 들어가버렸다.

당황한 집안사람들과 하인들은 상자를 다시 고분에다 가져다놓고 원상대로 묻어놓았다.

며칠이 지나자 부었던 부자의 온몸은 다 내리였으나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리고말았다.

부자의 장사를 지내던 날 마을사람들은 모두 혀를 찼다.

《재물에 그처럼 욕심을 부리더니 끝내 천벌을 받았지.》

《세상의 도리도 모르는 놈이였으니 조상의 벌만 아니라 천벌도 받은것이지.》

이런 소문이 널리 퍼진 다음부터는 감히 고분에 손대려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아름답기로 소문난 평양

모란봉으로 내려온 선남

금수산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인 모란봉(문봉)은 생김새가 금시 피여나려는 꽃망울처럼 아름다울뿐아니라 예로부터 소나무숲이 울창하여 절경을 이루고있는 평양의 자랑이다.

온갖 새들이 날아들어 지저귀는 우뚝 솟은 봉우리우에는 먼 옛날 선녀들만이 아니라 선남들도 자주 내려와 놀았다고 한다.

구름을 타고 최승대주변의 솔밭에 내려와 해종일 놀던 선남들은 어느때부터인가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생활이 재미나보이고 부러워 그들과 같이 어울리여 즐기는 때도 많았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날 한 선남이 모란봉기슭에 사는 농민의 딸이 알지 못할 병으로 오래동안 앓고있다는 말을 듣고 하늘나라에서 신선들이 쓰는 약을 가지고 내려와 먹이였다.

그러자 농민의 딸의 병은 씻은듯이 나았을뿐아니라 더 어여뻐지고 건강하여 농사일을 더 잘하게 되였다.

선남은 농부의 어여쁜 딸에게 마음이 끌리여 자주 찾아왔으며 어떤 때에는 며칠씩 묵으면서 그와 같이

밭도 가꾸고 경치좋은 최승대로 놀러다니기도 하였다.

이런 일이 날이 갈수록 잦아지자 옥황상제는 선남을 불러다 엄하게 꾸짖고 다시는 인간세상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아름다운 경치와 그속에서 로동을 통하여 재부를 창조해가는 인간생활이 더 보람있고 즐겁다는것을 알게 된 선남은 그대로 하늘에 갇혀있을수 없었다.

그리하여 선남은 아무도 모르게 하늘에서 내려와 모란봉기슭의 농민의 집을 찾았다.

선남은 농민에게 딸과 결혼을 하고 함께 농사를 짓게 해달라고 청하였다.

농민은 선남의 청혼을 기꺼이 수락하고 혼례식을 치르어주었다. 그리고 쪽배를 하나 주면서 대동강가의 그 어느곳이든 마음드는 곳으로 가서 둘이서 재미나게 살라고 하였다.

그들은 아름다운 대동강의 한 기슭에 자리를 잡고 농사도 짓고 고기도 낚으면서 귀여운 아들딸을 낳아 키우며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부채바위

오탄여울목이 바라보이는 평양대극장부근의 대동강기슭에 서있느라면 무더운 한여름에도 류달리 시원한감을 느낀다.

그것은 대동강물이 평양대극장부근 강안에서 다시 서남쪽으로 꺾어돌면서 강폭이 더욱 넓어진데다가 앞이 탁 트이여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기때문이다.

이곳은 여름에는 시원한 곳이지만 겨울에는 생각과는 달리 따스한 기슭으로 되고있다.

그것은 서해바다에서 훈훈한 해풍이 불어와 북쪽에서 밀려오는 대륙성추위를 몰아내주고있기때문이다.

평양의 이러한 자연현상으로 하여 평양대극장부근의 강기슭에는 부채바위라는 신기한 바위에 대한 전설이 전해오고있다.

먼 옛날 오탄기슭에 부채바위라고 부르는 큰 바위가 하나 있었다.

이 바위를 부채바위라고 부르는것은 바위를 두드리기만 하면 바위밑에서 여름엔 시원한 바람이 불어나오고 겨울에는 훈훈한 바람이 불어나왔기때문이라고 한다.

근방의 농민들은 여름철에 밭일을 하다가 무덥고 땀이 날 때면 이 바위에 올라앉아 바위를 두드려서 시원한 바람에 몸을 식히였고 추운 겨울철에 나무를 하러 다니다가 이 바위에 올라 바위를 두드려서 불어나오는 훈훈한 바람에 몸을 녹이군 하였다.

길손들도 이곳을 지나다가 바위에 올라 쉬면서 여름엔 땀을 들이였고 겨울엔 몸을 녹이군 하였다.

이와 같이 부채바위는 평양성안의 농부들과 길손들에게 있어서 보배덩이였다.

이 신비로운 바위는 평양성뿐아니라 온 나라에 소문이 퍼져 부채바위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다.

그러던 어느해 여름 평양성에 새로 부임해온 평안감사는 성안을 돌아보기 전에 신비로운 부채바위부터 찾았다.

감사는 소문대로 바위를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시원한 바람이 부는것이 신비스러워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욕심사나운 감사는 이 바위를 자기의것으로 독차지하고싶은 마음을 억제할수 없었다.

그는 이 바위에 잇대여 자기가 쓸 집을 하나 지으면 방안으로 여름엔 선선한 바람이, 겨울엔 훈훈한 바람이 불어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훌륭한 집으로 될것이라고 생각하고 곧 공사를 벌리도록 하였다.

공사를 시작하는 날 감사는 벌써 다 된 집을 보는듯이 기쁘고 흐뭇한 마음이 앞서 인부들이 기초를 닦는것을 나와 감독하며 지켜보고있었다.

그런데 웬 일인가.

인부들이 주추돌을 놓을 자리를 파느라고 부채바위 밑에 곡괭이질을 하는데 갑자기《펑》하는 소리와 함께

바위가 들썩하며 들리였다.

그리고는 바위밑에서 폭풍같은 바람이 쏟아져나오면서 돌과 흙먼지를 날리였다.

그통에 인부들은 물론 구경하던 감사도 바람에 공중 날리였다. 그리고 그 주변에 온통 컴컴한 먼지구름이 자욱히 덮이여 온종일 걷히지 않았다.

그 이튿날에야 바람이 잦고 먼지가 가시여졌는데 바위밑에는 큰 웅뎅이가 생겼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아궁만 한 구멍이 들여다보였다.

바람에 날려 허리를 다친 감사는 그날부터 하루도 관청에 나가보지 못하고 서울로 되돌아가 얼마후에는 죽고말았다.

이런 일이 있은 뒤부터 부채바위에서는 아무리 두드려도 바람이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옷을 벗기는 모퉁이

먼 옛날에 청류벽기슭을 몹시 추운 겨울날에도 웃옷을 벗고 지나가야 하는 모퉁이라고 하여 탈의우(옷을 벗기는 모퉁이)라고 불러왔다.

탈의우라고 불러오는것이 언제부터인지 알수 없으나 널리 알려지게 된것은 고구려때 평양성을 쌓은 후부터였다고 한다.

옛날 평양성을 쌓는 공사에 동원되였던 들보라는 장정이 공사를 끝내고 평양에서 얼마쯤 떨어져있는 고향으로 돌아오자 마을의 남녀로소가 쉬임없이 그의 집으로 찾아들었다.

그들은 평양성에 흥미를 가지고 평양의 지세며 새로 쌓은 성의 규모와 구조, 평양성사람들의 생활에 대하여 이모저모로 캐여물었다.

그것은 얼마 멀지 않은 곳인 평양에 큰성이 축성되고 번창하게 된것이 그들에게 더없는 기쁨이였고 또한 예로부터 나라의 흥망과 백성들의 화목이 도읍의 지세에 달려있다고 전하여오기때문이였다.

그러던 어느날 저녁 탁수라는 한 부자가 찾아와서 평양성에 대하여 자세히 물었다.

들보는 여느 사람에게 이야기하던것과 같이 그에게도 새로 쌓은 성의 구조와 규모에 대하여 말해주면서 추운 겨울에도 옷을 벗고 지나야 하는 신비로운 모퉁이도 있다고 손세를 해가며 흥미있게 설명하였다.

그러자 탁수가 하는 말이 《임자의 말은 다 그럼직하나 추운 겨울에도 옷을 벗고야 지나는 곳이 있다는 말만은 믿지 못하겠네.》라고 하였다.

《믿지 못할 말이라니요? 제가 성을 쌓으면서 그곳으로 얼마나 지나다닌줄 알기나 하시우.》

《그거야 자네들이 돌을 지고 다니느라 힘들고 무거워서 땀이 났을것이고 그래서 옷을 벗고 다닌것이지 그곳이 유별나게 더운 곳이여서 벗었겠나. 그렇지 않나?》

탁수는 자기 말이 옳다는것을 인정 받으려는듯 좌중을 돌아보며 껄껄 웃었다.

모여앉았던 사람들도 그 말이 비슷하다고 머리를 끄덕이였다.

자기 말을 믿지 않게 되여 난처하게 된 들보는 그저 그것이 사실이라고만 우기는수밖에 없었다.

그러다나니 평양성에 대한 이야기판은 들보와 탁수사이에 탈의우가 있다느니 없다느니 하는 론쟁으로 번지였다.

그러자 마실을 온 사람들은 이 문제는 평양성에 직접 가봐야 판결이 날것이라고들 하였다.

론쟁끝에 탁수는 평양성을 구경할겸 탈의우가 실지 있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겠다면서 들보더러 내기를 걸자고 하였다.

만일 들보가 이기면 부자가 한달 식량을 주고 들보가 지면 한달동안 부자집의 일을 품삯없이 해주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맵짠 추위로 대동강도 떙떙 얼어붙은 동지날에 평양성을 향해 떠났다.

가장 추운 때에 집을 떠난 그들은 털모자를 내려쓰고 두툼한 덧저고리를 입었으며 버선에 털가죽신을 받쳐 신었다.

부자는 평양성을 구경한 다음 들보의 안내를 받아 탈의우로 갔다.

대동강에 뿌리박고있는 청류벽밑으로 뻗어있는 길에 들어서던 부자는 저으기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성안으로 몰아치던 찬바람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을 찌르는듯 하던 찬기운도 가신듯 사라졌으며 몸이 훈훈해 왔다. 마치 따뜻한 아래목에 앉은듯 한 느낌이 들었다.

이런 신비로운 기후에 어리둥절해진 부자는 한참동안 좌우를 둘러보았다.

그제서야 부자는 이 신비로운 기후가 과연 근거없는 것이 아니라는것을 알게 되였다.

청류벽은 찬 북풍을 막아주고있을뿐아니라 그 형세도 반달같이 굽어있어 하늘에서 내려쪼이는 따뜻한 해볕이 그대로 대지를 덥혀주고있는것이였다.

부자는 태여나서 겨울철의 걸음도 적지 않게 걸어보았지만 이런 길을 걷기는 처음이였다.

그의 얼굴에서 땀이 돋고 몸이 후더워났다.

옆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털모자와 덧저고리를 벗어들고 지나가고있었다.

그러나 부자는 내기를 건만큼 내려쓴 털모자를 벗지 않고 덧저고리도 꽁꽁 맨 그대로 계속 걸었다.

벗지 않고는 못견딜 정도로 온몸이 덥고 답답해왔으나 끝까지 참아보려고 하였다.

몸집이 그리 좋지 못한 들보는 더위를 이길수 없어 모자와 덧저고리를 벗었으나 몸집이 비대한 부자는 여전히 얼굴에 땀을 흘리고 더위에 헐떡거리면서도 종시 털모자와 덧저고리를 벗지 않고 탈의우를 지나 산기슭까지 다달았다.

들보가 이젠 탈의우길이 끝났다고 말을 했을 때에야 부자는《후-》숨을 내쉬면서《자, 어때 내가 이겼지!》라고 헐떡이며 숨가쁘게 말을 하였다.

《네, 이겼습니다.》

이렇게 되여 들보는 고집이 세고 린색한 부자에게 진것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마을로 돌아온 들보는 내기에서 진것으로 하여 다음날부터 부자집일을 품삯없이 해주어야 하였다.

그런데 이튿날 들보가 부자집에 찾아가니 뜻밖에 부자가 자리에 누워서 앓고있어 그냥 돌아왔다.

부자는 더위를 참느라고 속탈이 생겼는지 아니면 감기에 걸려서인지 그날부터 달포가 지나도록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들보는 부자가 찾는다기에 저녁녘에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런데 그 집에서는 무슨 잔치를 하는듯 음식을 차려놓고 마을사람들을 청해들이고있었다.

모여든 사람들은 영문을 몰라 웅성거렸다.

그들은 평양성에 갔다와서 달포나마 앓던 부자가 내기에서 이긴것이 기뻐서인지 아니면 머리가 좀 돈것이 아닌지 모를 일이라고 하면서 수군거리였다.

이런 분위기를 눈치챈 부자는 헛기침을 두어번 하고나서 이렇게 말을 꺼냈다.

《내 이번에 저 들보와 함께 평양성을 돌아보니 과연 듣던바 그대로 지세가 신명한 곳이요. 탈의우만 보더라도 평양성이 바로 우리 나라에서 해가 제일 가까운 나라의 중심지라는것을 알수 있었소. 이런 평양이 우리 나라의 도읍지로 된것은 나라가 흥하고 만백성이 태평을 누리게 될 징조이니 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기쁜 일이요. 내 이번 걸음에 느낀바도 컸거니와 실상은 내기에서 저 들보가 이긴것이 분명하므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청한것이올시다.》

그제야 손님들은 그의 마음을 알겠다는듯이 머리를 끄덕이였다.

《평양이 대단하긴 대단한 모양이요. 저런 고집쟁이

탁수가 한턱 내니 말이요.》

이런 소문까지 고을안에 파다하게 퍼져 평양의 탈의우는 더 유명해졌다고 한다.

대성산성 남문의 꽃발

력사기록에 전하는것은 없으나 전설에 의하면 한때 고구려에는 외교의 능수로서 김괴라는 사람이 있었다.

고구려의 북방은 여러 나라들과 잇닿아있었으므로 외적의 침입을 자주 받거나 충돌사건이 자주 일어나군 하였다.

그때마다 김괴가 나서면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문제도 순조롭게 풀리군 하였다.

그러므로 김괴는 외교에 능한 관리로 일찍부터 이름을 날리게 되였다.

이러한 김괴가 늙어가게 되자 고구려에서는 그의 뒤를 잇게 하기 위하여 한 젊은 관리를 선발하여 그에게 붙여 그의 능란한 외교적수완을 배우게 하였다.

그날부터 젊은 관리는 김괴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의 일거일동을 주의깊게 살피며 뛰여난 외교적수완을 배우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따라다니며 살펴보아도 그에게서 남들보다 특별한 외교적수완이란 찾아볼수가 없었다.

풍채가 우람하거나 위엄스러운 점도 없어 어디서나 볼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과 같았으며 인상이 무섭거나 날카로운 점도 없어 언제나 인정 많은 이웃집의 수수한 로인과 다름이 없었다.

그렇다고 하여 다른 나라 사신들과 대결하기 위해 사전에 외교방향이나 사리정연한 말귀를 고르느라고 밤을 밝히는적도 없었다.

그런데도 일단 다른 나라 사신들과 만나 론쟁이 벌어질 때에는 그의 얼굴에 엄하고 노한 기색이 비끼기도 하고 너그러운 빛이 흘러넘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앞에서는 다른 나라 사신들이 꼼짝달싹 못하고 굽어들군 하였다.

오직 그가 여느 관리들에 비해 다른 점이 있다면 꽃을 몹시 사랑하는것뿐이였다.

다른 나라에 사신으로 오가는 관리들은 수레마다에 물건짝들을 가득히 싣고 돌아와 자기 집재산을 불쿠고 친척, 친우에게 선물을 주기도 하였으나 김괴의 짐이란 한두포기의 꽃나무뿐이였는데 그는 그것을 자기 집이나 자기 관청도 아닌 대성산성 남문둘레에다 심군 하였다.

그가운데는 뿌리를 박지 못하고 죽는것도 있었으나 거의다 잘 자라 해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성문두리의 풍치를 돋구어주었다.

일부 관리들은 김괴가 나라의 이름있는 사신답지 않게 녀인들처럼 꽃을 보고 오금을 못쓴다고 그를 비난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김괴가 넓은 성문앞의 공지에다 꽃을 심는것을 보던 젊은 관리는 그에게 한마디 물었다.

《무슨 덕을 보려고 그런 수고를 하시나이까?》

《무슨 덕을 바래서 이러겠나. 그저 다른 고장에 있는 꽃이 우리 성에 없다고 생각하면 어쩐지 마음이 편안치 않아서 그러지.》

《마음이 편치 않으시다구요?》

《그래, 우리 평양성이 꽃 한떨기라도 다른 나라의 도읍보다 적거나 못하여 뒤지게 하고싶지 않거든…》

생각이 짧은 젊은 관리는 그의 이런 말을 듣고 그가 괴이한 취미를 가지고있는것으로 치부하고 스쳐지났다.

젊은 관리가 김괴한테서 특별한 외교적수완을 배우지 못한채 세월만 흘러 안타까와하던중에 그만 김괴가 세상을 떠났다.

김괴의 령구는 그의 소원대로 남문앞 언덕우에 묻었다.

그뒤 얼마 안있어 북방변경에서 또 말썽이 생겼다.

나라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젊은 관리를 사신으로 그곳에 파견하였다.

그가 떠나는 날 임금은 이렇게 말하였다.

《그동안 김괴의 외교적수완을 충분히 배웠을테니

이번 일에서 그와 같이 외교적문제를 유감없이 잘 처리하고 돌아오길 바란다.》

이 말에 젊은 관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했으면 좋을지 몰랐다.

하지만 임금의 앞이라 변명은 할수 없었으므로 그저 일을 잘 처리하고 돌아오겠노라고 다짐을 하고 떠났다.

어떻게 하면 김괴처럼 대방의 사신들을 쥐락펴락할것인가고 모대길수록 젊은 관리는 그에 대한 그리움을 금할수 없었다.

그런 그리움속에서 대방의 나라 사신을 만나야 할 전날 밤이였다.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새록새록하여지는 눈앞에는 자기를 전송해주듯이 유정하게 피여있던 대성산성 남문앞의 갖가지 아름다운 꽃들이 안겨왔고 그 꽃들을 심으며 하던 김괴의 말이 새삼스럽게 울려왔다.

《… 우리 평양성의 꽃 한떨기라도 다른 나라의 도읍보다 적거나 못하여 뒤지게 하고싶지 않거든…》

이 말을 되뇌이던 젊은 관리는 무릎을 치면서 일어났다.

《바로 그 마음이였구나! 평양성이 다른 나라 도읍보다 뒤지게 하고싶지 않은 마음! 우리 나라가 어떤 나라에 업심을 받거나 모욕을 당하게 할수 없다는 그

마음, 바로 그 마음이 김괴의 능한 외교적수완의 비결이 아니였던가?》

젊은 외교관은 뜨거워오르는 마음을 안고 방안을 거닐며 이렇게 혼자소리로 웨쳤다.

다음날 그는 고구려와 평양에 대한 불보다 뜨거운 사랑을 안고 이웃나라의 사신을 만나자 바람으로 국경에서 자주 분쟁을 일으키는 상대측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들이대였다.

대방의 사신은 변명해보려고 두어마디 얼버무리다가 말문이 막혀 곧 잘못했노라고 하면서 다시는 변경에서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빌었다.

변경에서 벌어졌던 이웃나라와의 담판에서 고구려의 젊은 관리가 승리했다는 소식을 받은 임금은 그가 돌아오자 높이 평가해주었다.

《과시 그대야말로 우리 고구려의 자랑이였던 김괴의 외교적수완을 그대로 이어받은 능숙한 사신이로다.》

그러자 젊은 관리는 머리를 들고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아뢰기 황송하오나 소인은 스승인 김괴의 외교적수완을 배운것이 아니라 나라와 평양성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스승의 마음을 배웠나이다.》

그러면서 젊은이는 김괴가 사신으로 일하는 동안 외국에 드나드는 수많은 나날에 어떤 특산물이나 값진

물건을 들고 다닌적이 전혀 없고 외국의 길가와 산기슭에서 평양성에 없는 꽃을 구해다가 대성산성남문앞 공지에다 심은 이야기를 하였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난 임금과 관리들은 그제야 김괴의 능한 외교적수완의 비결을 알았다는듯이 이구동성으로 감탄하며 말하였다.

《그의 림기응변의 외교적수완은 지략이나 언변술에 있는것이 아니라 나라와 도읍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있었구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평양성안팎의 인민들은 김괴가 생전에 애국의 넋을 담아 남문공지에 심었던 꽃들을 더욱 정성스럽게 가꾸었으며 그가운데서도 제일 잘 자라던 달맞이꽃을 그의 묘에다 가득 심어 만발하게 하였다.

이리하여 대성산기슭에 달맞이꽃이 번성하게 되였고 외교적문제로 다른 나라에 가는 사신들은 물론 외적과 싸우러 대성산성을 떠나는 장수와 군사들은 대성산에 만발한 꽃과 그에 깃든 이야기를 가슴에 새기고 원쑤들과의 싸움에서 언제나 나라의 명예와 존엄을 빛내여왔다고 한다.

매화꽃을 지킨 처녀

경상골마을에 려옥이라는 마음씨 고운 처녀가 홀아버지를 모시고 살고있었다.

려옥은 꽃을 매우 사랑하였는데 그중에서도 매화꽃을 제일 좋아하였다.

부녀가 집주변에 갖가지 아름다운 꽃들을 떠옮기고 철따라 거름도 주고 김도 매여 꽃계절이 되면 자그마한 초가집은 온통 꽃속에 묻히군 하였다.

얼마후에는 려옥의 집뿐아니라 온 모란봉과 평양성의 곳곳이 꽃으로 뒤덮이게 되였다.

그러던 어느해 관가에서는 온 나라의 산들과 집집에 심은 매화꽃들을 모조리 찍어버리고 앞으로는 백성들이 절대로 매화꽃을 심지 말라는 령을 내렸다.

그 리유인즉 매화꽃의 생김이 왕실의 상징으로 숭상하는 꽃무늬와 비슷하기때문에 평민들이 사는 곳에 매화꽃이 피여있는것은 임금과 평민사이의 신분적구별을 무시하는것으로서 무엄하기 그지없는 일이라는것이였다.

그리하여 나라의 방방곡곡에서는 매화꽃나무를 모조리 찍어버리는 전례없는 소동이 일어났다.

평양에서도 아전들과 포교들이 낫과 도끼를 들고 밀려다니며 매화꽃나무를 모조리 찍어버리기 시작하였다.

한그루의 매화나무라도 남겨둔것이 있기만 하면 집주인에게 곤장을 안기고 벌금을 물리는 등 갖은 행패를 다하였다.

량반귀족놈들의 얼토당토않은 생억지로 온 평양성안에서는 매화꽃을 짓뭉개버리는 망동이 벌어졌고 수려한 평양산천은 큰 상처를 입게 되였다.

소담하고 정결한 아름다운 매화꽃나무가 이 평양성에서 사라져가는것을 제일 아픈 마음으로 지켜본것은 려옥과 그의 아버지였다.

(관가에서 하는짓을 그냥 보고만 있다간 평양에 매화의 씨종자가 다 마르겠구나.)

려옥의 가슴은 칼로 도려내는듯이 쓰리고 아팠다.

놈들이 하는짓을 더는 지켜보기만 할수는 없다고 생각한 어린 처녀는 아버지와 의논을 하고 매화나무 한그루를 몰래 뒤울안에 깊숙이 옮겨 심었다.

꽃나무를 옮겨 심은지 며칠이 지나서 려옥이네 집에도 관속들이 들이닥쳤다. 뜨락의 꽃밭을 뭉개놓으며 돌아가던 관속들은 끝내 뒤울안에 깊숙이 옮겨 심은 매화나무를 찾아내고야말았다.

《네 이놈, 임금의 령을 거역하고도 무사할줄 아느냐. 곤장 쉰대를 맞지 않겠으면 당장 네 손으로 찍어버려라!》

놈들은 살기등등하여 아버지에게 형장을 안길 잡도리를 하였다.

순간 려옥의 아버지는 방안에서 슬피 울고있을 딸애가 애처롭게 생각되였다.

(내가 매화나무를 찍는것은 내 딸의 몸을 찍는것이나 다름없지.)

려옥의 아버지는 감았던 눈을 뜨면서 침착한 어조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여쭙기 무엄하오나 이 나무는 매화가 아니라 살구나무올시다. 소인은 나리님들이 잘못 보셨다고 생각하옵니다.》

관속들은 그만 어리둥절하여 서로 얼굴만 마주 보았다.

그도 그럴것이 남의 재산을 빼앗아내고 애매한 백성들을 못살게 구는 일이라면 모두가 한다하는 놈들이였지만 꽃나무에 대해서는 아는것이 전혀 없었던것이다.

하긴 여러해를 산 매화나무는 어딘지 살구나무와 비슷한데가 있었고 또 눈속에 묻혀있었으므로 자세히 보지 않으면 갈라보기가 힘들었다.

한참만에 한놈이 륙모방망이를 흔들며 물었다.

《이놈, 그래 이게 살구나무라는것을 무엇으로 증명할테냐?!》

방안에서 간이 콩알만 하여 안절부절을 못하고있던 려옥은 이 말을 듣고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아버지대신 야무지게 대답했다.

《그거야 봄에 가보면 알게 아니오이까. 매화꽃은 희고 살구꽃은 연분홍이니 그때 가면 자연히 알게 될것이오이다.》

려옥의 말에 말문이 막힌 놈들은 약이 바싹 올랐다.

《좋다. 봄에 와서 보고 흰 꽃이 피면 네년과 네 애비를 릉지처참할테니 그리 알어라.》

관속들이 물러가자 려옥은 어깨를 떨며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아버지는 흐느끼는 딸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하였다.

《네가 기특하구나. 꽃을 사랑하는 네 마음에 하늘도 무심치 않을게다.》

어느덧 겨울은 가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다.

파란 하늘에서 뭇새들이 재잘거리고 시내물이 졸졸 흐르자 꽃나무가지들에서는 파르스름한 연록색싹이 뾰족뾰족 나오기 시작하였다.

봄날은 흘러 어느덧 매화나무가지에 꽃망울이 부풀어올랐다.

려옥은 눈앞이 아뜩하였다.

그는 날마다 뒤울안으로 달려나가 매화나무가지를 부여안고 목놓아울었다.

《매화꽃나무야, 너는 내 마음을 아느냐. 흰꽃이 분홍꽃으로 될수는 없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물론 우리 아버지와 나도 다 영영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단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드디여 매화꽃망울이 활짝 피여났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

매화꽃이 흰빛이 아니라 아름다운 분홍색으로 변하여 핀것이 아닌가! 꿈인가 생시인가?

려옥은 너무도 기뻐 소리쳤다.

《아버지, 매화꽃이 분홍색으로 폈어요.》

아버지도 기뻐서 어쩔줄 몰라하였다.

《정말 살구꽃모양으로 피였구나!》

이날 아침 잊지 않고 들이닥친 관속들은 분홍색매화꽃을 보고 쓴입만 다시며 돌아가고말았다.

《아버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가요?》

《옛말에 정성이면 돌우에도 꽃이 핀다 하였으니 꽃을 아끼고 사랑하는 네 마음과 지성을 아마 하늘이 알아준게로구나.》

이리하여 려옥은 그날부터 더욱더 정성을 다해 매화꽃나무를 가꾸었으며 해마다 종자와 뿌리를 갈라 집주

변에는 물론 모란봉의 곳곳에 심었다.

지금 모란봉에 있는 매화꽃나무는 그때 려옥이가 지켜낸 나무에서 퍼진것이라고 한다.

대동강의 닻

옛날에는 서해바다의 밀물과 썰물의 영향으로 대동강물은 불어나기도 하고 줄기도 하면서 길들이지 못한 짐승같이 평양사람들에게 불행을 가져다주는 때가 많았다.

장마철에 불어난 강물이 밀물과 겹치면 뻘건 홍수는 걷잡을수 없이 강뚝을 넘쳐나 평양성을 순간에 삼켜버리였다.

지난날 대동강의 이런 변덕으로 하여 많은 전설들이 남게 되였다.

대동강의 닻에 대한 전설도 그중의 하나이다.

먼 옛날부터 평양성을 한척의 배와 같다고 보아왔다.

그것은 우선 성의 남북길이가 길고 동서의 너비가 좁아서 마치 배처럼 생긴데다가 북쪽엔 합장강이, 동남쪽엔 대동강이 성벽을 감돌아흐르고 서쪽엔 보통강이 성벽을 따라 흐르며 남쪽에서 대동강과 합류하므로 평양성은 말대로 물우에 떠있는 배처럼 보였기때문이다.

그리하여 언제부터인지 모르나 평양사람들은 배와 같은 평양성이 바다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큰 닻을 만들

어 대동강물속에 잠그군 하였다고 한다.

이 닻이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진것은 왜놈들이 평양성을 일시적으로 강점했던 임진조국전쟁때라고 한다.

이때 평양성에 기여들었던 왜장과 왜병들은 아군의 청야전술로 첫날부터 굶주림에 허덕이면서 먹을것을 찾아 성안의 구석구석을 들추며 돌아쳤다.

평양성사람들이 피난을 가면서 성안에 한알의 쌀, 한방울의 간장도 남겨두지 않았기때문이였다.

미친개처럼 싸다니며 헤매이던 놈들은 하는수없이 대동강의 물고기를 잡아먹기로 하였다.

왜놈들은 곧 성안의 고기배들을 모조리 거두어 대동강에 띄우고 몽땅 떨쳐나서 고기잡이를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왜놈들은 대동강의 깊은 물속에서 커다란 닻을 발견하고 건지였다.

그 닻은 왜놈들도 처음 보는 굉장히 큰것으로서 높이가 20여자나 되였고 굵기는 둘레가 1자가량 되였으며 형태는 밑이 세가닥으로 되였는데 우에는 둥근고리가 달려있었다.

놈들은 천하의 희귀한 보물을 발견했다고 환성을 올리며 성안으로 들여왔다.

피난을 가지 못하고 성안에 남아있던 로인들과 아이

들은 이 소식을 듣고 손에 잡히는대로 쟁기들을 들고 왜놈들의 병영으로 달려가 닻을 당장 제자리에 가져다 잠그어놓으라고 들이대였다.

군중은 왜놈들에게 벽력같이 소리치며 《너희들은 지금 무슨 큰일을 저질렀는지 아는가. 이 닻을 당장 제자리에 잠그어놓으라! 그렇지 않으면 평양성이 물에 잠기여버리거나 바다로 떠내려가고말것이다. 그래 모두 물귀신이 되고싶으냐?》라고 하였다.

왜놈들은 인민들의 항의에 어리둥절하여 쩔쩔매다가 평양성의 닻에 대한 유래를 알고 대동강의 제자리에 다시 가져다 잠그어놓았다고 한다.

청류벽

청류벽은 부벽루가 있는 바위벼랑으로서 오랜 옛날에 갑자기 생겨났다고 하며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지고있다.

대동강가의 어느 한 마을에 설씨성을 가진 착하고 부지런한 농부가 살고있었는데 그는 홍수때마다 대동강이 범람하여 마을을 삼켜버리군 하는것을 놓고 누구보다 근심을 하고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또 큰 홍수가 났는데 그때 강물에 밀려나온 잉어가 한마리 있었다.

농부는 잉어를 잡아 대동강물에 넣어주었다.

그후 농부가 무너진 집을 대충 손질하고 막을 치고 자는데 한밤중에 자기를 찾는 소리가 여러번 들리여 깨여나보니 웬 아이가 와서 서있었다.

어리둥절하여 눈만 껌벅거리는 농부에게 아이는 말을 먼저 걸면서 우리 룡왕이 농부를 찾는데 어서 가자고 하였다.

농부는 영문도 모르고 아이를 따라갔는데 대동강물이 갈라지면서 큰길이 나지더니 앞에 룡궁이 나타났다.

아이와 함께 룡궁으로 들어가니 큰 연회준비를 갖추고 룡왕이 자기를 기다리고있었다.

룡왕은 농부를 반갑게 맞아주며 자기 아이를 살려준 은인이니 어떤 소원이라도 다 들어주겠다는것이였다.

그래서 농부는 우리 마을이 홍수때마다 대동강의 범람으로 피해가 막심하다는것을 말하였다.

룡왕은 알았다고 하면서 농부를 잘 대접하여 마을로 돌려보냈다.

농부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난데없이 폭우가 쏟아지고 우뢰가 울더니 갑자기 병풍바위가 생겨나며 강물이 막아졌다.

그때 생겨난 바위가 바로 청류벽이라고 전해오고있다.

평양인민들의 반침략, 반봉건투쟁

붉어진 평양성돌

을밀대에서 왼쪽으로 내려서면 고구려때에 쌓은 평양성의 성벽이 그대로 남아있는것을 볼수 있다.

고구려시기인 6세기 후반기(552～586년)에 평양성 인민들은 무려 50여리의 성을 쌓았다.

성벽은 을밀대에서 청류벽우를 거쳐 대동강기슭을 따라 쌓아내려가서 평천구역에 이르러 강변을 싸고돌아 다시 대동강과 합수되는 보통강을 옆에 끼고 올라가다가 보통문을 지나서 만수대로부터 을밀대에 이르는 등말기로 뻗어있었다.

성은 지면을 깊이 파고 진흙과 돌을 한돌기씩 엇바꾸어 깔아 기초를 든든히 하고 그우에 성벽을 쌓았다.

중요한 구간의 성벽은 잘 다듬은 돌로 쌓았고 그밖의 구간은 돌과 흙을 섞어 쌓았다.

성을 쌓을 때 쓴 흙은 모두 가마에서 쪘기때문에 성밑바닥의 흙은 지금도 도끼로 찍어야 겨우 파제낄만치 단단하게 붙어있다.

실로 고구려시기에 쌓은 이 성에는 평양인민들의 애국의 뜨거운 넋이 깃들어있으며 피타는 노력이 스며있다.

평양성을 쌓을 때 인민들은 여기에 드는 성돌을 주변의 먼 곳에서 캐여 인력으로 날라왔다.

그것은 풍수설에 따라 평양이 우리 나라 지맥의 근본이므로 그 지맥이 상할가 념려되였기때문이다.

평양성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어느 한 산골짜기에는 돌이 많았는데 나라에서는 여기에 채석장을 꾸리고 성돌로 쓸 돌들을 많이 캐내였다.

새벽부터 밤까지 이 골짜기에는 수백명의 장정들과 늙은이, 녀인들이 모여들어 돌을 캐느라고 법석들끓었다.

남정들은 큰돌을 뜨고 녀인들과 늙은이들은 떠놓은 성돌의 결을 따라 돌을 다듬었다.

그들은 평양에 쌓을 성돌에 금이 가거나 모서리가 떨어질세라 온갖 정성을 다 바쳤다.

당시 왕에게 올린 상소문에는 성돌을 캐는 장정들과 녀자들과 늙은이, 아이들이 길과 골짜기를 꽉 메웠고 마소들은 지쳐서 더 끌수 없었으며 망치와 정을 든 그들의 얼굴은 온통 누렇게 떴다고 씌여있었다.

이렇게 힘겹게 마련해놓은 돌을 다시 큰길까지 끌어내야 하였고 그다음에는 쓸만한가를 관리들이 내려와 감독한 다음에야 평양으로 운반하도록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궁궐에서 내려온 감독관이 성돌들을

훑어보더니 돌을 너무 크게 떴다고 퇴를 놓는것이였다.

그러니 애써 떠놓은 성돌은 쓰지 못하게 되였다.

장정들은 그날부터 자리를 뜰념을 못하였다.

자기들의 피땀과 정성이 고인 성돌을 평양성에 보내지 못한 자책감으로 하여 모두 얼굴이 붉어졌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퇴맞은 성돌들이 점차 붉은색을 띠기 시작한것이다.

평양성을 쌓을 때 성돌을 캐던 골짜기에는 그후에도 붉어진 성돌이 그대로 남아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평양성은 고구려사람들의 힘겨운 로동에 의해 쌓아졌으며 나라를 지키는데서 큰 의의를 가지는 평양성 축성에서 그들은 애국적열성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을밀장군과 을밀대

을밀대는 고구려가 평양성을 쌓을 때 북장대(지휘처)로 세운것이다.

이곳에는 을밀장수에 대한 전설이 깃들어있다.

먼 옛날 모란봉기슭에 을밀이라는 장수가 살고있었다.

을밀장수는 땅이 기름지고 경치가 아름다운 평양을 호시탐탐 노리며 달려들군 하는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싸움에서 언제나 커다란 군공을 세워 평양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아왔다.

세월은 흘러 동방천지를 주름잡아 달리던 을밀장수의 머리에도 어느덧 흰 서리가 내리게 되자 그는 자기 아들인 나래를 비롯하여 젊은이들에게 무술을 배워주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일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이리하여 을밀장수는 어느날 평양성사람들과 의논한 끝에 삼년석달을 기한으로 젊은이들을 먼 산중에 있는 늙은 장수한테로 보내여 무술을 익혀오도록 하였다.

나래는 아버지곁을 떠나면서 사랑하는 처녀인 고비에게 부디 자기 아버지를 잘 돌봐줄것을 부탁하였다.

나래가 평양성을 떠나간지 두해가 지난 어느날 뜻밖에 외래침략자들이 밀려들었다.

을밀장수는 이미 황혼기에 들어섰으므로 몸이 그전같이 말을 잘 듣지 않았으나 곧 군사들을 지휘하여 성을 지키는 싸움에 분연히 떨쳐나섰다. 싸움은 몹시 힘겨웠다.

이때 을밀장수곁에서 남복을 하고 싸우던 고비는 안타까와 아이들마냥 발을 동동 구르며 무술을 익히러간 젊은이들을 불러오자고 거듭 간청하였다.

형세가 험악해지자 다른 사람들도 그런 의향을 말하였다.

을밀장수는 한동안 깊이 생각하고나서《우리가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자고 큰뜻을 버려야 하겠느냐. 자기의

한목숨보다 나라와 백성을 귀중히 여기는것이 우리 고구려사람들의 마음이다. 나라와 후대의 안녕을 바라는 사람은 나를 따라 나서라!》라고 하였다.

을밀장수는 비록 늙은 몸이였으나 장검을 뽑아들고 말에 올라 대오를 이끌고 적진으로 달려가 외적들을 삼대베듯이 쓸어눕혔다.

평양성사람들은 을밀장수의 기개에 감동되여 모두가 떨쳐나서 외래침략자들을 맞받아 싸웠다.

그런데 을밀장수가 그만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게 되였다.

렴탐군을 통하여 을밀장수가 병석에 누웠다는것을 알게 된 외적들은 이 기회를 놓칠세라 대오를 수습하여 다시 평양성으로 달려들었다.

평양성사람들은 봉화대에 불을 지르는 한편 이 소식을 을밀장수에게도 전하였다.

을밀장수는 적정에 대한 보고를 받자 자리에서 결연히 일어나 투구와 갑옷을 갖추고 가마에 실려 모란봉에 있는 지휘처로 올라갔다. 장수는 모란봉의 산세를 리용하여 군사를 배치하고 결사전을 벌릴것을 명령하였다.

이때 평양성안의 남녀로소는 모두 떨쳐나서 활을 쏘고 바위를 굴리며 조금도 굴함없이 싸웠다.

뜻밖에도 평양사람들의 기세가 높고 장대에 을밀장

수가 다시 나타난것을 알게 된 외적들은 기가 꺾이였으나 평양을 기어이 점령해보려고 발악하였다.

치렬한 싸움은 모란봉골짜기들과 보통벌에서도 계속되였다.

어느날 장수는 가마에 앉아 고비를 데리고 전장을 살피며 돌고있었다. 그러다가 천만뜻밖에 지휘처근방에 몰래 기여들어 복병을 하고있던 적들의 칼에 치명상을 입고 쓰러졌다.

군사들과 고비가 앞뒤로 달려드는 놈들을 무찔러버렸으나 장수는 쓰러진채 그만 의식을 잃었다.

뒤미처 달려온 사람들이 을밀장수를 애타게 불렀으나 대답이 없었다.

이런 위급한 정황에서 고비는 무술을 닦으러 간 젊은이들을 찾아가지 않을수 없었다.

고비가 밤낮으로 말을 달려 무술터에 이르렀을 때 젊은이들은 스승앞에서 마지막시험을 치르고있었다.

평양사람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땀을 많이 흘려 열성껏 무술을 익힌 젊은이들은 모두가 한사람같이 상으로 통과되여 늙은 스승을 기쁘게 하였다.

무술터에 기쁨의 환성이 오르던 그 시각에 숨가삐 다달은 고비는 긴박한 평양소식을 전하고는 정신을 잃었다.

급보를 받은 나래를 비롯한 평양젊은이들은 갑옷을 입은 그대로 말을 달려 평양으로 달려왔다.

다음날 새벽에 평양에 이르러 장수지휘처를 바라보는 젊은이들은 한결 마음이 놓이였다.

외적들은 아직 물러가지 않았으나 장수지휘처에는 장수기가 나붓기고 창검이 번뜩이였다.

《고비, 을밀장수가 살아계시오. 저 기발을 보오!》

용기백배한 나래는 젊은이들과 함께 적들을 쓸어눕혔다.

외적을 완전히 격퇴한 나래와 젊은이들은 승리의 북소리 울리며 모란봉으로 올랐다.

지휘처에 이른 그들은 을밀장수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우리들은 평양성사람들의 소원대로 뜻을 성취하고 돌아왔소이다.》

이렇게 말한 나래는 아버지의 대답을 기다렸으나 아무 말도 없었다.

나래와 젊은이들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 얼굴을 들어 장수를 올려다보았다.

피기없는 얼굴과 감고있는 눈, 을밀장수는 이미 이 세상사람이 아니였다.

나래와 젊은이들은 너무 놀라와 한동안 넋을 잃고 장수를 바라보았다.

이때 한 로인이 나서서 울음을 삼키며 말하였다.

《을밀장수는 이미 이틀전에 돌아가셨소. 하지만 장수는 오랑캐들이 물러갈 때까지는 자신을 여기에 세워달라고 유언하셨소.…》

로인은 흐느끼며 더 말을 잇지 못하였다.

《아버님!》

젊은이들과 평양성사람들은 목메여 을밀장수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뜻을 꼭 이어가리라 굳게 맹세하였다.

그때로부터 평양성에는 수백수천의《을밀장수》가 자라나 성을 지켰기때문에 그 어떤 침략자들도 감히 범접하지 못하였다.

평양사람들은 을밀장수의 위훈을 후세에 길이 전하기 위해 그가 지휘처로 정하였던 곳에 정자를 세우고 을밀대라고 이름 지었다고 한다.

우릉과 소비

대성산성은 고구려의 옛성으로서 여기에는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수많은 이야기가 전해오고있다.

우릉과 소비전설도 그러한 이야기중의 하나이다.

대성산성은 골짜기가 깊고 산림이 무성할뿐아니라 산세가 아름다우며 각종 산짐승들이 많이 살고있는

곳이여서 평양사람들은 예로부터 이곳에 들어와 즐겨 무술을 닦았다고 한다.

옛날 평양의 어느 한 마을에 우릉이라는 총각이 살고있었다.

어느해 봄 나라를 지킬 굳은 결심을 다진 우릉은 무술을 닦기 위하여 조상때부터 대대로 가보로 물려오던 장검을 차고 대성산무술터를 찾아 집을 떠나게 되였다.

우릉이 말을 타고 성안을 나서려 할 때였다.

한 처녀가 길을 건느려다가 말을 타고 오는 우릉을 보고 옆으로 비껴서서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순간 우릉은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가슴이 후두둑 뛰는것을 느꼈다. 이처럼 아릿다운 처녀를 처음 보았기때문이였다.

처녀앞을 스쳐지난 우릉이 얼마쯤 가다가 말에서 내리여 사뿐사뿐 걸어가는 처녀의 뒤모습을 한동안 여겨보니 그의 손에는 그림그리는 붓 몇자루가 들려있었다.

그러나 우릉은 처녀에 대한 지꿎은 생각을 털어버리고 다시 말잔등에 훌쩍 뛰여올라 대성산을 향해 달리였다.

대성산무술터로 들어온지 수십일이 지나갔어도 우릉은 그 처녀에 대한 생각을 잊을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우릉이 말을 타고 산발을 오르내리다가 어느 한 절벽밑을 지날 때였다.

절벽을 감돌아흐르는 작은 시내가에 웬 처녀가 병풍같은 그림판을 세워놓고 그림을 그리고있었다.

때는 화창한 봄날이라 산천은 푸르고 아름다운 갖가지 꽃들이 진한 향기를 풍기며 피고있는데 그속에서 깊은 사색에 잠기여 백학의 흰 날개와도 같은 팔소매를 가벼이 흐느적이며 그림을 그리는 처녀는 이 세상에 사는 범상한 인간같지 않았다.

의혹과 호기심이 동하여 우릉은 조용히 그앞으로 말을 몰아갔다.

그러자 그림을 그리던 처녀는 놀라 머리를 돌려 불현듯 나타난 우릉을 올려다보았다. 순간 처녀의 눈길과 마주친 우릉의 가슴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솟구쳐올랐다.

처녀는 우릉이 대성산무술터로 떠나올 때 길가에서 만났던 그 처녀였다.

처녀도 낯이 익다는듯이 상긋이 웃음을 지으며 말없이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는것이였다.

우릉은 이 기회를 놓칠세라 먼저 처녀에게 어디에 사는 누구이며 어떻게 되여 이곳까지 왔는가고 물었다.

처녀는 우릉의 물음에 다정하게 대답하였다.

그는 평양의 어느 한 농가에서 살고있는데 이름은 소비였다.

소비는 늙은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어렸을 때 외적을 물리치는 싸움에서 그만 전사하였다.

그가 철이 들자 어머니는 딸에게 대성산에 들어가 무술을 닦아 앞으로 아버지의 원쑤를 꼭 갚으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대성산에 들어오게 되였는데 그에게 무술을 가르치는 스승이 먼저 그림을 그리는 법부터 배우라고 하였으므로 매일 짐승들이 물먹으러 내려오는 절벽아래 내물가에 와서 그림을 그린다는것이였다.

한동안 처녀의 말을 들은 우릉도 자기가 대성산무술터로 올라오게 된 사연을 이야기해주었다.

우릉과 소비는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내가를 거닐기도 하고 고운 꽃을 서로 꺾어주면서 즐겁게 놀기도 하였다.

절벽가에 장미빛 저녁노을이 깃들무렵 우릉은 소비와의 아쉬운 작별에 앞서 그에게 백년가약을 청하였다.

소비는 머리를 숙인채 한동안 말이 없었다.

우릉이 재촉해서야 소비는 자기에게 다른 마음은 없으나 인륜대사인 혼인을 어찌 부모의 허락없이 기약하겠는가고 하면서 무술을 다 닦고 돌아가는 날 량쪽부모에게 허락을 받자고 하였다.

우릉은 소비의 말을 옳게 여기고 앞으로 무술을 다 닦고 돌아가는 그날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였다.

소비도 우릉과 같이 굳은 언약을 하였다.

우릉과 소비는 서로 두손을 굳게 잡고나서 떨어지지 않는 걸음을 옮기며 헤여졌다.

다음날 우릉은 또다시 소비가 보고싶어 절벽밑 시내가로 찾아갔으나 처녀는 보이지 않았다. 우릉은 무슨 일이 있어 늦어지는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나저제나 소비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말타기련습을 하고있었다.

그런데 한낮이 기울어도, 황혼이 깃들어도 소비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연 사흘동안 기다렸으나 소비는 종시 나타나지 않았다.

우릉의 가슴속에는 울화와 함께 좋지 못한 생각이 들었다.

(소비가 나를 희롱하고 속인것이 아닐가? 녀자의 마음이란 하루에도 열두번 변한다더니 혹시 그런 녀자가 아닐가? 그래, 그는 진정 나를 사랑하려는 처녀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야 이렇게 온다간다는 말도 없이 종적을 감추어버리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우릉은 다시는 소비를 찾지 않고 그를 잊어버리려고 마음먹었다.

그러자니 머리가 무거워지고 마음이 괴로왔다.

그럴수록 우릉은 소비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져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그를 만날수 있을가 하고 생각해보았다.

며칠동안 모대기던 우릉에게는 불현듯 한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그것은 소비가 자기 스승의 말대로 그림을 그리기 위해 짐승을 찾아 어디에서 헤매일것이라는 생각이였다. 우릉은 노루의 목에다 편지를 걸어 보내리라 마음먹었다.

우릉은 이어 짐승이 많이 다니는 곳에 덫을 놓아 작은 새끼노루 한마리를 잡았다.

그리고는 편지를 한장 써서 노루의 목에다가 유표하게 달아놓았다.

편지를 띄운 후로 우릉은 아예 소비에 대한 생각을 잊고 무술련습에만 모든 정력을 쏟아부었다.

우릉은 어느덧 말타기를 다 익히고 활쏘기훈련을 시작하였다.

활쏘기는 움직이지 않는 과녁을 쏘는것으로부터 움직이는 과녁을 명중시키는데로 익혀나갔다.

움직이는 과녁을 맞히는 련습은 날아가는 까마귀를 겨누어 쏘는것이였다.

우릉은 까마귀를 쏘려고 까마귀들이 많이 날아다니는 대성산기슭으로 내려왔다.

그는 여러대의 화살을 날려 날아가는 까마귀들을 보기 좋게 쏴떨구군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화살로 잡은 까마귀들을 거두어가지고 돌아오는데 한 까마귀의 다리에 무엇인가 감겨져있는것이 보이였다.

단검을 꺼내여 헤쳐보니 그것은 소비의 편지였다.

편지의 사연은 이러하였다.

먼저 한장의 소식도 전하지 않으려 하다가 노루목에 달린 기이한 편지를 보고 답장을 보내지 않을수 없기에 붓을 들었다고 하면서 자기가 한마디의 말도 없이 사라지게 된 사연을 썼다.

한번두번 만날수록 더욱더 만나고싶고 하루이틀 갈수록 깊어만 지는 사랑에 빠지면 도를 닦으러 나선 두사람의 원대한 뜻을 이루기 어려울것 같기에 괴로움을 참고 사라졌으니 용서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절벽밑 시내가에서 다진 뜻을 성취하는 그날까지 자기를 잊어달라고 하였다.

소비의 편지를 다 읽고난 우릉은 자책감으로 가슴이 저려났다.

(아, 소비는 얼마나 기특한 처녀인가! 그런데 도를 닦으러 산속에 들어온 나는 사랑에 빠져 부모님의 소원도, 평양사람들의 기대도 저버리고 원쑤에 대한 복수심

도 다 잊을번 했으니 얼마나 용렬한 인간인가.)

그럴수록 소비가 돋보이였다.

(그렇다. 도를 다 닦기 전에는 소비를 찾지 않으리라.)

이렇게 다짐한 우릉은 그날부터 무술을 닦는데 모든 정력을 깡그리 쏟아부었다.

어느덧 삼년석달이 되는 날이 왔다.

우릉은 그해 3월 3일 나라에서 열리는 무술경기에 나가게 되였다.

우릉은 매 종목에 걸쳐 여러 경쟁자들을 이기고 결승경기에 올라갔다.

결승경기는 말을 타고 달리면서 누가 제일 많은 짐승을 잡아오는가 하는것이였다.

우릉이 사냥터로 말을 몰아 퍼그나 달렸으나 그렇게 많던 짐승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우릉은 더 깊은 수림으로 말을 몰았다.

아름드리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선 울창한 밀림속에도 짐승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고 말을 타고 그속을 헤쳐나가기조차 힘들었다.

(혹시 한마리의 짐승도 못잡고 돌아가게 되는것이 아닌가?)

이렇게 초조한 마음으로 앞을 살피고있는데 큰 송아지만 한 누런 사슴 한마리가 눈에 띄였다.

우릉이 말에 박차를 가해 따르면서 연방 화살을 날리였으나 사슴은 나무들사이를 요리조리 살살 빠져잘도 달아났다.

이곳저곳에서 짐승을 찾아 헤매이던 그의 경쟁자들도 한마리의 사슴을 쫓아 모두 몰려들어 마구 화살을 쏘아댔다.

그러다나니 모두가 화살이 떨어져 물러들 났으나 우릉은 장검을 뽑아들고 계속 쫓아갔다.

(어떻게 하나 저 짐승을 잡아야 한다. 저것을 못잡으면 경기에서 패배자로 될것은 불보듯 뻔하다. 그러면 부모님을 볼 낯도 없고 사랑하는 소비를 만날수도 없을것이다. 소비는 성공하는 날에야 나타나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우릉은 말고삐를 바싹 당겨쥐고 말을 올리몰았다.

드디여 사슴을 따라 산마루에 올랐다.

사슴은 더 갈데가 없어 그 자리에서 맴돌고있었다.

이때를 놓칠세라 우릉은 번쩍이는 장검을 휘두르며 사슴한테로 덮쳐들었다.

사슴은 어쩔수없이 절벽아래로 뛰여내렸다.

뛰여내린 절벽을 보니 수십길이나 되였다.

우릉은 위험하다는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말에서 뛰여내려 절벽아래로 몸을 던졌다.

절벽아래의 락엽무지에 떨어진 그는 칼로 덤불을 헤치며 사슴을 찾았다.

누런 사슴은 다래덩굴에 목이 감기여 꼼짝하지 못하고 처량한 눈길로 우릉을 마주 보고있었다.

우릉은 칼을 들어 내리치려다가 어쩐지 말똥말똥 쳐다보는 사슴을 차마 죽일수 없어 사슴을 끌어안았다.

큰 사슴은 꼼짝 못하고 우릉에게 잡히였다.

우릉은 사슴을 메고 절벽우로 올라와 말우에 싣고 돌아왔다.

우릉이 송아지만 한 사슴을 산채로 잡아가지고 경기장에 나타나자 경기장안의 사람들이 북을 치고 나팔을 불며 환성을 올리였다.

경기장입구에서 두팔을 높이 들어 환호하는 부모님들의 얼굴도 보이였다.

우릉은 승리자의 긍지높이 경기장을 한바퀴 돌면서 행여나 소비가 그속에 있지 않을가 하여 살폈으나 보이지 않았다.

오늘의 이 성공을 소비가 모르고있지나 않는가, 어서 소비를 만나 이 기쁨을 나누고싶었다.

우릉은 상을 받으려고 임금앞에 나갔다.

그는 임금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아뢰였다. 그리고 자기가 잡은 사슴을 바치려고 일어나 사슴

한테로 가려고 하였다.

그런데 사슴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선녀같은 녀인이 서있었다.

우릉이 영문을 몰라 서있는데 그 녀인이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가왔다.

우릉은 의아해서 다가오는 녀인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그 녀인은 바로 소비였다.

우릉은 너무 기뻐 임금앞이라는것도 잊고 소비의 이름을 부르며 마주 다가가 처녀의 손을 꼭 쥐였다.

둔갑술을 배운 소비는 이날 사슴으로 되여 무술을 겨루는 사람들앞에 나타났던것이다.

임금은 무술을 닦아 경기에서 1등을 한 우릉과 둔갑술을 훌륭히 배운 소비에게 상을 주고 그들을 나라의 장수로 각각 임명하였다.

우릉과 소비는 언약대로 량부모를 찾아가 자기들의 소원을 말하였다.

량부모는 그들을 하늘이 무어준 배필로 인정하고 혼인을 쾌히 승낙하였다.

혼례를 치르고 부부가 된 우릉과 소비는 그후 평양사람들과 함께 나라를 지켜 큰 공을 세웠고 자식들을 키우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백은탄

백은탄이란 하얀 은빛으로 빛나는 여울이라는 뜻이다.

백은탄은 릉라도와 반월도사이에 있던 여울의 이름이다.

지금은 모래무지로 련결되여 하나의 섬으로 되였지만 지난날에는 지금의 릉라다리밑에 반월도라는 독립적인 섬이 있었다.

옛날에는 이 여울밑에 흰바위가 깔려있었는데 그우를 흐르는 맑은 물이 마치 구슬들이 굴러내리는것 같이 아름다왔다고 한다.

옛날 모란봉꼭대기에는 언제 그 누가 만들었는지 알수 없으나 아름다운 무늬로 아로새겨진 크고 웅장한 은종이 있었다고 한다.

신비한 이 종은 평양성의 둘도 없는 보배였다.

그것은 평양성가까이로 외적들이 쳐들어오면 이 은종이 저절로 울리며 위험을 알려주었고 또한 나라에 경사가 났을 때에도 울리였기때문이다.

그 소리는 매우 은근하면서도 아름다와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돋구어주었다.

유명한 이 은종에 대한 소문은 국내는 물론 이웃나라들에까지 널리 퍼졌다.

그리하여 이 은종을 구경하자고 몇백리밖에서 우정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고 이웃나라 사신들도 평양성에 들리면 의례히 모란봉에 있는 은종부터 찾아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경탄과 부러움을 금치 못해하는 이 종을 탐내는 나라들도 있었다.

어떤 나라에서는 많은 보물과 바꾸자고 하였고 어떤 나라에서는 군사를 동원하여 은종을 훔쳐갈 흉계까지 꾸미였다.

평양성사람들은 의논끝에 은종을 청류벽밑 대동강물속에 안전하게 숨겨놓았다가 은종을 탐내는 외적들의 흉계도 물리치고 평양성의 방비도 튼튼히 다진 다음에 은종을 다시 모란봉꼭대기에 옮겨놓으려고 하였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

청류벽밑 대동강물속에 숨겨두었던 은종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던것이다.

평양성사람들은 나라의 보물을 잃었다고 펄쩍 뛰면서 대동강물밑을 샅샅이 훑었다.

그러다가 련광정앞 덕바위밑 소에서 커다란 검은 룡이 은종을 물고 대동강을 따라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검은 룡은 서해바다 한가운데 둥지를 틀고있는 룡이였다.

평양성사람들은 은종을 빼앗자고 검은 룡과 싸웠다.

그러나 검은 룡은 창과 칼을 아무리 던져도 꿈쩍하지 않았다.

평양성사람들은 북과 징을 울리고 고함을 치면서 결사적으로 룡을 치고 또 쳤다.

그러자 검은 룡은 괴상한 소리를 지르고 꿈틀거리면서 은종을 물고 서쪽으로 더 빨리 달아났다.

이렇게 되자 일부 로인들과 녀인들은 대대로 지켜오던 신비로운 은종을 끝내 빼앗긴다고 땅을 치며 통곡하였다.

바로 이때였다.

대동강의 웃쪽에서 물결을 헤가르며 집채같은 붉은 룡이 달려내려오더니 검은 룡을 덮쳤다.

붉은 룡과 검은 룡의 대결전이 벌어졌다.

순식간에 대동강우에는 흰 물보라가 안개처럼 피여났다.

평양성사람들도 붉은 룡을 도와 검은 룡과 싸웠다.

두 룡의 대격전은 사흘동안 계속되였다.

드디여 사흘만에 붉은 룡이 물우로 솟구쳐오르며 기진해진 검은 룡을 물어메치였다.

검은 룡은 피를 토하며 대동강물우에 둥둥 떠내려갔다.

승리한 붉은 룡은 은종을 빼앗아 입에 물고 원래 숨겨두었던 자리에 가져다놓았다.

이날 평양성사람들은 은종을 찾게 된 기쁨과 은종을

빼앗아낸 붉은 룡의 공적을 축하하여 주암소결에서 큰 축하연을 차렸다.

그리고 평양성사람들은 은종을 그대로 청류벽아래 대동강물밑에 두고 붉은 룡에게 그것을 지키도록 맡기였다.

이리하여 평양성의 보배인 신비한 은종은 영원히 평양성사람들의것으로 되였다.

그후 은종은 흰바위로 변하여 릉라도와 반월도사이의 백은탄물밑에 깔려 빛을 뿌리게 되였다고 한다.

행복의 문-칠성문

평양의 모란봉 서남쪽에 있는 칠성문은 예로부터 행복의 문으로 불리웠다.

칠성문이 행복의 문으로 불리우게 된것은 나라를 지켜 싸운 한 젊은이에 대한 전설이 전해지면서 생기게 되였다고 한다.

먼 옛날 평양성안에는 돌범이라는 총각과 시내라는 처녀가 살고있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마을에서 살고있었으나 돌범은 나무를 하고 시내는 나물을 뜯으러 모란봉에 올라 만나군 하여 어린시절부터 가까이 지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그들이 시집장가갈 나이에 이르렀을 때 돌범은 마음씨 곱고 얌전한 시내에게 사랑을 고백하였다.

시내는 이미 정든 돌범이 싫지 않았다.

름름한 체격에 의협심이 강한 돌범이만 한 총각이 이 세상에 더 없으리라고 생각하고있었던것이다.

돌범이 대답을 애타게 재촉하자 시내는 얼굴을 붉히며 그것이 진정한 소원이라면 집에 중매군을 보내야지 나에게 다그치면 어찌겠느냐고 조용히 속삭였다.

그날밤 돌범의 어머니는 아들의 실토정을 듣고 너무 기뻐 어쩔줄 몰라하며 다음날 중매군을 보냈다.

그런데 중매군은 시내의 집에 갔다와서 천만락심해하며 처녀의 아버지가 칠성문도 나들지 못한 녀석에겐 딸을 늙히는 한이 있더라도 주지 못하겠다고 한다는 말을 전달하였다.

천만뜻밖의 말에 돌범은 물론 그의 어머니까지 눈앞이 캄캄하여 입을 열지 못하였다.

그때 칠성문을 나들지 못했다는것은 무술을 닦지 못하였거나 변방에 번을 서러 나가지 못하였던 사람들을 두고 이르는 말이였다.

사실 돌범은 무술을 닦고 변방에 번을 서러 가려고 했으나 늙으신 홀어머니가 걱정되여 집을 떠나지 못했던것이다.

돌범은 여러날 생각을 하던 끝에 무술을 배우러 떠날것을 어머니에게서 승낙받았다. 그리고 시내와도

무술을 닦는 3년동안 기다려달라고 부탁하였다.

무술터에 간 돌범은 자기의 사연을 스승에게 아뢰였다.

그러자 스승은 생각을 잘했다고 하며 《무술을 배우되 나라를 지키기 위한 참된 무술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였다.

돌범은 꾸준한 노력과 스승의 각별한 사랑과 관심속에서 3년동안 무술을 닦았다.

그가 집으로 돌아올 때가 거의 되였다.

그런데 그때 나라에서는 변방에 외적이 자주 침범하여 많은 군사를 징발하였으나 그들을 지휘할 무사가 없어 무술을 닦은 장수를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돌범은 시내와 한 3년간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그 길로 변방에 나가 외적과의 싸움에 나섰다.

외적을 물리치고 싸움이 끝나자 또 고향으로 가지 못할 사정이 생겼다.

그것은 나라변방에 철벽의 방어진을 축성해야 할 임무가 제기되였기때문이였다.

이렇게 되여 시내와 약속한 3년보다 2년이란 세월이 더 지나갔다.

어느날 방어진을 치는 일에 여념이 없는데 고향에서 왔다는 한 총각이 찾아와 시내가 얼마전에 시집갔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전해주었다.

돌범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방어축성이 끝나자 돌범은 군공으로 하여 승급되여 평양으로 소환되였다.

돌범은 장수의 옷차림을 하고 군졸의 호위를 받으며 말을 타고 평양성에 들어와 새 초소를 넘겨받고는 홀어머니가 계시는 집으로 갔다.

어머니는 문밖 터밭에서 김을 매고있었다.

말에서 내린 돌범은 무릎을 꿇고 어머니를 찾았다.

어머니는 뜻밖에 나타난 름름한 아들을 보고 밭에서 허둥지둥 달려나오며 집안을 향해 소리쳤다.

《애야, 왔다, 왔어!》

돌범은 웬 일인지 몰라 집으로 눈길을 돌렸다.

그런데 집에서 웬 녀인이 나왔다.

그가 바로 그처럼 애타게 보고싶고 잊지 못하던 시내였던것이다.

그들은 뜨겁게 상봉하였다.

《시내, 이게 어찌된 일이요?…》

그러자 시내는 제가 자기 집에 와있는데 뭐가 이상해서 그러느냐고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는 그간 있었던 일들을 알려주면서 돌범이 무술을 닦고 변방으로 갈 때 스승이 와서 소식을 알려주었고 시내아버지는 시내를 홀로 있는 자기와 있도록

아예 시집을 보냈다고 이야기하였다.

돌범과 시내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어머니를 모시고 의좋게 살았다.

평양사람들은 돌범장수가 칠성문을 드나들었기에 그들의 행복이 꽃폈다고 하면서 행복을 바라는 젊은이들은 돌범장수처럼 행복의 문인 칠성문을 드나들면서 무술을 닦으라고 말했다고 한다.

단군사의 우뢰소리

평양학생소년궁전이 높이 솟아있는 장대재의 남쪽기슭에는 나지막한 울타리안에 두채의 옛 건물이 자리잡고있다.

그중의 하나가 민족의 원시조인 단군과 고구려시조 동명왕의 신주를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던 사당건물인 숭령전이다.

평양에서 단군을 제사지내던 풍습은 고조선때는 물론이고 고구려시기, 고려시기, 조선봉건왕조시기에도 중단함이 없이 계속 이어져왔다.

경치가 아름답고 양지바른 장대재의 남쪽경사면에 자리잡고있는 현재의 건물은 조선봉건왕조시기인 1429년에 세운것이다.

이 건물은 평양군사 또는 단군사, 동명왕사 등으로

불러오다가 1725년부터 숭령전이라 부르게 되였다.

단군사를 숭령전이라고 고쳐부르게 된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오고있다.

옛날 최가성을 가진 한 로인이 숭령전이라고 부르기 전의 단군사를 맡아 관리하고있을 때 있은 일이라고 한다.

당시 사람들은 이 로인을 최참봉이라고 불렀다.

참봉이란 조선봉건왕조시기에 가장 낮은 종 9품벼슬이였다.

단군사참봉으로 임기를 마치면 특별히 서울의 참봉으로 승급시키는것이 관례로 되여있었다.

그러나 최로인은 이미 임기가 차서 서울로 조동되게 되였으나 계속 눌러앉아있었다.

그것은 그가 서울의 참봉벼슬로 오를만 한 문벌도 되지 못하고 나이가 많아서만이 아니라 온갖 정성을 다해 단군사를 잘 관리하여왔으므로 평안도감영에서 그를 단군사의 참봉으로 계속 눌러앉게 하였던것이다.

그는 매일같이 전각안에 있는 단군의 위패를 정중하고 정결하게 거두고 전각의 안팎을 깨끗하게 쓸고닦군 하였다.

겨울에 눈이 내릴 때에는 한송이의 눈이라도 단군사에 덮일세라 보드라운 털비로 쓸어버리군 하였고 여름철엔 잠을 자다가 비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만 들어도

벌떡 일어나 전각에 비 한방울 스며들세라 제때에 손질을 하였다.

그러던 1592년 4월 13일 새벽이였다.

단군사에서 얼마 떨어져있지 않는 자기 집에서 자고있던 최로인은 꿈결에 땅이 흔들리는 요란한 소리와 산천이 울부짖는 세찬 소리를 듣고 잠자리에서 일어나앉아 귀를 기울이였다.

땅을 뒤흔드는 천군만마가 달리는듯 한 소리와 온 산천을 뒤집어엎는듯 한 천둥소리는 단군사가 있는 곳에서 들려오고있었다.

최로인은 장대재로 달려갔다.

요란한 천둥소리는 바로 단군사에서 울려나오고있었다.

그곳에서 터져나오는 세찬 바람은 닫아걸었던 대문짝을 뿌려던지고 그앞에 서있던 아름드리버드나무들을 뿌리채 뽑아 넘어뜨리였다.

이와 함께 하늘이 무너져내리는듯 한 울부짖음소리가 났고 그 소리에 기둥과 주추돌, 섬돌이 부르르 떨면서 땅이 꺼지는듯 하였다.

단군사로 허둥지둥 달려들어간 최로인은 부르르 떠는 단군의 위패를 두손으로 받들어쥐고 빌고 또 빌었다.

《진정하시오이다, 진정하시오이다.》

날이 푸름푸름 밝아올무렵에야 천둥소리가 멎으면서

단군사가 조용해졌다.

성안의 사람들도 단군사로 달려왔다.

《이게 어찌된 일이요?》

《이게 무슨 변고요?》

그들은 최로인에게 다우쳐 물었다. 최로인은 너무도 놀래여 얼혼이 나간데다가 신령의 조화속을 가늠할수 없어 선뜻 대답할수 없었다.

지난날 로인들이나 단군사의 참봉들은 이 사당이 울면 나라에 병란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그것은 단군성제의 령혼이 나라와 백성들을 항시 돌보고있기때문에 닥쳐올 병란을 예고하여 미리 방비책을 세우게 하려는것이라는것이였다.

최로인은 바로 지난밤의 심상치 않은 이상한 현상이 그것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떨렸다.

최로인은 자기를 바라보며 대답을 기다리는 성안사람들에게 무거운 목소리로 말하였다.

《예로부터 단군사당이 울면 나라에 란이 일어난다고 하였으니 지난 밤의 변고도 그런 조짐이라 생각되오.》

《병란이라면 외적이 쳐들어온다는것이 아니요?》

《그러기에 단군성제께서 미리 방비하라고 깨우쳐주는것이 아니요.》

《옳수다. 그럼 어서 대책을 세워야지요.》

모여왔던 사람들은 한동안 단군사를 떠나지 못하고 웅성거리였다.

그들이 사라진 뒤 최로인은 어지러워진 단군사안팎을 거두었다.

얼마후 한 로인이 단군사로 숨가삐 올라왔다.

《여보게 참봉.》

그는 최로인의 친구였다.

《왜 그러나?》

《자네 빨리 피해야겠네. 지금 관가에서 사람들을 막 잡아들이고있네.》

《뭐, 사람들을 잡아들인다구?》

이날 새벽에 단군사에서 있은 이야기가 퍼지자 온 성안이 끓어번지였다. 사람들속에서는 앞으로 나라에 병란이 터질것이라는 말이 오갔다.

이 소문은 감사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병란이 터진다구? 이런 태평세월에 누가 그런 망발을 하느냐? 그놈을 당장 잡아들여라.》

감사가 노발대발하여 소리치자 곧 아전들과 포교들이 길거리와 골목들을 뒤지면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닥치는대로 잡아들이였다.

친구로인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재촉하였다.

《자네 무사치 못할것이니 어서 피하게.》

한동안 생각에 잠겨있던 최로인은 머리를 저었다.

《아니네. 내가 가봐야지. 감영에서 병란이 터질것이라고 말한 사람을 찾는다는데 내가 피하면 병란이 터지리라는 단군성제의 계시를 누가 알려주겠나.》

최로인은 친구로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감영안으로 들어갔다.

감영에 당도하니 사람들이 끌리워와 여기저기서 볼기를 맞으면서도 병란이 터질것이라는 말을 퍼뜨린 사람은 대지 않고 단군사의 천둥소리만을 들었다고 대답하는것이였다.

그들의 한결같은 대답을 듣는 순간 최로인은 자기를 고발하지 않는 그들의 마음이 하도 고마와 가슴이 뭉클하였다.

이어 최로인은 형틀앞으로 나섰다.

《여봐라, 죄없는 그네들을 치지 말아. 병란이 터질것이라고 먼저 말한 사람은 이 참봉이니 감사께 그리 여쭈어라.》

형리들은 어리둥절하였다.

《어서!》

최로인이 재촉해서야 형리들은 문초를 그치고 그의 말을 감사에게 전하였다.

감사는 곧 동헌에 나와 최로인을 불렀다.

《이놈, 네가 나라에 병란이 터질것이라는 말을 돌린게 사실이냐?》

《그렇소이다.》

《이놈, 무슨 반역을 꾀하자구 그런 소요를 일으켰는지 이실직고하여라.》

《소인이 어찌 반역을 꾀하겠소이까? 소인은 오직 단군성제의 령혼과 신주를 받들어모시는 참봉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였을뿐이오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감히 나라에 병란이 터질것이라는 요언을 돌렸느냐?》

《나라에 병란이 터질것이라는것은 소인의 말이 아니라 단군성제의 계시이옵니다.》

《뭐라구?》

《예로부터 단군사당이 울면 란이 일어난다고 전해오고있는데 오늘 새벽에 있은 단군사의 변고는 결코 범상치 않소이다. 어찌 단군성제의 계시라 하지 않겠소이까.》

《이놈, 무엄하기 그지없는 놈이로다. 네 어찌 단군사를 잘 거두지 못한 죄를 다른데 씌우려 하느냐?》

《소인의 말이 못미더우면 단군사에 올라가보소이다. 정녕 뿌리채 뽑힌 나무나 드논 기둥과 주추돌은 인력으로 할것이 못되오이다.》

《이놈의 정신이 아직 멀멀하다. 여봐라, 이놈을 정신이 들게 되게 쳐라.》

최로인은 형틀에 묶이여 곤장 몇대에 정신을 잃었다. 그는 원래 늙은 몸인데다 이날 새벽부터 아무것도 들지 못하고 어지러워진 단군사를 거두기에 지쳤던 몸이므로 곤장을 이겨낼수 없었다.

최로인은 정신을 잃은채 옥에 갇히였다.

《병란이 터질것이란 말을 네가 꾸며냈다고 솔직히 자백하면 감사께서도 용서해주겠다고 하신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참형을 면치 못할줄로 알라.》

형리들은 하루에도 몇번씩 최로인에게 강박하였다.

그러나 최로인은 조금도 굽어들지 않았다.

《이 땅에 선 모든 왕조가 단군성제의 령혼을 받들어모시고 그 계시를 따라왔는데 어찌 오늘만은 믿지 않으려 하는가. 이것은 단군성제를 받드는 뜻이 아님을 감사께 아뢰여라.》

여러날이 흘러도 최로인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마침내 포악한 감사는 최로인의 목을 치라는 령을 내리였다.

효수형에 처하는 날 아침 옥쇠를 여는 소리가 들리였다.

최로인은 자기가 죽는것보다 단군성제의 계시를 받들

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속이 타들었다. 하지만 죽는 순간에도 단군성제의 계시는 옛날에도 따랐으니 오늘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높이 소리치리라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옥안으로 밀려드는 소리가 들리였다.

《참봉!》

최로인은 그제서야 머리를 들었다.

옥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옥리들이 아니라 창을 들고 활을 멘 낯익은 로인들과 젊은이들이였다.

그들은 한결같이 소리쳤다.

《병란이 터졌어, 병란이 터졌단 말이요.》

《뭐라구?》

《왜놈들이 남해로 쳐들어와 북상하고있다오.》

《왜놈들이? 언제?》

《바루 단군성제가 단군사를 울리며 계시하시던 지난 4월 13일 낮이라오.》

그들은 어리둥절해하는 최로인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왜놈들이 불의에 근 20만의 대군을 몰아 4월 13일에 남해로 쳐들어왔으나 당시 봉수체계가 잘 정비되여있지 않아 서울에는 17일에야 전달되고 평양성에서는 그로부터 다시 나흘이 지난 어제밤에야 알게 되였다고 한다.

그러나 평양성안팎의 인민들은 단군성제가 미리 병란이 터진다고 계시해주었으므로 소식을 듣자마자 곧 창과 칼을 쥐고 모두 떨쳐나섰다고 한다.

이 말을 들은 최로인은 너무도 감격에 겨워 그만 그 자리에 펄썩 주저 앉았다.

《과연 단군성제의 령혼이 나라를 보살피고있음이 분명하구나. 그런데 왜놈이 감히 우리 나라를 집어삼키겠다구?》

최로인은 큰소리로 웨쳤다.

《여보게들, 단군성제령혼께 알리는 제를 빨리 지내야겠소.》

이날 단군사에서 지낸 제사는 단군성제의 령혼앞에 란이 터졌다는것을 알릴뿐아니라 단군의 후손답게 왜놈들의 침입을 물리치고 평양성을 사수하며 나라를 지켜내리라는 맹약의 제사로 되였다.

이리하여 평양성사람들은 평양성까지 기여들었던 왜놈들을 몰아내고 나라를 지키는 싸움에서 큰 위훈을 떨치였다.

임진조국전쟁이 끝난 후에도 평양성사람들은 전쟁이 터지던 그날 새벽에 단군사가 병란을 미리 알린 신비로운 이야기를 전해오다가 1725년에 단군사를 개건하면서 그 이름을 숭령전으로 고쳐부르게 되였다.

그것은 나라와 백성을 돌보는 단군성제의 령혼을 숭상하는 전각이라는 뜻에서였다.

을밀대의 소나무

임진조국전쟁때 평양성을 지켜 싸운 용사들가운데는 보통문근방에서 살던 최칠성이라는 젊은 군사도 있었다.

왜놈들과의 싸움이 점점 더 어려워지자 칠성은 년로한 아버지가 걱정되여 어느 하루 틈을 내여 집에 들렸다.

그리고는 왜놈들과의 싸움이 성안에서도 벌어질수 있으니 빨리 피난을 가라고 하였다.

아들의 말을 들은 최로인은 《아니, 왜놈들을 성안에 들어서게 한단 말이냐?》하며 평양군사로서 어떻게 해서든지 왜놈을 칠 궁리를 하는것이 아니라 물러설 생각부터 한다고 아들에게 된욕을 퍼부었다.

아들이 돌아간 후 최로인은 평양성에 왜놈들이 들이닥친다는데 어찌 늙었다고 가만히 앉아있을수가 있는가고 생각하였다.

그는 곧 뒤집에 있는 동갑인 박로인을 찾아갔다.

《성안의 형편이 그렇게 위태해지는것도 모르고 불박혀있었으니 어디 체면이 됐나. 빨리 성벽으로 나가보세.》

평상시에는 바깥출입도 변변히 하지 못하던 최로인과 박로인은 한손에는 지팽이를, 다른 손에는 도끼를

들고 집을 나섰다.

그들이 만수대에 올라 모란봉쪽을 바라다보니 벌써 모란봉골안은 왜놈들과 싸우러 달려나온 성안의 백성들로 새하얗게 차넘치고있었다.

군사들의 음식을 끓이는지 곳곳에 걸어놓은 가마터에서는 연기가 피여오르고 녀인들은 동이를 이고 오갔으며 늙은이와 아이들은 군사들과 함께 돌을 안고 성벽으로 오르내리는것이였다.

로인들은 자기들이 지켜야 할 자리를 빼앗길것 같아 급히 모란봉의 성벽으로 치달아올랐다.

이때 군사들과 백성들의 싸움준비를 돌아보고 내려오던 의병장 고언백이 로인들을 만나 어디로 가는가고 물었다.

두 로인은 차오르는 숨을 몰아쉬면서 자기들도 왜놈들과 싸우러왔으니 창이나 칼을 달라고 하였다.

《로인님들의 그 충정에 제 가슴도 뜨거워집니다만 어떻게 늙으신 몸으로 싸우신단 말입니까. 로인님들이 화살을 날리기 전에 놈들의 화살이 날아옵니다.》

《내 다 산 몸이 활을 맞은들 무슨 한이 있겠나. 그렇게 죽어두 이 한몸으로 놈들의 화살 한대라도 빼앗는셈이 아니겠나.》

《한몸으로 화살 한대를 빼앗는다구요?》

고언백은 통쾌하게 웃더니 《로인님, 그러면 곁에 있는 군사들의 마음이 불안해서 싸움이 더딜겁니다. 제발 올라오지 마십시오.》라고 말하였다.

고언백이 여러 말로 달래였으나 로인들은 막무가내였다. 그러자 그는 군사들을 시켜 로인들을 마을로 모셔 내려가게 하였다.

그들은 하는수없이 돌아내려오다가 다리맥이 풀리여 풀밭에 풀썩 주저앉아 쉬였다.

그들의 눈앞에는 모란봉에 옹기종기 들어선 소나무가 보였다.

《저 소나무들이 모두 우리 군사라면 얼마나 좋겠나.》

생각에 잠겨 무심히 하는 박로인의 말을 듣고있던 최로인이 갑자기 박로인의 무릎을 쳤다.

《저 잔솔포기들에 허수아비처럼 옷을 입혀서 놈들로 하여금 우리 군사로 보이게 하는것이 어떤가?》

《옳지, 그러면 놈들이 정말 군사로 알고 활을 쏠테니 빼앗는게 여간이 아니겠군.》

《그뿐이겠나. 우리 군사가 적다고 놈들이 우릴 얕보지 못하게 할수도 있지 않는가.》

생각이 맞은 그들은 다시 고언백을 찾아가 자기들의 생각을 털어놓았다.

로인들의 말을 듣고난 고언백은 즉석에서 일부 군사

들과 백성들을 성안으로 내려보내여 헌 옷가지들을 걷어오게 하였다.

그리고 그밤으로 놈들이 잘 바라볼수 있는 을밀대밑의 넓은 경사지에 솟아있는 잔솔포기들에 옷을 입히여 많은 군사들이 봉우리를 지켜선것처럼 보이게 만들어놓았다.

게다가 칡넝쿨을 걸어 허수아비들을 드문드문 련결해놓고 한끝에 줄을 매여 잡아당기니 그때마다 흔들리는 허수아비들은 바삐 움직이는 군사들처럼 보이였다.

이렇게 새벽까지 잔솔가지들에 헌옷들을 입혀놓으니 마치 《군사》들이 을밀대부근에 밀집하여 지켜서있는것처럼 보이였다.

이튿날 새벽이 되자 강건너편에 있던 왜놈들은 을밀대기슭에 수많은 《군사》들이 몰켜서있는것을 바라보며 벅적 고아대면서 미친듯이 조총과 활을 쏘아대였다.

우리《군사》들이 끄떡없자 악에 받친 놈들은 수백명씩 교대로 연 이틀동안 그런 소동을 그치지 않았다.

그 바람에 을밀대부근의 소나무들은 어느 한그루도 성한것없이 가지가 부러지고 껍질이 벗겨지게 되였다.

그리하여《군사》로 가장시켰던 을밀대의 소나무들은 왜놈들이 가지고있던 탄환과 화살을 반나마 빼앗아버리고 놈들의 공격을 파탄시키는데 한몫 단단히 하였다.

왜놈들을 몰아낸 후 로인들과 마을젊은이들은 해마다 봄과 가을이 오면 꼭꼭 을밀대에 올라가 소나무들을 정성껏 가꾸어주었다고 한다.

왕성탄

활짝 피여나는 탐스러운 꽃송이처럼 보이기도 하고 공기를 한껏 품은채 내려앉은 락하산처럼 보이기도 하는 5월1일경기장을 지나 릉라도의 북쪽끝에 이르면 여울이 나서는데 이 여울이 왕성탄이다.

이 여울을 왕성탄이라 부르게 된 유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해오고있다.

옛날 남쪽에서 왜적이 평양으로 침입하여올 때 있은 일이라고 한다.

동대원벌을 새까맣게 뒤덮으며 침략자들이 달려들자 평양성사람들은 일시 당황하지 않을수 없었다.

침략자들은 평양성을 일거에 점령하기 위하여 벌써 강으로 들어서려고 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에 갑자기 먹장구름이 몰려와 하늘을 뒤덮더니 대줄기같은 비를 퍼부었는데 삽시에 대동강물이 범람하여 왜적들이 강을 건늘수 없게 되였다.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우리를 돕는구나!》

평양성사람들은 이렇게 환성을 올리며 강물이 왜적

들을 막아주는 기회를 타서 싸움준비를 서둘렀다.

평양성사람들은 성벽을 튼튼히 쌓고 창과 칼을 벼리였으며 군량도 마련하였다.

대동강에 큰물이 난 기회에 평양성사람들은 적들에게 호된 반격을 안길 준비를 다 갖추어놓았다.

그런데 비는 그치였으나 여러날이 지나도록 범람하던 대동강물은 찔줄 몰랐다.

평양성안의 군사와 인민들의 마음은 초조해졌다.

그것은 강건너 적들이 홍수로 평양성을 공격할수 없게 되자 동대원벌의 농가들에 달려들어 소와 돼지를 마구 끌어다가 처먹으며 돌아쳤고 그로 인해 인민들의 원성이 더욱 높아졌기때문이였다.

평양성안의 군사와 인민들은 증오와 복수심으로 끓어번지였다.

《놈들이 저렇게 해이된 틈을 타서 쳐야 하겠는데…》

이때 백발의 한 로인이 의미심장한 말을 하였다.

《그건 대동강물이 노해서 범람한것인데 아직도 찌지 않는것은 평양성근방에 기여든 왜적들에 대한 노여움이 풀리지 않아서이다. 그 노여움을 풀고 물이 찌게 하자면 한 젊은이가 강에 뛰여들어 용서를 빌어야 할것이네.》

바로 이때 한 젊은이가 성벽우에 나서서 웨쳤다.

《여러분! 왜적을 칠 길이 열린다는데야 어찌 한목

숨을 아끼겠나이까. 제가 왜적들이 평양성가까이까지 기여들게 한 죄를 빌터이니 이제 왜적을 칠 길이 열린다면 내 몫까지 싸워주기 바라나이다.》

젊은이는 평양태생 왕손이라는 군사였다.

그는 말을 마치자 사람들이 막아나설 사이도 없이 사품치는 대동강물에 몸을 던지였다.

그러자 천지가 진동하면서 신비스럽게도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였고 잠간사이에 강바닥우에 돌다리가 드러났다.

평양성의 군사와 인민들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일제히 함성을 올리며 강을 건너 적진으로 돌입하여 적들을 무찔렀다.

강물이 찌는줄도 모르고 해이된채 처먹고 곤드라졌던 왜적들은 평양성의 군사와 인민들의 창칼에 맞아 무리로 쓰러졌다.

이 싸움이 있은 후부터 평양사람들은 사랑하는 고향마을을 지키기 위하여 한목숨을 서슴없이 바친 왕손의 위훈을 길이 전하기 위하여 그가 몸을 던진 여울을 왕손탄이라고 불러왔는데 후세에 전해오면서 왕손이 왕성으로 그 음이 변하여 왕성탄이라고 불리우게 되였다고 한다.

신비로운 보통문

평양성의 서쪽관문인 보통문은 우리 인민들속에서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리워왔다. 그중의 하나가 신문이라는 이름이다.

신문이라는것은 신비스러운 문이라는 뜻이다.

보통문이 신문으로 불리우게 된것은 임진조국전쟁때부터였다고 한다.

당시 평양성을 일시적으로 강점했던 왜적괴수 고니시 유끼나가는 어느날 성안의 여러 성문을 지키고있던 장수들을 급히 지휘처로 불러들이였다.

그것은 평양성을 포위하고있던 의병들이 동서남북으로 때없이 쳐들어와 놈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기군 하였는데 그 원인이 병졸들이 성문을 잘 지키지 못하는데 있다고 생각하였기때문이다.

《이제부터 만약 조선군사나 의병대가 성문으로 들어오는것을 막지 못하는 놈은 이 칼로 목을 칠테다. 그러니 성문을 잘 지키지 못할 때에는 목숨을 부지할수 없다는것을 명심해라.》

놈은 시퍼런 칼을 뽑아들고 허공에 휘두르며 위협하였다.

그러자 보통문파수를 책임진 왜장이 대뜸 무릎을 꿇고 엎디며 죽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웅얼거렸다.

《보통문은 닫아야 할 때 닫기지 않고 열어야 할 때 열리지 않으니 저로서는 어쩔수 없나이다.》

《뭣이? 네놈은 목숨이 아까와 벌써 발뺌을 하느냐? 이놈, 성문이야 성안에 있는 사람이 열고싶으면 열고 닫고싶으면 닫는게지 성밖에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여닫는 법이 어데 있단 말인가?》

고니시는 칼을 빼들고 당장 그자의 목을 두동강낼듯이 을러멨다.

《아닙니다. 보통문은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수 없는 신비로운 문으로서 귀신이 지키는것이 아닌가고 생각합니다.》

보통문을 지키는 왜장은 손을 비비며 우는 소리를 하였다.

《네놈은 종시 제가 비겁하다는 말은 안하구 보통문을 귀신이 지킨다구? 좋다. 네놈의 목 하나 따는게 바쁘지 않으니 내 네놈에게 귀신이 보통문을 지키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주고 네 목을 칠테다.》

고니시는 꺼내들었던 칼을 도로 칼집에 넣고 제가 직접 나가 보통문을 여닫아보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놈도 보통문만은 제 마음대로 여닫을수가 없었다.

군량이 떨어지고 병졸들이 굶주림에 허덕이자 놈은

익어가는 벼를 베오기 위해 성문을 열라고 하였다.

성문은 돌벽처럼 굳어져 아무리해도 열리지 않았다.

그리하여 성벽을 뚫고 거기로 군사를 내보내였는데 한명도 돌아오는 놈이 없었다.

이 일을 두고 왜놈들속에서는 보통문을 지키는 신이 나가서는 안된다고 문을 열지 않았는데 신의 의사를 거역하고 성밖으로 나갔으므로 천벌을 받은것이라고 수군거렸다.

또 하루는 보통문으로 의병들이 쳐들어온다는 급보를 받고 고니시가 직접 힘센 장수들을 뽑아가지고 나가 성문을 단단히 닫아매였다.

그런데 성문은 의병들이 만세소리를 치자 바람에 종이장 번져지듯 스스로 열리고 의병들이 성안으로 물밀듯이 밀려들었다.

이날 말을 몰아 모란봉숲속으로 도망쳤다가 간신히 목숨을 건진 고니시는 성이 독같이 나서 보통문을 불태우라고 고아댔다.

왜놈들은 화약을 등짐으로 날라다 성문에 쌓아놓고 불을 질렀으나 연기만이 온 성안에 자욱하게 찰뿐 보통문엔 한줄기의 불길도 타들지 않았다.

도리여 보통문의 기둥과 들보의 아름다운 단청은 불빛을 받아 더욱 찬연한 빛을 뿌리였다.

이런 신비로운 조화를 제눈으로 목격한 고니시는

넋을 잃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졸도하고말았다.

며칠후 겨우 정신을 차린 그놈은 보통문을 지키는 왜장을 불렀다.

왜장은 이번엔 영낙없이 자기 목을 동강내려고 찾는줄로 알고 문밖에서부터 기여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대장님, 대장님은 보통문을 귀신이 지키지 않는다는것이 증명되여야 제목을 자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고니시는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하고 칼자루만 쥐였다놓았다 하며 악에 받친 소리로 고아댔다.

《너는 보통문이 신비롭다고 우는 소리만 하고 액막이를 하지 않은것만으로도 천백번 죽어 마땅하다.》

왜장은 얼굴이 새까매지면서 더 변명을 하지 못하고 머리를 내대고 엎드렸다.

《네 이놈, 오늘중으로 액막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아보거라. 그렇지 못할 때는 용서하지 않겠다.》

고니시앞에서 물러나갔던 왜장은 밤이 깊어서야 백발이 성성한 로인을 데리고 들어왔다.

적장앞에 나선 로인은 주위를 한번 훑어보고나서 흰 수염을 쓰다듬으며 천천히 말하였다.

《보통문엔 원래 귀신이라는것이 없었소이다. 보통문은 이름 그대로 일반성문에 지나지 않는 보통성문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신비로와보이는것은 다른데 있는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일본귀신이 붙어서 그렇소이다.

일본귀신이 조선을 얕잡아보고있는데 그 귀신에 홀리워서 평양성에 갇혀있는 신세가 되여가지구두 평양성을 점령했다고 여기고있기때문에 보통문이 신비롭게 보이는것이외다. 비유해 말한다면 옥에 갇힌 사람이 옥문이 제 집문처럼 마음대로 여닫기지 않는다고 발광을 하는격이지요.》

로인의 이 준절한 말을 듣자 적장과 졸개들은 가슴이 떨리고 사지가 꼬여들어 꿋꿋해가지고 눈알을 굴리며 서로 바라보기만 하였다.

그러거나말거나 로인은 태연하게 하던 말을 계속하였다.

《그 귀신을 쫓기 위해 액막이를 하느라고 제사물건을 마련할것도 없수다. 그저 오늘 밤중에라도 당장 평양성에서 빠져나가 제 소굴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수다.》

이렇게 말을 마친 로인은 흰 두루마기자락을 날리며 문밖으로 천천히 사라졌다.

적장과 졸개들은 그 로인이 조선백성인지 아니면 신령인지 알수 없어 넋을 잃고 어둠속으로 유유히 사라지는 그를 한동안 멍하니 바라보기만 하였다.

한참만에야 제정신을 차린 고니시는 고래고래 소리를 치며 로인을 붙잡아들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로인은 이미 어디로 사라졌는지 행방을 알수가 없었다.

하루빨리 평양성에서 물러가라는 로인의 말에 더욱 분기가 오른 고니시는 어떻게 하나 평양성에 눌러앉아 보려고 졸개들을 들볶았다.

그러나 일은 놈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얼마후 놈이 오른팔처럼 믿던 장수 하나가 김응서와 평양의 명기 계월향에 의하여 목이 떨어져나갔다.

1593년 1월 적들은 평양성군민들의 공격으로 수많은 시체를 남겨두고 남쪽으로 내빼고말았다.

이때부터 인민들은 보통문을 신문이라고 부르면서 평양지방의병들의 투쟁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오고있다.

도끼장수

보통강의 상류를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느라면 도끼산(부산)이라 부르는 산이 있다.

이 산을 도끼산이라고 부르게 된 사연은 다음과 같다.

먼 옛날 평양성안의 어느 한 마을에 귀성이라는 총각이 어머니 홍씨와 함께 살고있었다.

귀성은 일찌기 아버지를 여의고 나무장사를 하며 근근히 살아왔다.

다 자라 장정이 된 다음에도 그는 여전히 도끼를 차고 산판을 오르내리면서 나무를 해다 파는 일밖에 몰랐다.

이러한 아들을 보기가 민망스러워 그의 어머니 홍씨가 하루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귀성아, 나무장사라는건 아이들이나 늙은이들이 할 노릇이지 장정들이 할 일이 못된다. 장가갈 나이가 다 된 너를 두고 마을사람들이 더벅머리나무장사군이라고 부르는 말을 정말 듣기 싫구나.》

그러면서 어머니는 아들에게 남이 우러러보는 일은 못하더라도 장정축에 끼우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고 하였다.

어머니의 말을 묵묵히 듣고있던 귀성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어머니, 저는 어려서부터 배우고 익힌것이 도끼질이여서 이 세상에서 도끼질보다 더 낫게 할 일은 없을가 합니다. 한가지 일이라도 잘해서 먹고 살면 그만이지 남들의 말밥이 두려워 하고싶은 일을 버리겠습니까.》

어머니는 아들에게 더 다른 말을 못하였다.

그러나 다 자란 아들에게 짝도 무어주지 못하고 남들 못지 않게 내세워주지 못하는 생각으로 몹시 서운해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에 임진조국전쟁이 터지였다.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른다고 왜놈들은 우리 나라를 단숨에 삼켜보려고 서울을 지나 곧바로 평양성을 향해 쳐들어왔다.

이 소식을 들은 평양성사람들은 저저마다 떨쳐나서 의병을 뭇고 왜놈들과 싸울 준비를 갖추었다.

귀성도 왜놈들과 싸우러 의병에 들겠다고 어머니에게 청하였다.

어머니는 기뻐하며 어서 떠나라고 하였다.

백성으로서 나라를 지켜 원쑤치러 나서는것은 응당한 도리이고 본분이였으나 그보다 자기 아들이 지게와 도끼를 버리고 창과 칼을 쥔 어엿한 의병으로 장정들속에 끼우게 되는것이 무척 자랑스러웠던것이다.

어머니는 아들이 의병에 나간 그날부터 큰 공을 세웠다는 소식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이때 평양의병대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하여 평양성을 내주고 주변의 산들에 진을 쳤고 평양의 남녀로소들도 피난을 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평양의병대가 성을 떠나 보통문으로 나가는 날이였다.

어머니는 피난갈 생각도 잊고 보통문가에 달려나가 긴 의병대렬을 지켜보았다.

창과 칼을 쥐고 장정들속에 끼워있는 어엿한 아들의 모습을 보고싶었던것이다.

홍씨곁에 모여서서 의병대오를 지켜보고있던 로인들과 아낙네들이 자기 아들이나 남편이 지나가는것을 보고는 그들에게 달려나가 손을 잡아 흔들며 잘 싸우라고 고무해주군 하였다.

홍씨도 이제 아들이 나타나면 남들 못지 않게 자랑스럽게 아들을 부르며 달려나가리라 생각하면서 초조하게 대오를 살피였다.

그런데 긴 대오가 어느덧 지나가고 맨뒤 화식을 맡은 소바리대오가 그의 앞을 지나게 되였는데도 아들은 보이지 않았다.

이런 때 등뒤에서 《어머니!》 하고 부르는 아들의 목소리가 울리였다.

순간 기쁨에 넘쳐 뒤를 돌아보던 홍씨는 그만 아연해졌다.

칼을 차고 창을 들고 있을줄 알았던 아들이 지게를 진데다 한손엔 소고삐를 쥐고 다른 손엔 도끼를 쥐고 뛰여오면서 웃고있었던것이다.

《아니, 너 의병대에 들어가서도 그것을 못버렸느냐?》

어머니는 남들 보기가 부끄러워 큰소리도 못지르고 속삭이는 말로 따졌다.

《제가 스스로 이 일을 맡았어요. 나무를 해오고 장작을 패는데서 나보다 나은 사람이 없더군요.》

어머니는 그렇게 벼르던 말 한마디도 해주지 못하고 넋을 잃은 사람처럼 멍청하니 서서 멀어져가는 아들의 뒤모습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아들과 헤여진 홍씨는 인차 집으로 돌아와 짐을 싸가지고 성밖의 어느 한 산속으로 피난을 갔다.

그곳에 가서는 아들의 소식을 더는 기다리지 않았다.

의병대에서 나무나 하고 불이나 때는 주제에 무슨 반가운 기별이 있을가고 단정했던것이다.

의병대에서 화식을 맡은 귀성은 하루와 같이 부지런히 자기 일에 전심하였다.

의병들이 무기를 만들고 무술을 닦을 때면 그는 장작을 팼고 의병들이 원쑤들을 치러 나갈 때면 그는 도끼를 들고 나무를 하러 산으로 오르군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평양성안에 갇혀있던 왜놈의 한 부대가 북쪽으로 침입하기 위하여 출동한다는 통지가 왔다.

의병대는 곧 왜놈들이 지나갈 길목에 매복을 펴고 기다리고있었다.

이날도 귀성은 나무를 하려고 도끼를 쥐고 산으로 올랐다.

산에 오른 귀성은 울창한 밀림속에서 마른 나무를 찾아 이리저리 다니고있었다.

귀성이 어느 한곳을 지나려는데 어디선가 와슬렁거리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가만히 서서 주위를 살피던 귀성은 깜짝 놀랐다.

산밑을 내려다보니 왜놈들이 불개미처럼 한벌 쭉 깔리여 아름드리나무사이로 살금살금 기여오르고있었다.

《이놈들아, 어디로 감히 기여오르느냐?》

귀성은 벼락같은 소리를 치면서 도끼를 추켜들고 왜놈들을 맞받아 달려나갔다.

왜놈들은 뜻밖에 나타난 귀성을 보자 소동을 일으키며 대항하려 하였으나 귀성의 도끼날에 삼대 쓰러지듯 목이 떨어졌다.

사람의 몸이나 겨우 빠져나갈수 있을 정도로 아름드리나무가 빽빽이 들어찬 수림속이였기때문에 조총과 긴창이 앞뒤나무에 걸치고 부딪쳐서 산세에 어두운 왜놈들은 수가 많았지만 큰 나무를 안고 돌면서 도끼를 휘두르는 귀성을 당해낼수가 없었다.

더구나 귀성의 도끼질은 어려서부터 익혀온데다가 왜놈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을 안고 휘둘러대였으므로 적들은 감히 저항하지도 못하였다.

왜놈들은 렴탐을 통하여 의병들이 길목을 지킨다는것을 알고 길을 에돌아 나무가 울창한 산으로 은밀히 빠져나가려다가 이런 봉변을 당했던것이다.

왜놈들이 길을 에돌아 산속으로 빠져나간다는 통보를 받은 의병들이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수림속에 들어섰을 때는 이미 귀성의 시퍼런 도끼날에 왜놈들이 몽땅 쓰러진 후였다.

영문을 알수 없어 사방을 두리번거리던 의병들은 골짜기에서 나무를 찍는 귀성을 발견하고 모든것을 알수 있었다. 그들은 수걱수걱 밥짓는 일이나 하며 눈에 띄우지도 않던 귀성에게 백, 천을 당하는 장수의 힘과 담력, 용맹이 있음을 깨닫고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이 일이 있은 다음 귀성은 도끼장수로 의병들속에서만 아니라 왜놈들속에서까지 소문이 짜하게 퍼졌다.

왜놈들은 의병들과 싸우러 나왔다가도 귀성이 말을 타고 큰 도끼를 휘두르며 나갈 때면《도끼장수다!》하고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해서 달아나군 하였다.

드디여 왜놈들을 몰아내고 평양의병대들이 성안으로 들어오던 날 평양성사람들은 그들을 환영하면서 유명한 도끼장수를 보겠다고 발돋움하며 그를 찾았다.

기름진 갈색준마에 황금빛투구, 번쩍거리는 갑옷을 떨쳐입고 옆구리에는 도끼를 찬 그 이름 높은 장수가 바로 평양성의 귀성이라는것을 알아본 사람들은 저저마다 환성을 올렸다.

젊은 장수의 얼굴이 어딘지 낯이 익다는 생각은 하

면서도 인차 자기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 홍씨는 옆사람들의 귀속말을 듣고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다시 눈을 비비고 바라보니 분명 자기 아들 귀성이 틀림없었다.

홍씨는 무작정 사람들을 헤치고 앞으로 달려나갔다.

《귀성아, 그 유명한 도끼장수가 너였단 말이냐?》

모여선 사람들은 훌륭한 아들을 키운 홍씨를 부럽게 바라보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들중 한 로인이 홍씨앞으로 나서며 물었다.

《여보시우, 어떻게 이처럼 훌륭한 아들을 키웠소?》

홍씨는 자기를 우러러보고있는 여러 사람들을 둘러보고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무슨 일이든지 한가지라도 직심스럽게 성실하게만 하면 집안에는 효자가 되구 나라에는 충신이 될수 있는 거지요.》

홍씨는 언제인가 아들이 하던 말이 생각나서 저도모르게 이같이 대답했던것이다.

그후 도끼장수는 평양의병들과 함께 왜놈들을 남해바다가로 쳐몰아내는 싸움에서 큰 공을 세웠다.

평양성사람들은 귀성의 공을 길이 전하기 위하여 그가 처음으로 왜놈들을 쳐눕힌 산을 도끼산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쥐의 사당

을밀대에서 남쪽을 내려다보면 평평한 공지가 있다.

먼 옛날 이 공지 한켠에 쥐를 위해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 있었다고 한다.

쥐란 놈은 사람들의 생활에 해만 주는 동물이다. 그런데 이런 쥐의 사당이 모란봉에 생겨나게 된데는 다음과 같은 사연이 있다고 한다.

머나먼 옛날 금수산 청류벽에는 쥐가 많았다.

쥐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먹을것을 찾아 이동할 때는 금수산의 골안을 꽉 메였다고 한다.

어느해 여름이였다.

수만명의 외적들이 평양성으로 쳐들어와 치렬한 싸움이 여러날동안 계속되였다. 화살도 떨어지고 지칠대로 지쳤다.

어느날 날이 밝자부터 공격해오던 적들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무슨 영문인지 몰라 평양성사람들은 날랜 젊은이를 뽑아 적진으로 들여보냈다.

적진속에 들어가 적의 동태를 살피던 젊은이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적진주변의 숲속에는 쥐무리들이 욱실거리고있는데 적들의 활에는 활줄이 하나도 없었고 북통에는 가죽쪼각 하나 붙어있는것이 없었다.

간밤에 모란봉의 쥐들이 적진으로 몰려들어가 적의 활줄과 북통들의 가죽을 모조리 쏠아놓았던것이다.

뜻밖에 쥐한테서 피해를 입고 싸울수 없게 된 적들은 하는수없이 도망치지 않으면 안되였다.

평양성사람들은 때를 놓치지 않고 도망가는 적을 모조리 쓸어눕혔다. 평양성의 쥐들도 《고향》을 지켜 싸운 셈이였다.

평양인민들은 비록 평시에는 사람들의 살림에 손해를 주어왔으나 외적과의 싸움에서는 한몫 한 쥐의 《공로》를 기특하게 여기고 을밀대아래 공지에 쥐의 사당을 세웠다고 한다.

그리고 명절날마다 쥐의 사당앞에서 무술경기를 벌리며 외적을 칠 힘을 키웠고 사당을 오래도록 보존하여 왔다고 한다.

창광산의 유래

보통문에서 천리마거리를 따라 평양역방향으로 가느라면 왼쪽에 나직한 산이 있는데 이 산이 바로 창광산이다.

이 산을 원래부터 창광산으로 불러온것은 아니였다.

창광이라고 불리우게 된 사연은 다음과 같다.

1135년 묘청의 정변을 계기로 평양성인민들이 고려봉건통치배들의 심한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여 투쟁에

떨쳐나섰던 때에 있었던 일이다.

이해 2월에 고려봉건통치배들은 평양성인민들의 투쟁을 진압해보려고 수많은 관군을 평양성으로 내몰았다.

관군은 평양에 도착했으나 성밖에서 맴돌기만 하고 감히 공격하지 못하였다.

슬기롭고 용맹한 평양성인민들은 관군을 맞받아 굴함없이 싸웠다.

관군이 돌포를 쏘면 평양성인민들도 돌포를 쏘았고 관군이 화살을 날려보내면 평양성인민들도 화살로 대항하였으며 관군이 성벽으로 기여오르면 부녀자들까지 돌과 기와장을 내리던져 조금도 범접치 못하게 하였다.

격전은 9～10월에 이르도록 계속되였다.

한개 성이 나라의 관군과 대결하여 이처럼 장기간 싸운다는것은 여간 힘겨운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평양성인민들은 관군이 보충되거나 무장장비가 보강되여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

다만 문제는 싸움이 길어지면서 막을수 없이 엄습해오는 식량난이였다.

봉건통치배들에게 빼앗기여 원래 먹을것이 거덜이 났던 형편인데다가 2월부터 온 성안이 떨쳐나 관군과 싸우다보니 봉기자들은 봄씨붙임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모내기철도 놓치였다.

봉기자들은 죽 한사발을 가지고 여러명이 나누어먹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였다.

평양성인민들은 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하는 싸움에서 하루에 죽 한숟가락을 먹어도 고통으로 여기지 않았지만 관군이 이러한 형편을 알고 날치게 될것을 못내 안타까워하였다.

평양성인민들은 기근이 휩쓸고있는 성안의 약점을 관군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가능한 방도를 다 찾아보았다.

집집마다에서 끼니를 끓일것은 없어도 아침저녁 번지지 않고 아궁에 불을 지펴 굴뚝들에 연기를 피워올리였고 어떤 집들에서는 한밤중에 진흙을 파다가 떡돌우에 올려놓고 떡메를 휘둘러쳐서 《철썩》, 《철썩》떡치는 소리가 성밖에 울려나가게 하였다.

하지만 이런 방법만으로는 성안에 쌀이 많다는것을 관군에게 보여주기가 불충분하였다.

성안의 인민들과 지휘관들은 어떻게 하면 식량난에 봉착한 성안의 약점을 숨기고 쌀이 많다는것을 보여줄것인가 하는 생각에 골몰하였다.

이런 때에 한 로인이 성안의 지휘처로 찾아왔다.

《예로부터 아무리 배불리 먹고 나선 사람이라도 의관이 초라하면 업심을 당했고 비록 아침을 굶고 나서도 의관이 의젓하면 존대를 받았으니 우리도 의관을 잘 갖

추어 관군에게 업심을 받지 않게 하는것이 어떻겠소?》

《아니, 로인님은 정신이 나갔소? 우리가 지금 그런 의관을 쓰고 거들먹거리는 놈들을 치자고 싸우는 판인데 의관을 차린다는것이 될 말이요?》

로인의 속마음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지휘처의 한 장수는 이렇게 버럭 소리를 쳤다.

그러자 로인은 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를 타고난 천민으로 보고있는데 의관을 잘 차린다고 관군이 우러러 보겠소? 내가 말하자는건 우리의 평양성에 의젓한 의관을 갖추어주자는것이웨다.》

《평양성에 의관을 갖추어준다구요?》

주위에 둘러섰던 사람들은 어떤 묘한 방도가 있는가고 다우쳐물었다.

《그렇소이다. 그 일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싶거든 나를 따라오시우.》하고 로인은 먼저 문밖으로 나갔다. 여러 사람이 호기심이 동하여 그의 뒤를 따라나섰다.

로인은 성 남쪽에 있는 나직한 산등성이에 이르러 걸음을 멈추었다.

그곳에는 수십명의 늙은이들이 기다리고있었다.

《자, 이 산이 생김새로 보나 높이와 둘레로 보나 큰 쌀더미로 만들어보이기에는 알맞춤한 산이 아니겠소?》

《쌀더미로요?》

《생각해보시우. 여기다 누런 거적을 가져다 씌워놓으면 누가 산이라고 하겠소? 영낙없이 쌀더미로 볼판이지. 이렇게 놓고보면 한쪽에 큰 쌀더미를 끼고 앞성벽우에는 용맹한 장정들이 창칼을 들고 서있을 우리 평양성의 의관이 얼마나 의젓하겠소.

그러면 관군도 우리 평양성을 업수이 보지 못하거니와 함부로 덤벼들 생각을 못하고 물러갈게 아니겠소.》

로인의 말을 듣고 사람들은 무릎을 치면서 즉시로 온 성안을 동원하여 그렇게 하자고 하였다.

성안의 인민들은 저저마다 거적들을 이고지고 성 남쪽에 있는 이 산으로 물밀듯이 모여들었다. 집에 거적이 없는 사람들은 몰래 성밖으로 나가서 구해오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 이영을 벗겨가지고 달려왔다.

그리하여 하루밤사이에 산은 누런 거적으로 들씌워져 나무랄데 없는 큰 《쌀더미》로 변하였다.

그 주위에 창을 쥔 파수병까지 촘촘히 세우니 그 진속을 아는 사람들도 정말로 《쌀더미》가 아닌가싶을 정도였다.

이럴즈음에 성밖에 토성을 쌓고 성안을 넘겨다보던 관군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반년 가까이 포위속에 들어있는 평양성안에는 이미 식량이 떨어졌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성 남쪽에 산같이 높은 누런 쌀더미가 솟아있을뿐아니라 집집의 굴뚝들에서는 아침저녁 밥짓는 연기가 뭉게뭉게 피여오르는 것이였다.

관군은 그 쌀더미를 보고 평양성사람들이 오늘의 항전을 예견하여 여러해동안 군량을 저축해온 모양이라는 생각이 들자 기가 꺾이고 더 싸울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관군을 거느리고왔던 관료도 하는수없이 왕에게 평양성을 공격하기 어렵다는 장계를 올렸다.

장계에서 그는 평양성봉기자들이 수적으로나 무장에서 관군에 못지 않을뿐아니라 부녀자들도 돌과 기와장을 날리며 결사적으로 대항하므로 쉽게 성을 함락시킬수 없으며 성안에는 아직도 장만해놓은 식량이 산더미같이 쌓여있다고 우는 소리를 하였다.

그후 폭동이 력량상차이로 말미암아 비록 관군에게 진압되기는 하였으나 평양성인민들은 1135년 1월부터 1136년 2월까지 관군과 대결하여 굴함없이 싸운 자랑찬 위훈과 슬기를 길이 전하기 위하여 쌀더미로 위장했던 산을 《창고창》자와 《볼 관》, 《메 산》자를 써서 창관산으로 불러왔는데 후세에 음이 변하여 창광산으로 되였다고 한다.

떠내려온 릉라도

평양의 청류벽과 모란봉을 옆에 끼고있는 릉라도는 그 아름다움과 함께 전설도 많이 깃들어있는 곳이다.

대표적인 전설중의 하나가 떠내려온 릉라도이다.

릉라도는 원래 대동강의 상류인 성천의 비류강가운데 있었다고 한다.

릉라도가 성천경내에 있을 때는 땅이 기름지여 오곡이 잘되였고 언제나 풍작을 거두군 하였다. 그러므로 부근의 가난한 농부들이 모여들어 이 섬에는 커다란 마을이 생기게 되였다.

그들은 비옥한 땅의 덕분으로 해마다 풍작을 거두었으나 량반통치배들이 눈독을 들이게 되면서부터 견디기 어려운 수탈을 당하게 되였다.

통치배들은 이곳 농부들로부터 기름진 알곡이며 탐스러운 과일과 남새들을 해마다 깡그리 빼앗아갔다.

해마다 늘어나는 각종 명목의 착취로 하여 섬사람들의 생활은 더욱 쪼들려갔고 봉건통치배들에 대한 원한은 날에 날마다 높아졌다.

섬사람들의 고혈을 가장 악착하게 짜낸자는 박가성을 가진 성천부사였다. 박부사는 한말의 낟알, 한알의 과일이라도 더 빼앗기 위하여 직접 아전들을 데리고 나와 집집을 뒤지며 깡그리 긁어가군 하였다.

그리하여 섬의 사람들은 양덕, 맹산의 호랑이라도 내려와 박부사를 물어가라고 빌었고 섬이 성천고을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다고들 하였다.

섬사람들의 원성과 갈망이 하늘에 사무쳤던지 어느해 여름에 이곳에서는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이해 여름 장마철에 먹장구름이 하늘을 덮으며 사방에서 밀려들더니 하늘에서는 동이로 물을 쏟아붓듯이 대줄기같은 비가 억수로 퍼부어졌다.

마침내 비류강에는 바다처럼 사품치는 뻘건 물이 넘쳐흘렀고 세찬 물살에 밀려 섬이 움씰움씰 움직이더니 물길을 따라 아래로 떠내려가기 시작하였다.

캄캄한 어둠속에서 릉라도가 표류하는 배처럼 흘러내리다가 멈춰선 곳이 바로 모란봉밑 청류벽앞 대동강 한복판이였다.

섬이 멈춰선 다음 주위를 살펴보던 섬사람들은 기쁨을 금할수 없었다.

처음에 큰물을 만나 간이 콩알만 해서 다 죽은줄로만 알았는데 섬과 함께 생명을 보존하였을뿐아니라 악착한 성천부사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별천지와 같은 곳으로 이사를 왔기때문이였다.

그들은 비물에 허물어진 집들을 수리하고 패여나간 논밭을 가꾸며 새 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기쁨은 얼마 가지 못하였다.

기름진 섬을 잃어버린 성천부사는 큰 고기덩이를 잃은 맹수마냥 날뛰면서 섬을 찾으라고 온 고을사람들을 내몰았다.

일년나마 수소문하다가 그 섬이 평양성밑으로 떠내려갔다는 말을 들은 성천부사는 헐레벌떡이며 달려왔다.

이자는 오자바람에 이 섬은 자기네 관내에 있던 섬이고 사람들도 자기 관청의 호적에 등록된 사람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받아가지 못한 조세를 내라고 불같이 독촉하였다. 그리하여 릉라도사람들은 또다시 성천부사의 착취에 시달리게 되였다.

이때부터 그들은 그전보다 몇갑절 더 큰 고통을 당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이 생산한 곡식과 과일, 남새 등을 배나 수레, 등짐으로 성천까지 실어다가 바쳐야 하였다.

그뿐아니라 성천부사는 바치는 기일이 늦어지거나 날라간 곡식과 과일, 남새가운데서 조금이라도 변질간것이 있으면 리유를 불문하고 악착하게 형장을 안기였다.

한해, 두해 이런 고역에 부대끼던 릉라도사람들은 더이상 그대로 살아갈수가 없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이런 고달픔과 고역을 조금이나마 덜어볼가 하여 평안감영에 있는 감사에게 상소를 하기로 하였다.

그들은 릉라도가 이전에는 성천땅에 있었으나 장마철에 떠내려와 지금은 평양성에 있으니 응당 성천의 관할하에서 벗어나 평양부의 관할하에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고 하면서 조세를 바치여도 길이 먼 성천으로 가져갈것이 아니라 평안감영에 바치게 하여주기 바란다고 하였다.

평안감사도 기름진 릉라도를 두고 침을 흘리던중이라 릉라도사람들의 소송이 옳은것이라고 생각하고 곧 성천부사에게 섬을 평양부에 이관하라고 통지를 띄웠다.

통지를 받은 성천의 박부사는 펄쩍 뛰였다.

그러나 평안감영으로 달려온 성천부사는 평안감사가 자기보다 벼슬이 높은 상관인지라 막무가내로 거역하지는 못하였다.

그는 속으로는 언짢게 생각하면서도 겉으로는 싹싹한 말씨로 섬은 예로부터 성천고을에 속한것이니 평양부에 넘겨줄수 없다고 집요하게 주장하였다.

부사의 간사한 속심을 꿰뚫어보고있던 평안감사는 엄한 빛을 지으며 잘라말하였다.

《좋다. 정 평양부에 넘기지 못하겠으면 오늘중으로 당장 릉라도를 성천관내로 옮겨가거라. 그렇지 않으면 그 땅은 래일부터는 평양부의것이니 넘겨다볼 생각을 아예 말거라.》

성천부사는 입을 딱 벌리고 아무 대답도 못하였다.

성천부사는 섬을 떼우는것이 분하였으나 어쩌는수가 없었다.

부사는 얼굴이 고추빛이 되여 땀만 흘리며 갑자르다가 그대로 돌아갔다.

이리하여 릉라도는 평양부의 땅으로 되였고 조세와 공물은 평안감영에 바치게 되였다.

평양인민들의 고상한 도덕의리

임금의 사위가 된 군사

먼 옛날 안학궁의 임금에게는 선녀처럼 아름답게 생긴 공주가 있었다.

임금은 공주가 시집갈 나이가 되기 전부터 알맞는 사위감을 고르려고 왼심을 썼다.

그러나 공주와 짝지지 않을만 한 인품과 재능을 가지고있는 사위감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다.

인물이 잘났으면 재능이 없고 재능이 있으면 인품이 높지 못하였다.

장가갈 나이가 된 재상의 아들들은 은근히 임금의 사위가 되고싶어 갖은 수단과 방법으로 몸치장을 하고 비상한 글재주와 무예를 지니고있다는 소문을 돌리였다.

허지만 모두 임금의 눈에 들지 못했고 인품과 재능에 대한 심사에서 퇴를 맞았다.

그러다나니 임금이 귀중히 여기고 수많은 고관의 자식들이 넘겨다보는 공주는 시집갈 나이가 되였어도 아직 배필을 정하지 못한채 한해, 두해를 넘기였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뜻밖에 대궐에서 큰 화재가 일어났다.

아닌 밤중에 갑자기 일어난 불길은 온 대궐을 삽시에 불바다로 만들었다.

임금은 꿈을 꾸는듯 신하에게 업히여 대궐밖에 나와서 한동안 정신없이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기만 하였다. 그러다 정신을 차리여 대궐이 타고있는것이 꿈이 아니라 생시라는것을 알게 되자 자기 집안사람들이 다 무사히 빠져나왔는가고 찾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그처럼 귀한 공주가 보이지 않았다.

임금은 신하들에게 공주가 어떻게 되였는가고 물었으나 누구 하나 대답이 없었다.

공주는 깊은 왕궁후원의 독채에 살고있었다.

시중드는 궁녀들도 필요없이 후원에 감히 드나들지 못하고있었으므로 신하들은 창황중에 미처 공주를 생각하지 못했던것이다.

임금은 공주가 빠져나오지 못한것이 분명하다는것을

알고 신하들에게 당장 들어가 구해내오라고 령을 내리였다.

그러나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하였다.

벌써 하늘로 치솟아오르는 불길에 기와장이 콩볶듯 튀고 온통 불도가니같이 된 궁궐안으로 들어가면 어찌 살아나올수 있겠는가.

이것을 모를리 없는 임금은 더 호통을 치지 못하고 신하들에게 맥빠진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저 불길속에 들어가 공주를 구원해내오는 사람은 부마로 삼겠다.》

그제야 잠잠했던 신하들가운데서 한 장수가 불쑥 앞에 나섰다. 얼굴이 씨원스럽게 생기고 체구가 큼큼한 젊은 장수였다.

《제가 기어이 공주님을 구원해오리다.》

젊은 장수는 온몸에 물을 끼얹고 불길에 휩싸인 대궐로 뛰여들어갔다.

그가 내궁에 들어가 후원에 있는 공주의 궁전앞에 이르렀을 때였다.

불에 타던 집채가 와지끈 하고 내려앉았다.

《아뿔싸, 끝장이로구나!》

맥이 풀린 장수는 하는수없이 돌아나왔다.

임금은 온몸이 불에 그슬리고 얼굴에 화상까지 입고 빈손으로 돌아온 장수의 말을 듣고 땅을 치며 통곡하였다.

《아이쿠, 내 딸아! 네가 정녕 죽었단 말이냐?!》

임금과 함께 신하들도 한창 통곡하고있을 때였다.

《부왕마마!》 하는 녀자의 목소리가 들리였다.

통곡하던 임금과 신하들이 얼굴을 들어 바라보니 한 군사가 끌고오는 말우에 공주가 타고있었다.

《아니, 이게 내 딸이 아니냐?!》

임금은 벌떡 일어나 말에서 미끄러지듯 내리는 공주를 붙안으며 소리쳤다.

한참 딸을 품에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나서야 임금은 공주에게 물었다.

《네가 그 불길속에서 어떻게 살아났느냐?》

그러자 공주는 말고삐를 쥐고 먼발치에 서있는 군사를 가리키며 말하였다.

《저 군사가 불속으로 뛰여들어와 저를 구원했나이다.》

《뭐라구, 군사가?》

이 말을 듣고 군사를 바라보던 신하들이 웅성거렸다.

《그럼 저 군사가 공주에게 장가들어야겠군.》

《군사가 어찌 부마가 될손가?》

임금은 빈정거리는 관리들의 말을 들었는지 못들었는지 군사에게로 다가갔다.

《네가 내 딸을 구원하였느냐?》

구리빛얼굴에 체격이 우람한 군사가 땅에 엎드리며

임금에게 아뢰였다.

《소인이 창졸지간에 공주님을 구원치 못했다는 전하의 목소리를 듣고 달려가보니 다행히도 불속에 묻힐 순간이였기에 구원했나이다.》

《그럼 너는 내 딸을 구원하면 부마로 삼겠다는 말을 듣고 구원했느냐?》

《아니옵니다. 그런 말을 듣기 처음이옵니다.》

《그러면 너는 죽음을 무릅쓰고 불속에 들어가 공주를 구원하면서 무엇을 바랬느냐?》

《군사가 바랄것이 무엇이 있겠나이까. 목숨을 바쳐 밖으로 외적을 막고 안으로 생명재산을 지키는것이 군사의 본분인줄 아옵니다.》

《본분으로 생각하고 나섰단 말이지.…》

《그렇소이다.》

《그렇다면 너는 과시 부마로 될만 하다.》

임금은 감격해하면서 부복하고있는 군사의 두팔을 잡아일으켜 세웠다.

《황송하오나 소인은 천한 백성의 자식이요, 조약돌같은 군졸인데 어찌 감히 부마가 되겠나이까.》

《아니다. 나라의 록봉을 받아먹는 사람도 공주를 구하기 위해 불속에 뛰여들지 못했고 부마로 삼겠다고 해서야 겨우 한명이 나섰을뿐인데 그들속에서 어찌

부마감을 다시 찾으랴! 그대가 부마가 되여 나라일을 받들어주면 밖으로 외적이 얼씬 못할것이고 안으로 백성이 태평할것이니 그대와 같은 부마를 내 또 어디서 구하겠느냐. 더 사양치 말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한목숨 바쳐 밖으로 외적을 막고 안으로 백성을 위하는것을 본분으로 여기며 살아오던 군사가 공주에게 장가를 들고 임금의 사위가 되였다고 한다.

응국교

먼 옛날 보통강의 서쪽에 객산이라고 부르는 나직한 산이 있었다.

이 산을 객산이라고 부르게 된것은 서쪽에서 평양성으로 드나드는 사람들이 이 산에 이르러 쉬여가거나 성문을 여닫는 때를 기다려 묵기도 하면서 늘 손님이 그칠사이없는 산이였기때문이라고 한다.

이 산기슭에 조응국이라는 사람이 살고있었는데 그에게는 석운이라는 귀여운 아들이 하나 있었다.

늦게 본 아들인데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여서 조응국은 아들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을뿐아니라 그가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래서 조응국은 아들에게 늘 이렇게 훈시하였다.

《범은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기느니라. 너는 꼭 훌륭한 사람이 되여 세상에 이름을 떨치거라.》

이런 훈시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오며 자라던 아들이 여라문살 되던 해 어느 하루는 아버지에게 세상에 이름떨칠 위인이 되기 위해 도를 닦으러 집을 떠나겠다고 하였다.

귀한 아들이 기약없는 길에 나서겠다는 말에 조응국은 걱정되는바가 없지 않았으나 아들의 장래를 위해 기꺼이 승낙하였다.

아들은 집을 떠나는 날 세상에 이름을 떨치지 않고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응국은 아들이 떠난지 5년이 되면서부터 이제나저제나 아들이 돌아올것만 같아 아침저녁마다 큰길가에 나앉아 기다리군 하였다.

이런 나날속에 응국은 마을어귀의 큰길이 우묵하게 패워 비가 조금만 와도 못처럼 물이 고이고 장마철에는 비물이 길우로 넘쳐흘러 길손들이 매우 불편해하고 또 자주 길이 막혀 마을에서 묵어가군 하는것을 보게 되였다.

예로부터 묵어가는 사람들이 많아 마을뒤산이름도 객산이라고 불리오고있었지만 응국은 이것이 다 이 마을에 살고있는 주인들이 길 하나 똑똑히 닦지 못한탓이라고 죄스럽게 생각하였다.

드디여 응국은 길손들을 위해 넓고 든든한 다리를 하나 놓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는 아들을 기다리면서 길가에 나와있는 동안 큰돌들을 모아놓고 또 짬짬이 산에 올라 나무를 찍어 몇년사이에 다리감을 장만해놓았다.

그런 다음 집재산을 바쳐 인부를 사서 몇달안에 넓고 긴 다리를 보기 좋게 세워놓았다.

험했던 길우에 큰 다리가 생겨 불편없이 다니게 된 길손들은 응국을 찾아와 고맙다고 인사를 하였다.

그럴 때마다 응국의 마음은 길가의 마을에 사는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했다는것과 함께 그 다리우로 세상에 이름을 떨치고 돌아올 아들을 떳떳이 맞이할수 있게 되였다는 생각으로 한없이 기뻤다.

그러나 그처럼 기다리고기다리던 아들은 10년이 지나서도 돌아오지 않았다.

응국은 끝내 세상에 이름을 떨치고 돌아오는 아들을 보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다.

응국이 세상을 떠나자 그의 일가친척과 이웃마을사람들뿐아니라 다리신세를 지는 많은 손님들이 조문을 하였고 응국의 소행을 길이 전하자고 다리목에 큰 비석을 세우고 다리이름도 객산밑에 있다고 객산교라고 불러오던것을 응국교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한편 세상에 이름을 떨칠 도를 닦기 위해 집을 떠났던 아들 석운은 처음엔 유명한 련무당이 있다는 심산속에 들어가 무술을 익혔다.

그런데 어려서 고이 자라서인지 아니면 타고난 재질이 모자랐던탓인지 무술닦기가 몹시 힘겨웠고 성과가 쉬이 나타나지 않았다.

5년만에야 평양성에서 벌어진 무술경기에 참가해보았지만 겨우 꼬리등수에나 들었다.

그리하여 그는 집으로 돌아갈수가 없었으므로 한숨만 쉬고있었다.

이때 그의 동료들은《자네 용모가 계집처럼 곱게 생기고 성품도 얌전하여 문관의 기질을 지녔으니 이제라도 글공부를 해보는것이 어떤가.》고 권하였다.

그 말도 그럴듯 하여 석운은 곧 문인들이 모여 도를 닦는다는 금강산으로 떠났다.

그는 글공부로써 이름을 떨쳐볼 각오밑에 10년을 기한으로 성인들의 글을 통달하기에 몰두하였다.

이렇게 한 여섯해를 보내고있을 때였다.

어느 하루 석운은 동무들과 함께 머리도 쉬울겸 구룡폭포에 놀러갔다.

마침 석운은 그곳에서 금강산유람을 온 장사군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였다.

여담끝에 석운의 고향이 평양성 서쪽 보통벌의 객산기슭이라는것을 알게 된 한 장사군이 무릎을 치며 반가와하였다.

《참 좋은 고향을 두었네. 우리도 그 마을에 있는 응국교의 신세를 많이 지지.》

《응국교라니요?》

석운이 어리둥절해하자 장사군들은 저저마다 응국이라는 사람이 길손들의 불편을 덜어주려고 자기 힘과 재산을 다 바쳐 큰 다리를 놓은 이야기와 그가 죽은 뒤 그의 소행을 길이 전하자고 비석까지 세워주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석운은 그날밤 잠들지 못하였다.

그제야 자기가 10여년이란 긴 세월 도를 닦느라고 갖은 애를 썼으나 세상에 이름을 날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소원도 풀어드리지 못한것을 알게 되였다.

석운은 그 이튿날 글공부를 단념하고 평양으로 돌아왔다. 고향에 들어서니 과연 그전에 없던 큰 다리가 솟아있고 그 다리목에는 아버지의 소행을 칭송하여 세운 비석이 있었다.

그는 비석을 그러안고 울고 또 울었다.

《어이하여 일찌기 저에게 인간의 참된 길을 가르쳐주지 못하셨나이까.》

길손들과 마을사람들이 그 울음소리가 하도 구슬프고 부르짖는 말이 하도 이상하여 그를 달래며 물었다.

《그대는 어디 사람이며 이렇게 통곡하는 리유는 또 무엇이요?》

그제야 울음을 그친 석운은 길손들과 마을사람들에게 자기를 소개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저의 부친은 제가 집을 떠나는 날 사람은 세상에 나서 이름을 남겨야 한다고 가르쳤소이다. 그런데 아버님의 그 말씀의 깊은 뜻을 다 깨닫지 못한 이 불효자식은 공명에 들떠 이리저리 10년이나 헛길을 걸었습니다.

제가 떠나는 날 아버님께서 누가 뭐라든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 나라와 백성을 위한 일을 꾸준히 해야 세상에 이름이 남는다고 한마디만 해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길손들과 마을사람들은 남의 일같지 않아 모두 한숨을 쉬였다.

뒤늦게나마 사람이 세상에 태여나서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것을 깨닫게 된 석운은 공부하고싶어하는 어린아이들에게는 글을 가르쳐주었고 무사가 되고싶어하는 젊은이들에게는 자기가 익힌 무술을 배워주기 위하여 모든 정력과 지혜를 고스란히 바쳐갔다.

그러자 마을사람들은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라고 칭찬하였다.

그리고 후날에 그의 극진한 가르침으로 훌륭한 문인과 무사로 자라난 제자들과 평양성사람들은 조석운의 이름을 두고두고 길이 전하였다고 한다.

주암산

모란봉에서 동북쪽으로 대동강 웃쪽기슭을 따라 뻗어간 산발끝에 주암산이라는 나지막한 산이 있다.

이 산을 술이 샘솟는 바위산이라는 뜻인 주암산이라고 불리오게 된것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라고 한다.

먼 옛날 대동강기슭에는 일찌기 어머니를 여의고 늙은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한 총각이 있었다.

그는 아버지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였다.

총각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농사일을 하면서도 짬짬이 산에 올라 나무를 해다 팔아서는 그 돈으로 쌀과 고기를 사다가 아버지를 봉양하였다.

그는 자신은 풀죽으로 끼니를 이어가면서도 아버지에게만은 쌀밥에 고기반찬을 받쳐드리였으며 아버지가 먹고싶어하는 음식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기어이 구해드리군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여느날처럼 산에 올라가 나무 한짐을 해지고 내려오던 그는 목이 말라 어느 바위틈에서 졸졸 흘러내리는 샘터에 지게를 벗어 세워놓고 물을 마시려 하였다.

그런데 샘가에서는 향기로운 냄새가 풍기였고 엎디여 몇모금 마시니 온몸이 후련해지고 정신이 얼떨떨해졌다.

그 샘물을 마시고 집으로 가려고 일어났으나 얼마 가지 못하여 머리가 돌고 다리가 휘청거려 주저앉지 않을수 없었다.

그는 어쩔수없이 지게를 세워놓고 조금 쉬였다 가려고 하였으나 그만 그 자리에 누워 깊이 잠들고말았다.

깨여났을 때는 이미 저녁이였다.

그는 그제야 자기가 마신것이 샘물이 아니라 술이라는것을 알고 아버지 모르게 먼저 술을 마신 일이 죄스러워 집으로 갈수 없었다. 그래서 산기슭의 농가에 들리여 술방구리를 빌리였다.

그는 방구리에 술을 가득히 담아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져다드리였다.

아버지는 뜻밖에 아들이 술방구리에다 향기로운 술을 가득 담아온것을 보고 놀라며 마시려 하지 않았다.

가난한 그들의 처지에서 그처럼 향기로운 술을 그렇게 많이 구할수 없음을 잘 알고있었기때문이다.

《이 녀석아, 바로 말해라. 이 술을 어디서 구해왔느냐?》

아들이 바위틈에서 나오는 술샘에서 가져왔다고 몇번이나 말하며 드시라고 권하였으나 아버지는 믿지 않았다.

아버지는 아들을 앞세우고 그 바위술샘에 가서 술을 마셔보고서야 과연 아들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것을 알았다.

아버지는 이 향기롭고 신비로운 술을 어찌 혼자 마시겠느냐고 하면서 마을의 늙은이들을 모두 불러다 마시도록 하자고 말하였다.

총각의 말을 듣고 모여온 마을의 늙은이들은 신비로운 술샘에서 솟아나는 향기로운 술을 한껏 마시고나서 한결같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게들, 이 술이 어찌 바위에서 저절로 솟아나온 술이라고 하겠나. 이 술은 아버지에 대한 총각의 효성이 하도 지극하여 하늘이 바위에서 솟게 한것이 틀림없네.》

그후 총각이 찾은 술샘은 그의 아버지뿐아니라 온 마을사람들이 함께 마시고 즐기는 샘물이 되였다.

이때부터 술이 샘솟는 바위를 주암이라고 불렀고 그 바위가 있는 산을 주암산이라고 부르게 되였다.

평양사람들은 이때부터 주암산에 깃든 한 총각의 지극한 효성을 자랑하며 길이길이 전해오고있다.

어린 사슴을 구원해준 처녀

먼 옛날 보통강기슭에서 만옥이라는 어린 처녀애가 욕심많은 지주집의 머슴을 살고있었다.

그는 일찌기 부모를 여의고 지주집에 종으로 팔려와 아이보개로, 부엌데기로 갖은 천대와 구박속에서 하루하루를 간신히 연명해갔다.

그러던 어느해 추석날이였다.

지주놈은 제 식솔들만 데리고 그네터와 씨름터로 구경나가면서 어린 만옥이더러 나무를 해오라고 하였다.

만옥은 억울했지만 빚진 종이라 하는수없이 가냘픈 어깨에 지게를 지고 창광산으로 올라갔다.

만옥은 멀리서 들려오는 추석명절을 즐기는 사람들의 소리에 북받치는 설음을 참으며 땔나무를 모으고있었다.

주어놓은 땔나무가지들에는 만옥의 눈물이 점점이 떨어졌다.

어느덧 지게에 한짐 실히 될만큼 나무를 해놓았을 때 갑자기 와삭와삭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어린 사슴 한마리가 급히 뛰여왔다.

다급히 달려온 어린 사슴은 앞에 선 소녀를 보자 만옥의 품속으로 뛰여들듯 바투 다가서며 자기를 좀 숨겨달라고 애절하게 청하는듯 하였다.

가쁜 숨소리, 귀여운 두눈에 고인 맑은 이슬, 덤불에 갈퀴고 째져 흐르는 피자욱… 사냥군한테 쫓기우고있는 것이 분명하였다.

만옥은 더 생각할사이없이 불쌍한 어린 사슴을 나무단속에 숨겨주었다. 아니나다를가 조금 있더니 한 사냥군이 헐레벌떡이며 만옥의 앞으로 달려와 소리쳤다.

《얘야, 사슴이 어느쪽으로 갔는지 못봤느냐?》

만옥이는 웃쪽의 산골짜기를 가리키며 방금 그리로 뛰여갔다고 하였다.

사냥군이 멀리 사라진 뒤 만옥은 어린 사슴을 나무단에서 꺼내여 몸에 묻은 피자욱을 닦아주며 어서 어미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라고 하였다.

어린 사슴은 생명을 구원해준 처녀가 너무도 고마와 눈물을 흘리더니 만옥의 치마자락을 입으로 물고 끌어당기였다.

만옥이는 이상하게 생각되여 어린 사슴을 한참 바라보다가 그가 이끄는대로 따라갔다.

사슴이 가닿은 곳은 맑은 시내물이 흐르고 앞이 탁 트인 경치좋은 곳이였다. 그곳에는 진하게 빨간 꽃들이 향기를 풍기며 활짝 피여있었다.

어린 사슴은 꽃밭가운데에 만옥이를 세우더니 이렇게 말하는듯 하였다.

《나의 생명을 구원해준 그 은혜 무엇으로 갚겠어요. 변변치 못한 보답이오만 이것은 산삼밭이니 한껏 캐여다 머슴살이에서 벗어나고 신세진 이웃사람에게 보답하시라요.》

어린 사슴은 한동안 처녀를 정겹게 쳐다보더니 어디론가 사라졌다.

만옥이 너무도 신기하여 한참 눈을 비비고나서 꽃을 보니 분명 산삼꽃이 끝없이 펼쳐져있었다.

만옥이는 산삼을 정성스레 캐서 땔나무대신 한지게 가득 지고 돌아와 이웃의 고마운 집들에 나누어주고는 지주놈에게 달라는대로 몸값을 물고 지주집에서 나왔다.

그후 만옥이는 마을사람들과 서로 도우면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은혜를 갚은 노루와 뱀

옛날 평양 대동강기슭에 한 로인이 살고있었다. 그는 일찌기 안해와 자식을 병으로 잃고 혼자서 농사도 짓고 대동강에 나가 물고기를 잡아 팔면서 겨우 그날그날 생계를 이어가고있었다.

그러던 어느해 여름 장마철이였다.

그해 따라 근 보름나마 줄소낙비가 퍼붓더니 대동강

에 큰물이 났다. 강뚝으로 흘러넘어온 성난 강물은 격랑을 일으키면서 강기슭의 모든것을 사정없이 삼켜버렸다.

쏴쏴 소리를 내며 무섭게 소용돌이치는 물속에서 널쪽이나 통나무 한끝을 쥐고 구원을 청하는 사람들의 절망에 찬 목소리, 짐승들의 애처로운 울부짖음소리, 독이며 농짝같은 가장집물들이 부서지는 소리… 대동강기슭은 사람과 짐승들의 아우성소리로 차고넘쳤다.

간신히 몸을 피하여 청류벽우에 올라 이 광경을 지켜보던 로인은 이 참상을 보고만 있을수가 없었다.

원래 마음씨 착하고 남의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여기며 의리가 깊다고 존경받던 로인은 떠내려오는 생명들을 구원하고저 제 한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배를 몰아 사품치는 강물속으로 뛰여들었다.

사나운 강물은 배를 단숨에 박살낼듯 밀려와서는 배전을 들이치군 하였다.

그러나 로인은 용케도 배를 몰아 떠내려오는 사람들에게 바줄을 던져주어 수십명의 사람들을 구원하였다.

강복판에서 물에 빠졌던 사람들을 한가득 싣고 기슭으로 돌아나오려는데 갑자기 앞에서 짐승의 울부짖음소리가 들려왔다.

로인이 소리나는쪽을 바라보니 한마리의 노루와 뱀이 통나무를 타고 떠내려가고있었다.

로인은 급히 배를 몰아 노루와 뱀을 건져가지고 무사히 기슭에 가닿았다.

노루와 뱀은 짐승들이지만 자기를 구원해준 로인에게 고맙다고 사례하는듯 자주 뒤를 바라보며 수림속으로 사라졌다.

물에서 건진 사람들을 다 떠나보내고 돌아서던 로인은 자기 뒤의 한 아이가 가지 않고 눈물이 글썽해서 서있는것을 보게 되였다.

로인은 그 아이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 애가 대동강 상류의 어느 마을에 사는 지주의 아들인데 이번 물란리에 집식구는 다 빠져 죽고 그 애만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로인은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자니 집형편도 형편이지만 가난한 백성의 자식도 아닌 지주의 자식을 먹여 살리는것이 어쩐지 께름한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한지에 나앉은 의지가지할데 없는 아이를 내버려둘수야 없지 않은가.)

평생에 혈육 한점 없는 로인은 아이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 같이 살아가기로 하였다.

얼마후 장마도 걷히고 대동강물도 맑아졌다.

로인은 양아들과 함께 고기를 잡으면서 밭일을 하며 지내고있었다.

그때로부터 몇달이 지난 어느날이였다.

그날도 여느날과 다름없이 로인이 괭이를 들고 밭으로 나가려고 사립문을 나서는데 어디서인지 큰 노루 한마리가 뛰여들었다.

노루는 로인의 주위를 맴돌며 코를 킁킁거리고 머리를 주억이면서 반가움을 표시하느라 안절부절 못하였다.

로인이 하도 이상하여 자세히 살펴보니 장마때 자기가 건져주었던 그 노루였다.

《아니, 네가 어떻게 왔느냐?》

로인은 너무 반가운김에 노루의 목을 그러안고 쓸어주기도 하고 잔등을 어루만져주며 기뻐하였다.

그러자 노루는 팔소매를 물더니 로인을 이끌며 몸뚱이를 좌우로 흔들었다.

노루가 노는것을 의아스럽게 지켜보던 로인은 곧 자기더러 어디로 가자는 뜻임을 알아차렸다.

로인은 노루를 따라 숲속으로 한참동안 걸어들어갔다.

노루는 몇번이나 로인이 따라오는가를 확인하는듯 뒤를 돌아보며 걷다가 맑은 시내물이 흐르는 어느 산골짜기의 큰 바위밑에 이르렀다.

그러더니 바위밑을 발굽으로 파헤치기 시작하였다.

밑을 파보라는 뜻인줄 안 로인은 조심스럽게 땅을 뚜졌다.

몇번 괭이질을 하니 그밑에서 큰 독이 나타났다.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어본 로인은 깜짝 놀랐다.

독안에는 금빛광채가 눈이 부시도록 빛을 뿌리는 금은붙이들과 진주보석이 한가득 들어있었던것이다.

너무도 놀라 노루를 쳐다보니 노루는 몇번 머리를 끄덕이고는 어디론가 사라지고말았다.

로인은 독을 조심히 파내여 집으로 지고왔다.

로인은 금가락지며 금팔찌, 금비녀들을 마을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고 그 나머지로 살림을 꾸리였다.

그리하여 로인은 하루밤사이에 평양성에서 내노라하는 부자가 되였다.

로인은 일생 앉아 놀고먹어도 다 쓰지 못할 재물을 얻고서도 하루같이 밭일과 고기잡이를 멈추지 않고 근면하게 일하며 살아갔다.

그런데 말썽거리는 로인의 그 양아들한테서 생겼다.

부자집에서 고이 자라다 재난을 만나 로인에게 의탁하며 하는수없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양아들은 많은 금붙이가 생기자 다음날부터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물쓰듯 하면서 흥탕망탕 놀아댔다.

양아들의 행실을 못마땅하게 여겨오던 로인은 어느날 기회를 타서 듣기 좋게 타일렀다.

《얘야, 사람의 근본은 일이지 돈이 아니니라.》

하건만 원래 남의 등을 쳐먹고 놀기 좋아하던 부자집종자라 저를 구원해준 생명의 은인인 로인의 말을 듣지 않고 점점 엇서나갔다.

《숱한 금붙이가 있는데 무엇때문에 땀을 흘리며 고역살이를 해야 하나요? 또 이 돈이 아버지가 뼈심들여 번 돈인가요? 하늘에서 우리 부자를 위해 뚝 떨어진것이니 이 돈의 절반은 내것이 아닌가요. 그래 내 돈을 내가 쓰는데 잘못인가요?》

양아들은 이렇게 볼 부은 소리를 하며 재물을 축내는것이 응당한것처럼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로인은 좋은 말로 그래서는 못쓴다고 타일렀다.

그러자 양아들은 픽 돌아서더니 불망종같은 말을 던졌다.

《정 그렇게 귀찮게 굴면 난 이 집에서 나가겠으니 그 돈을 절반 갈라달라요.》

그 바람에 화가 독같이 오른 로인은 북두갈구리같은 손으로 양아들의 따귀를 불이 번쩍나게 갈겼다.

《이 배은망덕한 녀석같으니라구!》

로인의 손은 흥분으로 부들부들 떨렸다.

매를 맞은 양아들은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씩씩거리더니 문을 차고 뛰쳐나갔다.

양아들은 매를 맞은 분풀이로 관가에 가서 자기 양아버지는 금은붙이를 훔쳐서 갑작부자가 되였다고 거짓신고를 하였다.

그리하여 로인은 관가에 붙잡혀 갇힌 몸이 되였다.

로인은 죄없이 옥에 갇히운것보다도 죽음에서 구원해주고 아들삼아 믿고 키워준 양아들이 자기를 배반한것이 더 가슴아팠다.

사람의 가죽을 쓰고 태여난 생명이라면 어찌 그럴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모대기다가 겨우 쪽잠에 들었는데 옆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로인은 그만 눈을 떴다.

어둠속에서 손더듬을 하니 무엇인가 선뜻한 촉감이 미쳐왔다.

《이크, 이게 뭐야.》

자세히 살펴보니 보기에도 스산한 굵다란 뱀이였다.

로인이 기겁을 하여 화닥닥 일어나려는 순간에 손등이 따끔하였다.

뱀이 로인의 손을 깨물어놓고 달아난것이였다.

옥중고초에 설상가상으로 뱀에게까지 물리운 로인의 몸은 삽시에 퉁퉁 부어올랐다.

온몸에서 고열이 확확 내뿜고 쑤시여 견딜수 없었다.

이런 동통속에서 새벽이 되여오자 옆에서 또 무엇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로인은 섬찍한 생각이 들어 피하려 하였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아 움직일수 없었다.

가까스로 머리를 들어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니 어제밤에 왔던 그 뱀이 또다시 스르르 긴 몸뚱이를 끌며 들어와 파르스름한 풀잎들을 그 자리에 놓고 사라졌다.

그 뱀이 사라진 다음 얼마 안있어 온몸이 시원해지면서 부었던것이 내리고 동통이 가신듯 없어졌다.

(이것이야말로 신기한 풀이로구나!)

로인은 그 풀잎들을 정히 싸서 거두었다.

그런데 이날 한낮이 되여서 옥밖에서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며 수군거리였다.

무슨 일인지 날이 저물도록 관가의 뜨락은 여느때없이 부산하였다.

《밖에 무슨 일이 생겼소?》

로인이 거듭 물어서야 옥졸은 시끄럽다는듯이 건숭대답하였다.

《감사가 간밤에 뱀에게 물려죽게 되였는데 이름난 의원들이 다 불리워왔어도 속수무책이고 백약이 다 무효요.》

이 말을 듣자 로인은 얼핏 뱀이 자기를 물어주고 풀잎을 가져다주던 일이 생각났다.

로인은 곧 옥졸에게 자기가 감사의 병을 고치겠으니 전해달라고 하였다.

옥졸은 처음에는 로인이 미친 소리를 한다고 듣지 않으려 하였다.

그러나 감사의 생명이 경각에 달렸다는 소식을 듣고 로인의 말을 감사에게 전하였다.

감사는 자기를 구원해줄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관계치 않는다고 하면서 당장 로인을 불러오라고 고아댔다.

그리하여 로인은 옥에서 나와 감사가 거처하고있는 방으로 가게 되였다.

감사에게 불리워 간 로인은 뱀이 가져다준 풀잎을 감사의 상처자리에 붙이였다.

그러자 방금 숨이 넘어갈듯 하던 감사는 정신을 차리였고 퉁퉁 부었던 몸도 원상대로 가라앉았다.

이렇게 되여 일어나앉은 감사는 너무도 신기하여 로인에게 무슨 약초를 썼는가고 물었다.

그리하여 로인은 대동강에 큰물이 났을 때 사람들과 노루와 뱀을 구원해준 이야기로부터 옥에 갇히게 된 사연과 뱀이 자기를 물어놓고 갔다가 이상한 풀잎을 물어

온데 대하여 자초지종 이야기하였다.

로인의 이야기를 다 듣고난 감사는 그 양아들놈을 잡아들이고 로인은 당장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령을 내렸다.

이렇게 되여 마음 착한 로인은 무죄로 놓여나오고 은혜를 모르는 짐승만도 못한 양아들놈은 엄한 형벌을 받았다고 한다.

평양의 일화와 전설

집필: 조광

편집: 장향옥

낸곳: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문출판사

발행: 주체105(2016)년 5월

ㄱ-683553

전자우편(E-mail): flph@star-co.net.kp
http://www.naenara.com.kp